

국악의 성지 리뉴얼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024.06.



제 출 문

남원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악의 성지 리뉴얼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06.

사 단 법 인 한국지방정책연구원
이 사 장 유 관 선

CONTENTS

목 차

제1장 ○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① 연구 배경	1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4
① 연구 범위	14
② 연구 방법	15
제3절 연구 추진절차	16

제2장 ○ 국악 이해

제1절 국악의 범위	19
① 국악의 개념	19
② 국악의 범위	21
제2절 남원의 국악 전통	27
① 고대의 음악	27
② 판소리와 남원	29
③ 남원의 음악인	34
④ 남원에서 판소리가 발달한 이유	40

제3장 ○ 현황 및 여건 분석

제1절 지역현황 및 특성	43
① 일반현황	43
② 문화현황	47
③ 관광현황	51
④ 교통현황	60
제2절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63
① 관련 계획 검토	63
② 관련 법규 검토	67

CONTENTS

목 차

제3절 유사사례 분석	71
① 종교성지 사례	71
② 추모묘역 사례	75
③ 추모공원 사례	79
④ 전 시 관 사례	83
⑤ 체 험 촌 사례	87

제4장 ○ 리뉴얼 및 활성화 필요성

제1절 설문조사·분석	93
① 설문조사 개요	93
② 설문조사 결과분석	94
제2절 수요실태 및 심층면접 조사·분석	100
① 면접조사 개요	100
② 수요실태 및 심층면접 조사·분석 종합	101

제5장 ○ 기본구상

제1절 국악의성지 기본방향	111
① 기본방향 설정	111
② 국악의성지 추진사업안 종합	115
제2절 국악의성지 공간구상	117
① 국악의성지 공간구성 요소	117
② 국악의성지 공간배치안	119
제3절 국악의성지 추진사업안	125
① 우리음악 대표성	125
② 우리음악 전통성	129
③ 우리음악 대중성	140

CONTENTS

목 차

제6장 ○ 사업타당성 분석

제1절 법률적 타당성 검토	157
① 대상지내 법률별 규제사항	157
② 각 지정사항별 주요 행위가능사항	157
③ 법률적 타당성 검토	158
제2절 기술적 타당성 검토	159
① 시공부문	159
② 환경영향	161
제3절 경제적 타당성 검토	162
① 사업비 산정	162
② 경제적 타당성 검토	168
제4절 파급효과 분석	174

제7장 ○ 관리운영방안

제1절 운영기본방향	179
① 국악의성지 운영 기본방향	179
제2절 운영주체 및 조직구성안	180



표 목차

[표 1] 남원시 지리적 위치	43
[표 2] 국악의성지 표고분석	44
[표 3] 국악의성지 경사분석	44
[표 4] 남원시 기상현황	46
[표 5] 남원시 공연시설 현황	47
[표 6] 남원시 전시시설 현황	47
[표 7] 남원시 도서관 현황	48
[표 8] 남원시 공공문화시설 현황	48
[표 9] 남원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52
[표 10] 남원시 지역축제 현황	56
[표 11] 동편제마을 방문객('21~'23)	58
[표 12] 동편제마을 여건 특색	58
[표 13] 배론성지 사례	71
[표 14] 치명자산성지지 사례	73
[표 15] 국립 5·18 민주묘지 사례	75
[표 16] 국립 4·19 민주묘지 사례	77
[표 17] 5·18 기념공원	79
[표 18] 제주 4·3 평화공원	81
[표 19] 국립국악원 전시관	84
[표 20] 한국대중음악박물관 전시관	85
[표 21] 영동국악체험촌	87
[표 22] 정선아라리촌	89
[표 23] 국악의성지 설문조사	93
[표 24] 응답자 일반현황	94
[표 25] 국악의성지 수요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100
[표 26] 국악의성지 리뉴얼 및 활성화 추진사업안 종합	115
[표 27]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자문단 규정 추가(예시안)	127
[표 28] 「남원시 국악의 성지 자문단 자문료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예시안)	127
[표 29] 대상지내 법률별 지정사항	157
[표 30] 행위가능사항	157
[표 31] 행렬식 대조표	161

[표 32] 공사비 분석 내용	162
[표 33] 건설공사비 지수	163
[표 34] 복지시설 단위당 평균 공사비(2017년 유형별 공사현황, 조달청, 2018)	163
[표 35] 타 지자체 전시관 사업비	164
[표 36] 국악의성지 ALT1(전시관·묘역) 리뉴얼 사업비	164
[표 37] 기타 사업비 산정 요율	165
[표 38] 건축물의 종별 구분	166
[표 39] ALT1 및 ALT2 단위당 평균 공사비 산정	167
[표 40] NPV, B/C, IRR의 관계와 평가	169
[표 41] 운영경비 산출	171
[표 42]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172
[표 43] 연차별 현금흐름표	172
[표 44] 지역별 최종수요에 의한 유발계수	176
[표 45] 경제적 파급효과	176
[표 46] 공공서비스 제공방식	180
[표 47] 관리운영방식에 따른 사업 분류	181
[표 48] 향후 국악의성지 운영조직안	182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추진절차	16
[그림 2] 전통음악의 범위	21
[그림 3] 동편제 판소리 전승	31
[그림 4] 국악의성지 수문도	45
[그림 5] 남원시 자연·관광자원	51
[그림 6] 국악의성지 입장객 추세	53
[그림 7] 국악의성지 사진	53
[그림 8] 광한루원 사진	54
[그림 9] 훈불문학관 사진	54
[그림 10] 춘향테마파크 사진	55
[그림 11] 지리산허브밸리 사진	55
[그림 12] 동편제마을 휴락	57
[그림 13] 남원시 입지 및 접근체계	60
[그림 14] 남원시 교통권 위치	61
[그림 15] KTX 및 SRT 철도 노선표	62
[그림 16] 달빛 고속철도 건설계획	62
[그림 17] 국악의성지 공간 이슈사항	117
[그림 18] 국악의성지 공간배치 ALT1	119
[그림 19] 국악의성지 공간배치 ALT1 예시	120
[그림 20] 국악의성지 공간배치 ALT2	121
[그림 21] 국악의성지 공간배치 ALT2 예시	122
[그림 22] 국악의성지 공간배치 ALT3	123
[그림 23] 국악의성지 공간배치 ALT3 예시	124



연구 개요

I. 연구 배경 및 목적

II. 연구 범위 및 방법

III. 연구 추진절차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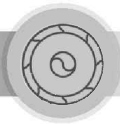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1 연구 배경

1.1 과업 배경

- K-국악 관광상품화 및 문화향유 기대로 전국 지자체 간 국악 입지 및 유치 경쟁 증가
 - 충북 영동군 :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국악 명인촌 조성
 - 충남 공주시 : 국립충청국악원 유치 지속도전
 - 국립국악원 본원(서울) 및 분원(남원,진도,부산,강릉 및 '27년 서산) 운영
- 남원시 국악의성지를 찾는 국악인 및 방문객 유입 활력 필요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시 및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디지털체험문화로 변화
 - 주변의 많은 관광지 개발 및 축제 행사로 인해서 국악의성지로의 방문객 관심과 흡입력이 저조

1.2 연구 목적

- 전국 국악인들이 필요로 한 시설을 확충하여 국악의 성지다운 면모를 갖춘 국악소리문화 중심지 조성
 - 전통문화예술과 관광자원 연계로 남원전통 문화예술 브랜드 가치 확립
 - 리뉴얼 및 활성화 방안 종합분석으로 성역화 후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1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24년
- 기준연도 : 2024년

1.2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비전길 69 국악의성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1.3 내용적 범위

- 기초현황조사 및 개발여건분석
- 리뉴얼 및 활성화 필요성 조사
- 활성화 방안 제시
-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 사업 타당성 검토
- 관리 및 운영 방안

2

연구 방법

2.1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 국악의성지 배경문헌 조사
- 판소리마을 체험휴양시설 운영현황 조사
- 남원시 및 전라북도 통계시스템 자료

2.2 설문조사

□ 동편제마을 및 국악의성지 방문객 대상 수요 조사·분석

- 조사방식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시행
- 조사대상 : 국악의성지 인근 관광지 방문객, 국악 관련 단체 및 전문인
- 조사내용 : 관광객 특성, 국악의성지 인지도 및 국악의성지 활성화

2.3 면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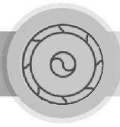
□ 동편제마을 이장·추진위원장 및 국악 전문인 대면면접 심층조사

- 조사방식 : 대면 1:1 심층면접
- 조사대상 : 동편제마을 및 국악 전문인 등 총 13명
 - 수요실태조사 : 총 3명(전촌이장, 비전이장, 동편제마을 추진위원장)
 - 심층면접조사 : 총 10명(국악전문인, 국악단체, 국악교수 등)
- 조사내용 : 국악의성지 공간배치, 프로그램, 인력육성, 명성 제고 등

2.3 협의체계 운영

□ 국악 발전 및 방문객 유입 활성화를 위한 관련부서 유기적 공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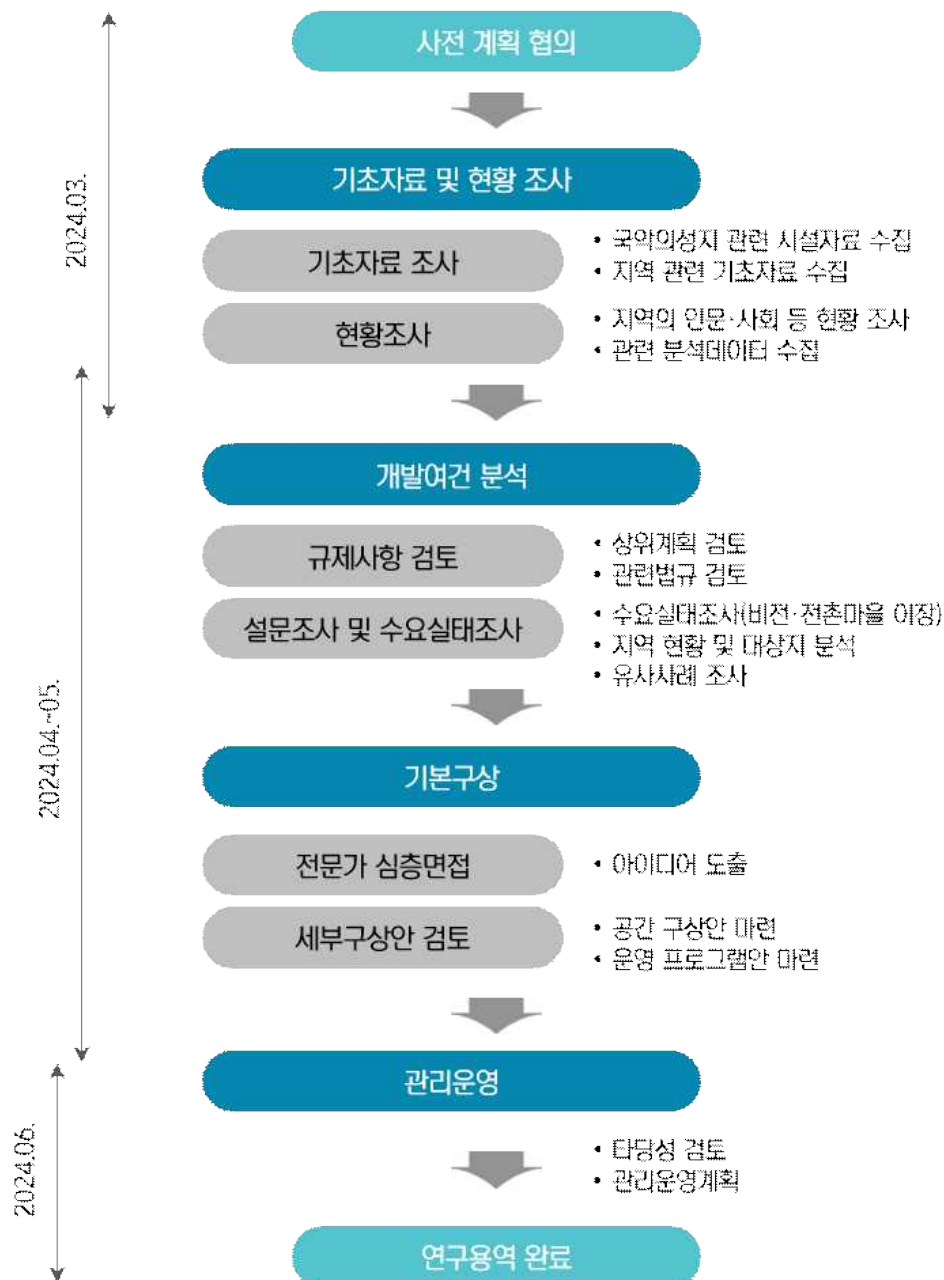
- 남원시청 : 문화예술과 국악진흥팀 상시 협의 및 계획 수립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동편제마을 체험휴양마을 자료지원
- 직속기관 : 국악의성지 관리팀 지원협력



제3절 ○ 연구 추진절차

- 국악의성지 리뉴얼 및 활성화 계획은 남원시, 동편제마을, 국악단체, 전문국악인, 학계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우리나라 국악의 성역화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등 수요분석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그림 1] 연구 추진절차





국악 이해

I. 국악의 범위

II. 남원의 국악 전통

제2장

국악 이해

제1절 국악의 범위

1

국악의 개념

1.1 국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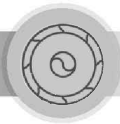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우리나라 음악

- ‘國’을 강조하는 명칭은 일제가 명치유신 이후 근대화에 나서면서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사용

1.2 한국음악

□ 한국인이 향유하는 음악

- 한국인이 향유하는 음악은 시대에 따라, 또 계층에 따라 그 종류를 달리하여 왔음
- 개화 이후의 한국의 음악은 서양의 음악이 주류를 형성
 - 서양음악이 주가 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하면 서양음악을 생각하게 되었고 오히려 우리음악은 ‘국악’이라는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은 말을 사용해야만 할 지경에 이르렀음
- 우리나라에서 향유되는 음악이되, 현대음악을 지칭하지는 않음



1.3 전통음악

□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향수되어 음악

-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향수되어 온 음악은 계층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함
 - 이른바 지배계급의 음악이었던 아악 혹은 정악과 민중들의 음악이었던 민속음악이 그것임
 - 아악 혹은 정악은 궁중을 중심으로 향유되어 왔는데 그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소급할 수 있음
- 민속음악은 우리 민족 내부에서 민족의 삶을 바탕으로 하여 생겨나 전승 발전된 것이지만, 힘없는 민중들이 향유하던 음악이었음
 - 따라서 전통음악 또한 정악 대 민속음악이라는 대립 구도를 형성하게 됨
 - 또한 아악과 민속음악 중에서 어떤 음악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다시 생기게 됨
 - 현재에도 살아 숨쉬는 음악적 전통을 전통음악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

1.4 민족음악

□ 민족 구성원 절대 다수가 향유해 온, 민족적 형식과 내용을 갖춘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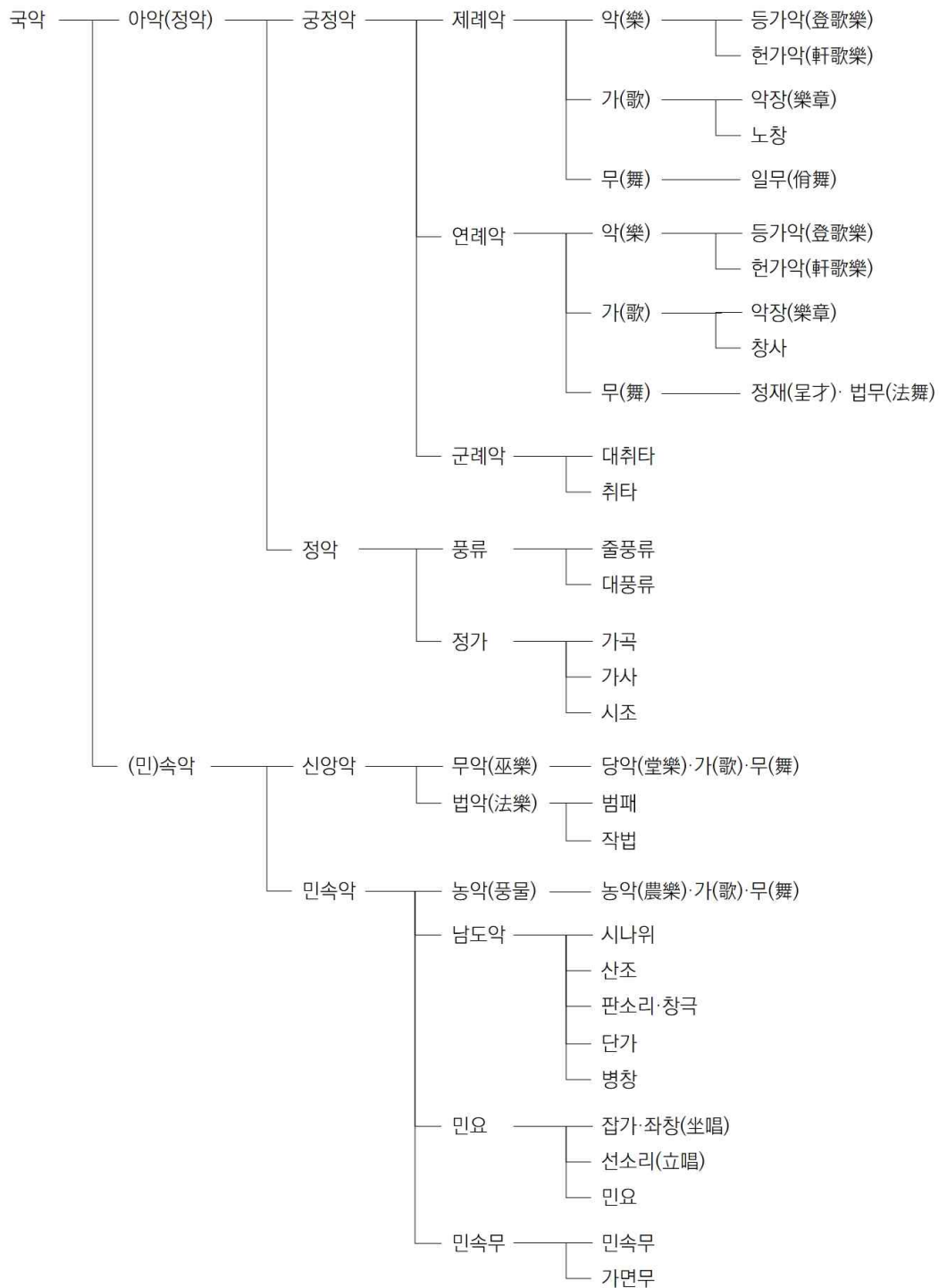
- 민족음악에는 일단 현대에 들어온 서양음악은 제외
- 아악은 배제되어야 함
 -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전통이 되다시피 한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민족 구성원 절대 다수가 향유해 온 음악이 아니기 때문임
- ‘국악’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민속음악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함
- 아악은 천년이 넘게 우리나라에서 향유되어 온 결과 토착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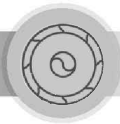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2

국악의 범위

□ 전통음악의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2] 전통음악의 범위





2.1 제례악

- 국가 조정에서 지내는 모든 제향에 따른 악(樂)·가(歌)·무(舞)의 통칭으로 무묘제례악, 종묘제례악이 있음

2.2 등가와 헌가

- 제례(祭禮)나 연례(宴禮)에 연주되는 아악의 편성 및 배치에 따른 두 가지 제도
- 등가악은 전각의 당상 양편에 위치하므로 당상악으로도 불리움
- 헌가악은 정문 양쪽의 헌아(軒下)에 위치하므로 당하악으로도 불리움

2.3 악 장

- 궁중의 시가로서 음악에 화창(和唱)되는 모든 노랫말

2.4 노창

- 궁중의식의 집행 절차에 따라 국궁(鞠躬) 등 동작의 구령을 가락에 실은 것

2.5 일무

- 궁중 제례 때 사용되는 춤으로 행렬을 맞추어 춤

2.6 연례악

- 궁중 조회나 의식, 연향 등에 사용되는 일체의 악·가·무 악곡의 명칭은 200여곡

2.7 창사

- 연례용 정재(무용) 시에 춤의 내용에 따라 춤의 앞·중간·뒤 등에 행사의 의의를 송축하여 부르는 노래
- 구호(口號), 창사(唱詞), 치어(致語)로 세분됨

2.8 정재

- 궁중 연례용 무용을 일컫는데 종류는 60여 종에 이름

2.9 군례악

- 구군악(舊軍樂)이라고도 부르는 취타악
- 장수의 개선이나 군중의 행렬, 왕실의 행차시에 사용하였음
- 고취, 취각, 취타 등으로 불리움

2.10 정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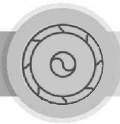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아악과도 통하는 말이지만 좁은 의미로 쓸 때는 궁중이나 일부 양반 사회에서 연주되던 음악을 이룸
- 정악에는 풍류와 정가가 있음

2.11 풍류

- 기악곡으로서 「영산회상」 곡을 이르는데 현악기가 중심이 되는 풍류를 줄풍류, 관악기가 중심이 되는 풍류를 대풍류라고 함
- 선비들의 풍류방을 중심으로 민간에 전승되어온 풍류는 오랜 전승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이 생기고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음
- 서울에서 연주되던 풍류를 경제, 지방에서 연주되던 풍류를 향제라고 함
-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정비되어 전승되고 있음

2.12 정가

- 성악곡으로서 가곡·가사·시조가 이에 속함
- 가곡은 시조·시를 5장으로 짜서 세악의 반주에 얹어 부르는 노래이며 가사는 조선조 중엽부터 발생한 것으로 서사적인 내용을 담은 장편 가사의 노래곡
- 지금과 같은 창법으로 된 것은 조선조 말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



- 정가는 조선조 말에 이르면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되고 또 전문적인 창자(創者)들이 나올 정도까지 발전

2.13 무악

- 무당들의 굿음악으로 오랜 연원을 갖고 있음
- 민요나 잡가, 판소리 등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
- 지역에 따라, 굿의 절차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

2.14 법악

- 불교 의식에서 쓰이는 각종 음악으로 범패는 성악곡임
- 작법은 불교 의식이나 행사에 따르는 무용

2.15 풍물(농악)

- 멀리 삼한시대 정착 영농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
- 농사와 관계 있는 매구, 두레나 마을굿,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에 널리 쓰였을 것으로 추정
- 조선조 후기에는 남사당패의 중요한 레파토리가 되면서 기능적으로 발전
- 각 지역마다 독특한 농악굿이 있는데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 해도 진주 삼천포 농악, 평택 농악, 이리 농악, 강릉 농악, 임실 팔봉농악 등 다섯 가지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악을 크게 구분하면 호남지역의 농악은 동부 산간지대의 풍물굿과 서부 평야지대의 풍물굿, 곧 호남 좌도굿과 호남 우도굿으로 대별
 - 남원은 좌도농악 전승지역에 속함
- 종전에는 좌도굿과 우도굿이 판이하게 구분되었으나 교통의 발달로 서로 영향을 받아 상호 보완 작용을 한 결과, 지금은 상당 부분이 유사함

2.16 시나위

- 남도의 무당이 굿을 할 때 연주하는 음악으로 심방곡, 신방곡 등으로 불리기도 함

2.17 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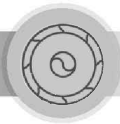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전통 민속음악의 기악 독주곡
- 시나위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학설과 판소리로부터 발생했다고 하는 학설이 있음
- 대체로 19세기말경에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발생함
- 가야금 산조는 19세기말경에 무속음악인 시나위로부터 고도의 예술성을 띤 양식으로 완성됨
- 이후 거문고산조, 대 등이 만들어져 크게 발전함

2.18 판소리

- 조선조 후기에 광대들에 의해 만들어짐
- 긴 이야기를 창자가 고수의 북 장단에 맞추어 창(노래), 아니라(말), 너름새(동작)를 섞어가며 부르는 극적인 음악임
- 남도악 중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예술성이 높은 성악임
- 판소리는 본래 열두 마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곱 가지는 전승과정에서 탈락해 버리고 현재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등 다섯 마당만 남아 있음
- 판소리는 소리하는 스타일이나 전승 지역, 전승 계보에 따라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의 세 가지 양식의 소리가 있었는데 중고제는 현재 전승에서 탈락해 버렸으며 동편제와 서편제 소리도 현대에 오면서 많이 섞여 이제는 ‘제’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 소리가 적음

2.19 창극

- 연극처럼 여러 명의 등장 인물이 각기 배역에 따라 연기를 하면서 판소리를 부르는 연극적 판소리임
- 최초의 창극은 1902년 가을 고종의 즉위 40년을 경축하는 행사를 거행하기 위하여 지금의 광화문 새문안교회 터에 신식 극장인 원각사를 설립하고 그 경축 행사 준비의 칙명을 받은 김창환이 전국의 남녀 명창을 불러들여 준비한 「춘향전」 임



- 한 때 창극은 판소리보다도 더 많은 인기를 누렸으나 지금은 서울에 국립창극단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창극단이 여러 군데 있어서 창극을 공연함

2.20 단가

- 본격적인 판소리 창을 하기에 앞서 부르는 짧은 노래
- 허두가(虛頭歌), 초두가(初頭歌), 단가(端歌), 영산(靈山), 영산(瀛山)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했으나 지금은 단가(短歌)라는 명칭이 널리 쓰임
- 현재 부르고 있는 단가는 40여 가지가 되며 창작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민요나 판소리로 부터 차용하거나 판소리의 한 대목을 그대로 부르는 것도 상당수 있음
- 단가는 본 판소리를 하기 전에 부르기 때문에 가볍게 부르는 것이 보통이며 악상도 화평한 평조(平調)가 대부분임
- 장단은 대부분이 중모리 장단임
- 절실한 현실의 문제보다 관념적이고 환상적인 문제를 다룬 것이 대부분임
- 사설의 이면에는 인생무상과 풍류적 낙천성의 두 가지 주된 정서가 깔려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인생무상이 주류를 이룸

제2절 남원의 국악 전통

1 고대의 음악

1.1 백제의 음악 : 「지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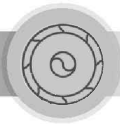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고려사 「악지」 속악조에 그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음

- “구례현 사람의 딸이 자색이 있었는데 지리산에서 살면서 집안이 가난하였으나 부도(婦道)를 다했다. 백제왕이 그녀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첩으로 들이려고 하자 그녀는 이 노래를 지어 죽기를 맹세하고 따르지 않았다.”고 함
- 이 노래는 구례현 사람이 지어 불렀다고 하나 구례에 인접한 남원 지역에도 널리 퍼졌을 것임

1.2 향가 : 「우적가」

□ 영재가 지은 10구체 향가

- 스님 영재는 성품이 익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했다. 만년에 장차 남악(지리산)에 은거하려고 대현령(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도둑 60여 명을 만났다. 도둑들이 그를 해치려 했으나 영재는 칼날 앞에 섰어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화기롭게 대하였다. 도둑들이 이상히 여겨 그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했다. 도둑들이 평소에 그 이름을 들었으므로 이에 노래를 짓게 했다. 그 가사는 이러하다.
 - 제 마음에 형상을 모르려 하던 날,
멀리□□ 지나치고 이제는 숨어서 가고 있네.
오직 그릇된 파계주를 두려워할 짓에 다시 또 돌아가리.
이 칼날이 지나고 나면 좋은 날이 오리니,
아아, 오직 요만한 선(善)은 새집이 되지 않으리.
- 도둑들은 그 노래에 감동되어 비단 2필을 그에게 주니 영재는 웃으면서 사양하여 말했다. “재물이 지옥에 가는 근본임을 알고 장차 궁벽한 산중으로 피해 가서 일생을 보내려 하는데 어찌 감히 이것을 받겠는가.” 이에 땅에 던지니 도둑들은 다시 그 말에 감동되어 모두 가졌던 칼과 창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영재의 제자가 되어 지리산에 숨어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영재의 나이 거의 90살이었으니 원성대왕(元聖大王)의 시대이다.(『삼국유사』)

- 이 기록을 보면 「우적가」가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노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따라서 남원과 관련이 있는 노래이거나 남원 가까운 곳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함

1.3 운상원

□ 운상원은 남원 운봉 부근 추정, 거문고 음악의 창작과 전수 이루어진 음악적 중심지

- 신라 사람 사찬(沙飡) 공영(恭永)의 아들 옥보고(玉寶高)가 지리산 운상원(雲上院)에 들어가 거문고를 배운지 50년에 신조(新調) 30곡을 자작하여 속명득(續命得)에게 전하고 속명득은 귀금선생(貴金先生)에게 전하였는데, 귀금선생도 역시 지리산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신라왕이 금도(琴道)가 끊어질까 근심하여 이찬(伊飡) 윤흥(允興)에게 일러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음률을 전해 얻게 하라 하고 남원의 공사(公事)를 위임하였다. 윤흥이 부임하여 총명한 소년 두 사람을 뽑으니 그 이름이 안장(安長), 청장(淸長)이었다. 그들로 하여금 산중에 들어가 전수케 하였다. 선생이 가르치면서도 그 중 미묘한 것은 숨기고 전수치 않았다. 윤흥이 부인과 함께 가서 말하기를 우리 임금이 나를 남원에 보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생의 기술을 전해 받으라는 것이다. “지금 3년이 되었으나 선생이 비밀로 하여 전해주지 않으니 내가 복명할 길이 없다”고 하며 윤흥이 술을 받들고 그 부인은 잔을 들고 슬행(膝行)하면서 예와 성을 다한 후에 그가 비장하던 표풍(飄風) 등 세 곡을 전수받았다. 안장은 그 아들 극상(克上), 극종(克宗)에게 전하고 극종은 일곱 곡을 지었다. 극종의 뒤에는 거문고로 직업을 삼는 자가 한둘이 아니며 지은 음곡이 두 조가 있으니 일은 평조, 이는 우조인데, 모두 187곡이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성곡으로 유전하여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안되고 다 흩어져서 모두 기재할 수 없다.(『삼국사기』)
- 운상원은 지금의 남원 운봉 부근일 것으로 추정됨
- 운상원은 오랫동안 거문고 음악의 창작과 전수가 이루어진 음악적 중심지임
- 이러한 운봉 지역의 음악적 전통은 후에 판소리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임

2

판소리와 남원

2.1 판소리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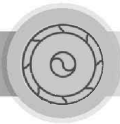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1) 남원 판소리의 지리적 배경

- 「춘향가」는 남원을 배경으로 하여 벌어지는 이야기임(광한루, 교룡산성, 동림, 선원사, 만복사, 오리정, 박석고개 등)
- 「홍보가」 또한 “운봉 함양 두 얼품”이라고 하여 남원 운봉 부근이 배경임
 - 1993년 경희대 민속학연구소에서 「홍부전」 발상지 고증 결과, 남원시 아영면 성리 일대와 동면의 성산리 일대가 홍부의 발복지와 출생지로 각각 확인됨
 - 홍부의 충생지로 확인된 동면 성산리 일대에는 박첨지묘, 박첨지네 텃밭, 연상다리, 타작마당 등이, 발복지인 아영면 성리 일대에는 강정모퉁이, 고둔터, 공구재, 노리다리, 화초장바위거리, 흰죽배미 등이 작품과 관련된 장소로 고증되었음
- 신재효가 정리해 놓은 사실이 남아 있어서 박동진이 복원해 불러 인기를 끌었던 「변강쇠가」의 배경도 지리산임

2) 지리적 배경의 의미

□ 판소리의 발생 배경 또한 남원 지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

- 판소리의 경우에는 전래되어 오던 설화나 전설을 모태로 하는데 전승되던 설화가 작품화되었고 그 설화의 배경이 특정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작품의 발생과 지역의 관련은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임
 - 춘향가의 근원설화
 - 남원 부사의 아들 이도령이 동기(童妓)인 춘양(春陽)과 사랑을 맺은 후에 서울로 올라갔으나 춘양은 수절을 하다가 새 사또인 탁중립에게 죽었는데 호사가들이 이를 슬퍼하여 노래를 만들어 춘양의 원한을 풀고 정절을 찬양했다는 내용이다. 남원의 ‘박색고개 전설’도 「춘향가」의 근원 설화로 자주 언급된다. 판기 월매의 딸이자 천하 박색인 춘향이 이도령을 사모하여 병이 든다. 월매의 계교로 둘이 하룻밤 인연을 맺었으나 이도령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상경해 버리고 춘향은 자결을 한다. 박색고개에 묻힌 춘향의 원혼에 의해 신관 사또들이 부임하는 길로 죽게 되자 장원 급제한 이도령이 내려와 춘향의 전기를 짓고 제사를 지낸 뒤에 광대로 하여금 부르게 했다는



- 것이다.(조재삼(趙在三, 순조 때의 문인)의 「송남잡지(松南雜識)」
- 홍보가의 근원설화
 - 「춘보설화」나 「박첨지설화」가 모두 남원 지역에 전승

2.2 동편제 판소리의 발상지, 전승지

1) 남원은 동편제 판소리의 탄생지이며 중요한 전승지

- 동편제 : 섬진강 동쪽 지역인 남원·순창·곡성·구례 등지에 전승된 소리로서 가왕(歌王)으로 일컬어지는 운봉 출신 송흥록의 소리양식을 표준으로 삼음. 우조(씩씩한 가락)의 표현에 중점을 두고 감정을 가능한 절제하며 장단은 ‘대마디 대장단’을 사용하여 기교를 부리지 않음. 발성은 통성을 사용하여 엄하게 하며 구절 끝마침을 되게 끊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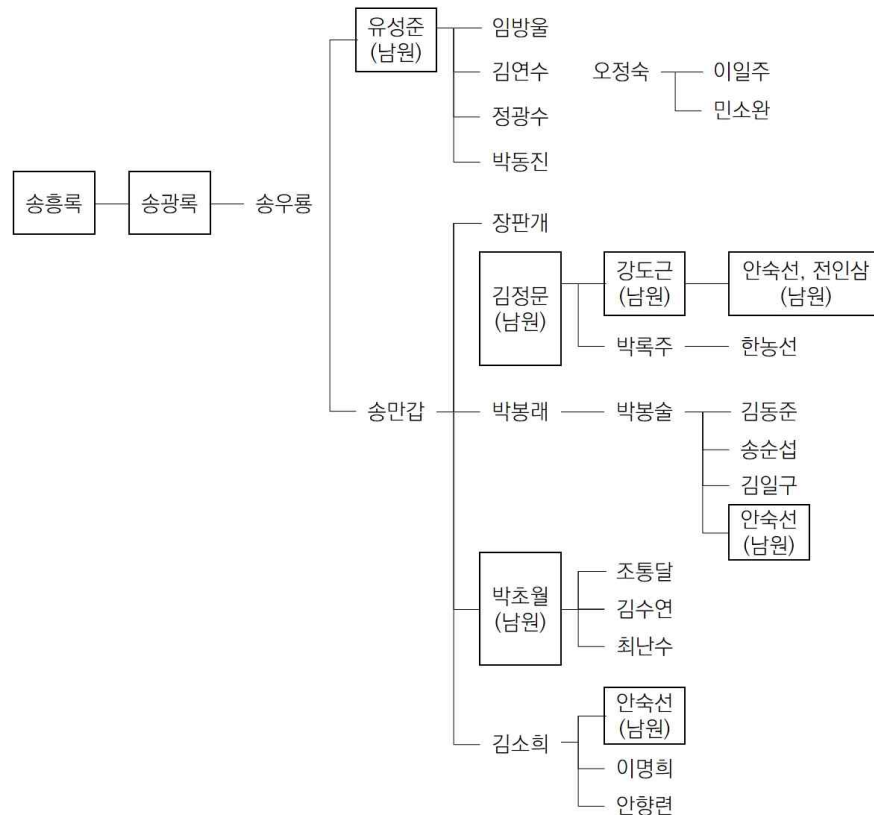
2) 동편제 소리의 미학

□ 발성 면에서는 통성을 주로 사용하여 ‘목으로 우기는’ 창법을 구사하는 ‘막 자치기 소리’

- 통성은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소리임
- ‘막 자치기 소리’란 마구 불려제끼는 소리로 곧 전력을 다하여 고음으로 마구 내지르는 소리임
- 잔재주가 들지 않으며 긴 빨래를 널 듯이 쪽쪽 퍼서 뽀어나감
- 발성에 또 하나 특기할 사항은 소리 끝을 길게 빼지 않고 짧게 끊어서 낸다는 점
- 소리 끝을 들고 나감 : 동편제가 씩씩하고 힘찬 느낌을 내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
- 부침새는 대마디 대장단을 사용
- 동편제 판소리의 부침새를 정대하다고 함 : 규격에 충실한 장단 운용 방식을 가리킴
- 너름새도 단순함
- 이러한 여러 특징은 결국 동편제 판소리가 고졸하다는 평가를 받게 만들었음
- 결국 동편제가 양반의 미의식에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3) 동편제 판소리의 전승

[그림 3] 동편제 판소리 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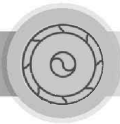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유성준 바디는 「수궁가」와 「적벽가」, 김정문 바디는 「홍보가」, 박봉술 바디는 「적벽가」, 박초월 바디는 「홍보가」, 김소희 바디는 「춘향가」를 주로 전승하였음. 이 중에서 김소희 바디 「춘향가」는 극히 일부에서 송만갑 바디를 계승
- 유성준은 동편제 「수궁가」와 「적벽가」, 김정문은 「홍보가」의 전승에 결정적인 공헌

4) 남원 판소리의 특징

□ 남원 판소리의 중요한 특징은 철성의 전통이며 철성이란 쇠처럼 단단한 소리

- 철성은 수리성이면서도 통성으로 고음을 낼 때 나는 소리임
- 치열한 맛을 남원 소리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철성 때문임
- 철성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성대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안됨
- 거칠면서도 단단하고 철성이야말로 동편제 판소리가 최종적으로 다다른 경지를 상징



2.3 가왕(歌王) 송흥록(송흥록(宋興祿)의 출생지

1) 가왕 송흥록

- 송흥록은 19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사람으로서 남원 운봉 비전리 출신
- 판소리의 중시조라고도 함
- 송흥록을 가왕으로 부른 사람은 송흥록보다 선배적인 모흥갑임

2) 송흥록의 판소리사에서의 공헌

- 계면조의 세련
 - “비곡(悲曲)을 잘 하였고 귀곡성(鬼哭聲)에는 탈조화하였다”(『조선창극사』)
 - 귀곡성은 「춘향가」 중 ‘옥중가’에 나오는 것으로 귀신이 우는 소리임
 - 귀곡성은 송흥록이 꿈속에서 귀신을 만나 직접 배웠다고 함
 - “어느 때 진주 축석루에서 판소리를 하는 데 만좌는 모두들 느껴서 눈물을 금지 못하였고 또 사면이 적요한 깊은 밤인데 「춘향가」 중 ‘옥중가’의 귀성(鬼聲)을 발하는 대목에 이르러서 창거창래(昌去昌來) 소리가 진경에 들어가매 음풍(陰風)이 슬슬 돌면서 수십 대의 촉불이 일시에 탁 꺼지고 반공에서 귀곡성이 은은히 나는 듯하였다.”(『조선창극사』)
 - 송흥록이 비곡을 잘 한 것은 진양조의 개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임
- 진양조의 완성
 - 송흥록의 매부인 김성옥은 학승풍으로 오래 누워지내는 사이에 진양조를 개발하였는데 송흥록은 이를 오랜 기간 연마하여 진양조를 완성
 - 진양조는 판소리 중 가장 느린 대목에 많이 쓰임
 - 진양조는 리듬의 구조상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리듬이라고는 할 수 없음. 우선 너무 느려서 노동과는 거리가 먼 리듬인데다가 같은 각(角)이 네 번이나 반복되는 구조 자체가 ‘변화’ 보다는 ‘반복’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격렬한 정서에는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임
 - 진양조는 가곡성 우조로 부르는 대목들을 포함 : 가곡성 우조는 판소리의 창법을 가곡처럼 하는 대목을 가리키는데 악상은 “점잖고 품위 있게”, 혹은 “품위 있고 우아하게”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판소리는 진양조를 매개로 해서 양반들의 음악적 자산을 판소리에 도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산유화조(매나리조)의 개발

- 산유화조는 강원도 아리랑, 왜지나칭칭, 매나리와 같은 강원도, 경상도 향토민요토리임
- 송흥록이 산유화조를 개발했다는 것은 판소리 속에 강원도, 경상도 민요의 선율을 도입했다는 것을 의미
- 판소리의 표현 영역을 넓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다른 지역의 음악적 자산들을 포섭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민족예술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

2.4 판소리 관련 축제와 사업**1) 1931년부터 춘향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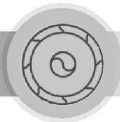
- 이 대회를 통하여 수많은 명창들이 배출되었고 판소리가 사라져가던 시절에도 판소리의 명맥을 이어주는데 크게 기여

2) 흥부마을 지정과 흥부 축제

- 흥부전 발상지 고증을 통해 흥부마을 지정(1993년 흥부전 발상지 고증을 통해 남원시 아영면 성리 일대와 동면의 일대가 흥부의 발복지와 출생지로 각각 확인됨)
- 흥부의 모델이었다는 춘보를 기리는 춘보망제
- 매년 가을 흥부 축제

3) 판소리 교육을 위해 국악원 유지

- 일제강점기에는 권변에서 판소리 및 민속예술 교육
- 판소리가 거의 사멸지경에 이르렀던 1960~70년대에도 국악원을 개설 : 김영운, 강도근
- 1992년 국립민속국악원 설립



3

남원의 음악인

3.1 송흥록(宋興祿, 1800년대~1863년 경)

- 남원 운봉 비전리 출신으로 가왕(歌王)으로 일컬어지며 흔히 '시중천자(詩中天子) 이태백(李太白)에 비유됨
- 송흥록은 그 당시까지의 모든 판소리를 집대성하여 한 차원 높은 예술의 경지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판소리의 증시조로 추앙을 받으며 동편제 창법의 창시자임
- 송흥록의 판소리사에 대한 공헌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계면조(설움조)의 세련, 둘째 진양조의 완성, 셋째 산유화조의 도입임
- 송흥록은 당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음악적 유산을 판소리화함으로써 판소리를 계층과 지역을 초월하여 광범위한 지지와 애호를 받을 수 있는 예술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음
- 송흥록은 「변강쇠타령」, 「적벽가」, 「춘향가」 중 옥중가를 잘했으며 그의 더늠은 「천봉만학가」라고 하는 단가임

3.2 송광록(宋光祿, 1923년경~?)

- 남원 운봉 출신으로 가왕 송흥록의 동생
- 처음에는 형인 송흥록의 고수 노릇을 했으나 고수의 하대에 불만을 품고 제주도로 들어가 수년간의 노력 끝에 대명창이 되었음
- 그의 소리는 아들 송우룡과 손자 송만갑, 증손자 송기덕에게까지 이어져 동편 소리의 거대한 산맥을 이룸
- 더늠으로는 진양조 '사랑가'가 전함

3.3 장자백(張子伯, 1845~1907)

- 「남원지」에 의하면 철종 때 남원 운봉에서 태어나 순창에서 살다가 남원시 도통동에서 임종하였다고 함
- 「조선창극사」에는 순창 사람으로 나와 있음
- 김세종에서 배웠음
- 장자백은 미남자로 유명하였는데 그의 처 역시 미인이었다고 함. 그런데 장바쟁이 명창으로 대성할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의 처는 장자백을 떠나 다른 옥구의 어떤 사람의 첩으로 가버렸음. 이에 장자백은 크게 결심하고 천신만고 끝에 대명창이 되었다고 함

- 장자백은 「변강쇠타령」과 「춘향가」를 잘 하였으며 그의 더듬은 「춘향가」 중 적성가임

3.4 유성준(劉成俊, 1874~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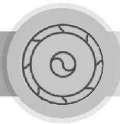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호적상 본적은 남원시 아영면 의지리 997번지임
- 송만갑과 함께 송우룡에게 배웠으나 처음에는 송만갑의 그늘에 가려 별로 빛을 보지 못했으나 송만갑이 죽은 후에는 동편 소리의 가장 대표적인 소리꾼으로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음
- 임방울, 정광수, 김연수, 박초월, 강도근 등이 대표적인 제자들임
- 「적벽가」와 「수궁가」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가장 강력한 전승력을 보임

3.5 김정문(金正文, 1887~1935)

- 호적상 본적은 남원시 주천면 주천리 721번지임
- 원호적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평장리 143번지이며 1921년에는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672번지로 이사한 기록이 있음
- 김정문은 유성준과 장자백의 생질임
- 어려서 유성준에게 소리를 배웠으나 남에게 늘 뒤진다고 유성준에게 얻어맞은 후에 유성준 문하를 떠나 송만갑의 고수가 되어 송만갑의 가르침을 받아 대성함
- 김정문의 소리에는 서편제적인 특성이 강하게 남아 있는데 이는 서편 소리꾼 김채만이 소리하는 모습을 보고 반하여 김채만에게 소리를 배운 결과임
- 김정문은 특히 「흥보가」를 잘 불러는데 그의 소리는 강도근과 박녹주에 의해 충실히 이어져 현재 「흥보가」의 중추가 되고 있음

3.6 이화중선(李花仲仙, 1898~1943)

- 이화중선의 출생지는 별교, 부산, 남원 등지로 다양하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화중선의 아버지 이춘실은 부산 수영 출신으로 집안이 가난하여 김해, 마산, 창원, 사천, 함양 등지를 떠돌다가 남원에 정착하였다고 함



- 이화중선의 출생지는 부산일 가능성이 가장 크며 세 살 때 남원으로 이주하여 성장함
- 열일곱 살에 남원 수지면 흙실(현 내호곡) 박씨 문중으로 출가했으나 협률사 공연을 보고 가출하여 소리꾼이 되었음
- 소리는 남원과 순창군 적성에서 주로 배웠으며 일제강점기에 천성의 고운 목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으며 일제 강점기 최고의 여창으로 군림함
- 특히 그가 부른 「심청가」 중 「추월만정」은 음반으로 발매되어 대히트함
- 1930년대에 아편 중독이 되어 일본에서 어렵게 지내다가 1943년 신병의 악화를 비관하여 공연 도중 자살하였다고도 하고 북해도에 징용간 사람들을 위문하러 갔아오다가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죽었다고 함

3.7 김영운(金永運, 1916~1975)

- 김정문의 형인 김정식의 아들로 본명은 김기순이며 강도군의 매부임
-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241번지에서 태어났으며 김정문으로부터 전형적인 동편제 소리를 이어받음
- '50년대부터 남원국악원에서 소리를 가르쳤는데 「홍보가」를 잘하였고 상청이 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었으나 북을 잘 치고 도리를 가르치는데 열심이였다고 함
- 강도군이 본격적으로 남원의 판소리를 맡기 이전 남원 판소리를 지킨 사람이 김영운이었으며 성우향, 안숙선, 이일주, 강정숙, 강문숙 등이 그에게 소리를 배운 제자들임

3.8 박초월(朴初月, 1913~1987)

- 전남 승주군 주암면 백로리 외가에서 태어나 일곱 살까지 그곳에서 성장하다가 운봉으로 와서 성장함
- 12세 때 김정문에게 「홍보가」를 배운 뒤 송만갑으로부터 「춘향가」, 「심청가」를 배우고 유성준에게 「수궁가」를 배웠음
- 1932년 전주에서 개최된 전국 남녀명창대회에서 1등에 입상함으로써 명성을 얻기 시작함
- 김소희와 함께 여성창극의 1인자로 군림함
- 1967년 「수궁가」로 중요무형문화재에 지정됨
- 강한 고음이 주는 서슬 푸른 소리로 서민적 정서를 잘 표현하여 사랑을 받았으며 조통달, 남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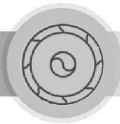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최난수, 김수연 등이 박초월의 소리를 이었음

3.9 강도근(姜道根, 1918~1996)

- 남원 향교동에서 태어남
- 김정문에게 「홍보가」를 배웠고 상경하여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송만갑에게 「홍보가」의 미진한 곳을 배웠음. 마지막으로 유성준에게 「수궁가」를 배웠음
-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는 창극단에 들어가 활동을 했고 6·25후에는 서울, 목포, 전주, 이리, 여수, 순천, 부산 등지의 국악원에서 창악 강사를 함
- 1973년 남원국악원 창악 강사로 부임한 이래 별세하기까지 거의 전 기간을 남원에 머물며 후진을 양성하는데 바쳤음
- 강도근은 송만갑, 김정문으로 이어지는 동편제 판소리 철성의 전통을 가장 잘 간직한 소리꾼으로 인정되어 1988년 중요무형문화재가 되었음
- 대표적인 제자로는 안숙선, 박윤초, 강정숙, 전인삼 등이 있음

3.10 안숙선(安淑善, 1949~)

- 명창 강도근이 생질녀임
-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윗점마을에서 태어남
- 어려서부터 남원국악원에 들어가서 강도근으로부터 「홍보가」와 「춘향가」를 공부하였는데 15세에는 벌써 소녀 명창으로 이름을 날림
- 1968년에는 다시 정광수 명창으로부터 「수궁가」를, 김소희에게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를 배웠으며, 박봉술로부터 「적벽가」를 배웠고 또 박귀희로부터 가야금 병창을 배워 2년만에 달인이 되었음
- 1979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한 이래 수많은 창극에 주역으로 활동함
- 우리나라 여창 판소리를 대표하는 김소희의 소리를 가장 잘 전승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며 맑고 고운 목과 풍부한 감정 표현 등으로 현대 여창 판소리를 대표함



3.11 강백천(姜白川, 1898~1982)

- 남원시 주천면 호기리 169번지에서 출생하였으며 강도근의 사촌형임
- 일제강점기에 대금산조를 만든 진도 출신 박종기에게 배워 대금산조의 대가가 되었음
- 우리나라 최초의 대금산조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음
- 그의 대금 가락은 아쉽게도 제대로 이은 사람이 없고 부산지역에 그의 가락을 부분적으로 이은 사람이 남아 있음

3.12 강정렬(姜廷烈,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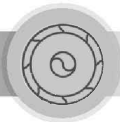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절면 신평리 582번지에서 태어남
- 아버지 강태근은 가야금의 명인이었고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였던 대금의 명인 강백천과 판소리 명창 강도근이 당숙임. 일곱 살 나던 해 고모인 강순영으로부터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함
- 열여섯에는 남원으로 가서 당숙인 강도근으로부터 판소리 수업을 받음
- 1967년 상경하여 성금연, 김병호에게 가야금 산조와 병창을 배우고 1971년 다시 상경, 서공철의 집에 기식을 하면서 가야금산조와 철가야산조, 가야금병창을 배웠음
- 1973년 부산 국악협회 강사로 초빙되어 갔다가 1980년 다시 전주로 돌아와 신관용류(申寬龍流) 가야금 산조를 정리함. 이 때 정리한 신관용류 가야금산조로 1984년 경주 신라문화제에서 우수상에 입상, 다음 해에는 전주대사습대회에서 기악부 장원에 오름
- 1986년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교수
- 1987년 유일한 남자 가야금병창 무형문화재였던 정달영(鄭達英)으로부터 가야금병창을 배워 그의 전승자가 되었음

3.13 유명철(柳明喆, 1942~2022)

- 남원시 금지면 서매리에서 태어남
- 부친 유한준이 유명한 상쇠임
- 열여섯 되던 해부터 부친 밑에서 쇠를 쳤던 강태문에게 전립질과 굿가락을 배웠고 판굿은 곡성의

기창수에게 배웠음

- 한 때 유명청은 남녀 혼합 단체인 춘향농악단을 만들어 공연에 나서기도 했음
- 현재 호남 좌도 농악의 최고 상쇠, 특히 그이 상모놀음(개꼬리상모)은 우리나라 최고임
- 1997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지정



4

남원에서 판소리가 발달한 이유

4.1 역사적 배경

- 백제때부터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예술인들이 남원에 모여들었고, 612년 벽제 무왕이 일본에 보낸 태마원, 기중방, 가다의 등의 악사들도 고룡(남원)을 거쳐간 것으로 전해짐
- 일본은 옛날 외래음악을 오악(吳樂: 구레가꾸)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남원의 옛 이름이 고룡이 구레로 와전된 것이라는 학설이 있으므로 남원지역에서 발달했던 음악이 섬진강 줄기를 따라 일본에 전해질 정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음
- 학계에서는 백제가 옛날 대방을 일시 탈취하였을 때 그곳 유민(중국인)의 일부를 남원에 이치시켰고 그 결과 대방의 유민자손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는 판소리와 중국 강창문학의 구연형태 및 구연자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임

4.2 자연적 배경

- 옛날부터 판소리 수련은 경치좋은 심산유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지리산이 대표적인 연마장이었음
- 수많은 명창들이 지리산 계곡으로 들어가 우렁찬 폭포소리와 맞겨루어 목에서 피를 토하는 수련을 했으며, 소리를 하다 좌절하면 지리산 토굴을 찾아 독공의 세월을 득음으로 이려갔던 것으로 전해짐
- 운봉은 지리산자락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연마하기에 좋은 곳이 많았으며, 특히 옥계동계곡 및 인접한 구룡폭포는 송흥록을 비롯한 많은 명창이 수련의 장으로 활용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임

4.3 사회적 배경

- 운봉은 전라도와 경상도가 통하는 통로로서 교통이 빈번하여 고려시대부터 원(院: 일반 여행자를 위해 설치한 여관)과 같은 여관과 주막이 많았고 풍광이 아름다워 찾는 이가 끊이지 않는 번성한 곳이었음
- 따라서 명창들이 인접한 지리산의 풍요로운 산수속에서 갈고 닦은 기예를 이곳에서 펼쳐볼 수 있는 장이 되었음
- 한편, 운봉은 지리산 아래 고원지대이지만 지리산 산록을 따라 평야가 잘 발달된 곳으로서 넓은 들을 배경으로 몇몇 대지주들이 등장했고 이들이 명창들의 충실한 후원자가 될 수 있었음



현황 및 여건 분석

I. 지역현황 및 특성

II.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III. 유사사례 분석

제3장

현황 및 여건 분석

제1절 지역현황 및 특성

1 일반현황

1.1 지리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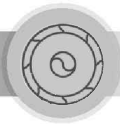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대한민국 서남부 내륙에 위치해 있으며 행정구역상 6개 시·군과 인접

-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동부에 위치하여 동경 127, 북위 35에 펼쳐 있으며 경상남도 거창군·함양군과 도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은 곡성군, 서는 임실군·순창군, 북은 장수군과 접하여 행정 구역상 6개 시·군과 인접
 - 남원시는 지리적으로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와 접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문화예술의 교류와 국악의성지를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리 위치
- 남원시의 동단은 산내면 중항리, 서단은 대강면 생암리, 남단은 금지면 하도리, 북단은 보절면 성시리이며, 동서 간 거리 44.7km, 남북 간 거리 28.6km로 동서장축의 형태를 이룸
 - 노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의 중산지인 남원시 지형은 크게 산지, 고원, 구릉, 평야로 구분

[표 1] 남원시 지리적 위치

군청 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면적
		지명	극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동단	산내면 중항리	동경 127° 40′	동↔서 거리 44.7km 남↔북 거리 28.6km	752.21km ²
	서단	대강면 생암리	동경 127° 11′		
	남단	금지면 하도리	북위 35° 18′		
	북단	보절면 성시리	북위 35° 33′		

자료 : 남원시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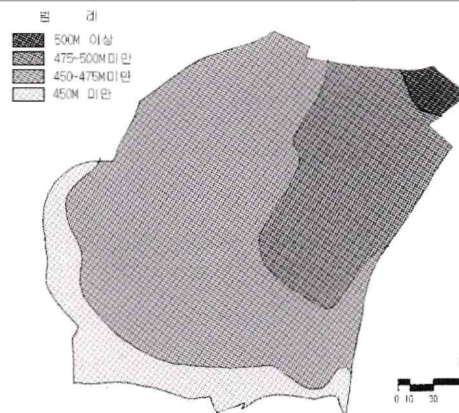


□ 국악의성지 83.2%가 해발 450~500m 고지대

- 남원시는 노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의 중심지로 지형은 크게 국지기복을 중심으로 600m이상의 산지, 150~600m범위의 고원·구릉, 150m이내의 평야로 구분
- 국악의성지는 최저표고점 443m, 최고표고점 508m로 표고차가 63m이고, 450~475m에 해당하는 지역이 52.2%, 475~500m가 31.0%로 구성

[표 2] 국악의성지 표고분석

표고	450m 미만	450~475m	475~500m	500m 이상
구성비(%)	14.6%	52.2%	31.0%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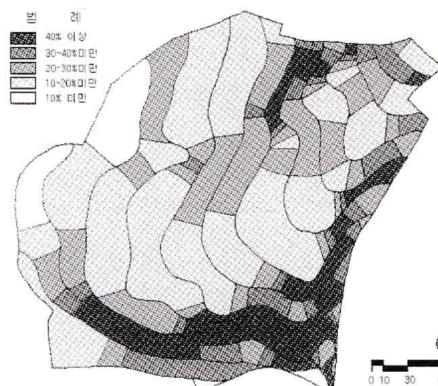


□ 국악의성지 경사 20% 이상의 토지가 79.6%

- 국악의성지 경사도는 10~20% 지역이 전체의 51%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20~30%의 경사도 지역이 22.3%를 차지

[표 3] 국악의성지 경사분석

경사도	10%미만	10~20%	20~30%	30~40%	40%이상
구성비(%)	11.4%	9.0%	22.3%	51.9%	6.3%



□ 국악의성지 총 3개 수계, 주류는 남쪽 람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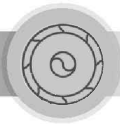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국악의성지는 북서쪽·동쪽·남동쪽 세 유역으로 나뉘어있음
 - 북서쪽 수계인 큰 양지골, 동쪽 수계인 깊은골, 남쪽 수계가 만나서 비전들 농로로 합류되어 남원시의 중요한 수로인 광천으로 유입되고 있음
- 큰 수계는 국악의성지 남쪽에 흐르는 람천
 - 지리산 고리봉에서 발원하여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을 지나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도계에서 좁은 협곡을 통과하여 임천으로 흘러드는 지방2급 하천

[그림 4] 국악의성지 수문도



□ 국악의성지 뒷산인 황산 일대는 소나무 군집

- 국악의성지가 위치한 황산지역의 전반적인 식생은 소나무 군집(*Pinus densiflora* community)으로 보이며 아교목층은 신갈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등의 참나무류와 산벚나무, 팔배나무, 때죽나무 등이 우점종
 - 고도가 높아질수록 쇠물푸레나무의 우점성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관목층은 주로 산초나무, 노린재나무, 노간주나무, 초피나무 및 싸리나무류로 구성
- 해발 500m 이하에는 리기다소나무(*Pinus rigida*)가 아까시나무 등과 함께 혼재
 - 소나무의 입목밀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경급Ⅱ, 영급Ⅱ 정도의 유령림으로 파악
- 특이하거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수종 및 초종은 소나무 천연림, 아교목층의 암벽에 폭넓게 분포된 쇠물푸레나무, 정상 주변의 민대팻집나무, 제비란, 층층잔대, 관중 등 있음



1.2 기후 환경

□ 남원시는 내륙성 기후대로 온화한 기후

-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남동부의 산간 대분지에 위치하여 내륙성 기후대에 속하므로 대체적으로 온화한 기후를 보이는 지역
 - 동계에는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날이 많고 하계에는 아열대 저기압 및 지리산의 영향으로 다우지역에 속하며 고원에 위치한 운봉읍 등 동부는 고랭지 산간지역으로 아한대성 기후 성향을 보이고 있음

□ 남원시는 내륙성 기후대로 온화한 기후

- 남원시의 평균기온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평균기온보다 낮아 여름철 기온이 30℃를 넘는 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벚꽃 개화일도 늦음
- 남원시의 강수량은 타 지역에 비해 많고 강수량의 월편차가 높고, 전체 강우량의 50~60%가 6~8월에 집중
- 연평균 일조량은 2,214시간으로 일조량이 풍부
- 평균풍속은 1.8%, 평균최대풍속은 11.3%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습도는 73.0%이며 습도는 증가 추세
- 주풍향은 하계에는 남동풍 및 남서풍, 동계에는 북서풍이 우세

[표 4] 남원시 기상현황

연도	기온(℃)			강수량 (mm)	평균습도 (%)	일조시간	풍속(%)	
	평균	평균최고	평균최저				평균	최대
2017년	12.7	19.2	7.2	851.3	65.1	2,362.1	1.6	6.6
2018년	13.0	19.2	7.7	1,431.7	66.8	2,418.1	1.7	7.2
2019년	13.3	19.6	8.0	1,332.8	67.9	2,315.4	1.6	10.4
2020년	13.1	19.1	8.1	2,007.2	73.0	2,162.1	1.7	9.8
2021년	13.4	19.6	8.3	1,136.8	73.0	2,214.0	1.8	11.3

자료 : 남원시 통계연보, 2021.

2

문화현황

2.1 문화시설 현황

□ 남원시에는 국립 공연시설 1개소, 공립 공연시설 1개소 운영

- 지리산 소극장의 경우 2005년 생활친화적 문화환경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소극장으로 남원 시립도서관 내 위치하고 있음

[표 5] 남원시 공연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면적	운영주체		주요내용
		운영구분	주체명	
남원 지리산 소극장	542㎡	공립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 소규모행사 개최
국립민속국악원	8,237㎡	국립	국립국악원	국악공연, 교육 및 체험, 학술자료 제작·보급
춘향문화예술회관	4,410㎡	공립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	예술 공연, 영화, 일반행사, 미술전시회, 문화교실 운영
국악의성지	1,947㎡	공립	시립예술단	상설공연 및 국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료 : 남원 문화비전 2025연구, 202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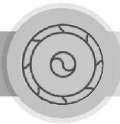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남원시에는 10개소 전시시설 운영

- 남원시에는 10개의 전시시설이 있으며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은 현지만의 고유한 지역사와 관련된 전시시설이 다수

[표 6] 남원시 전시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면적	운영주체		주요내용
		운영구분	주체명	
남원향토박물관	1,382㎡	공립	남원시	남원 향토, 생활사 전시
훈복문학관	321㎡	공립	(사)훈복정신선양회	문학(훈복), 생활사 전시
김주열열사 기념관	50㎡	공립	김주열열사추모사업회	김주열열사 생애 전시
만인의총	100,866㎡	공립	전북특별자치도	전통혼례식, 만인의사 순의제향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1,442㎡	공립	남원시	미술 작품 전시, 김병종 작가 상설전시
백두대간생태교육전시관	5,160㎡	공립	남원시	전시관, 곤충온실, 야외공연장
수지미술관	886㎡	사립	남원시	미술 작품 전시
예가람길미술관	131㎡	사립	남원시	작품 전시
송은갤러리	206㎡	사립	개인(노영선)	지역 예술가 작품 전시 및 판매
푸른웃소매	33㎡	사립	개인(이정희)	회화 전시 및 빈티지 공예품 전시, 판매, 갤러리

자료 : 남원 문화비전 2025연구, 2021.11.



□ 남원시에는 4개소 도서관 운영

- 남원시에는 총 4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남원시립도서관과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 2개관은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남원교육문화회관과 운봉분관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운영

[표 7] 남원시 도서관 현황

시설명	위치	운영주체	개관년도	주요내용
남원시립도서관	시내권	남원시	2008	카페형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내권	남원시	2019	최신시설과 공간구성, 어린이청소년전용
교육문화회관	시내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2002	도서 및 학습실
운봉분관	운봉읍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1990	농촌문화거점기관

자료 : 남원 문화비전 2025연구, 2021.11.

□ 남원시에는 7개소 공공문화시설 운영

- 남원시에는 7개의 공공문화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은 모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의 문화시설임
 - 전문 국악인을 위한 문화시설은 아니며 일반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시설로 조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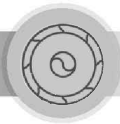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표 8] 남원시 공공문화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면적	운영주체		주요내용
		운영구분	주체명	
남원청소년수련관	2,609㎡	위탁	삼동청소년회	청소년 자치활동,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남원청소년문화의집	405㎡	위탁	삼동청소년회	동아리,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운영위원회, 인터넷 방송단 운영
남원문화원	584㎡	공립	남원문화원	남원 독서클럽,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예가람길 방문자센터 및 창작공간	616㎡	시립	남원시	문화예술 전시공간 및 시민대상 소규모 문화예술 활동
남원시립국악연수원	1,947㎡	시립	시립국악연수원	판소리, 가야금, 농악, 무용 교육 운영
남원항공우주천문대	1,494㎡	시립	남원시	천체 관측 및 천문 특강, 전시, 천문캠프 운영
전라북도학생교육원	6,382㎡	시립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 공동생활, 교육과정 운영

자료 : 남원 문화비전 2025연구, 2021.11.

2.2 남원 20경

구분	내용	이미지
광한루원	춘향전의 배경으로 유명하며, 선조들이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닮고자 하는 생각을 표현해낸 공간으로, 신선이 사는 이상향을 지상에 건설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정원으로 명승 제33호이며 경회루, 축석루, 부벽루와 함께 우리나라 4대누각에 들 정도로 만물새가 뛰어남	
춘향테마파크	춘향전을 주제로 조성한 관광지로 광한루원 건너편에 위치한 남원관광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과 2005년 KBS드라마 '괘걸춘향'의 촬영지임 사랑을 테마로 한 맹약, 만남, 사랑과 이별, 시련, 축제 총 5개의 장으로 조성됨	
훈불문학관	최명희 대하소설 '훈불'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문학관으로 남원시 사매면 노봉안길에 위치함, 전시관과 꽃심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시관에는 최명희의 육필원고와 소설의 장면을 형상화한 디오라마가 있고 꽃심관은 쉼터와 같은 곳. 사랑실과 누마루가 있음	
국악의 성지	전통예술 '국악'을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리산 기슭 운봉읍에 조성한 곳으로 동편제를 완성시켜 가왕의 칭호를 받은 송홍록 선생의 생가와 국악전시체험관, 독공실, 야외공연장, 국악인의 묘역, 사당 등이 배치 되어 있으며, 기악, 정악, 명창들의 기증 유물 등이 전시되어 판소리를 비롯한 우리 음악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임	
흥부마을	흥부전의 배경인 남원시 아영면 성리마을로 전해내려오는 설화와 지명을 근거로, 흥부가 정착하여 부자가 된 발복지로 밝혀졌으며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복덕가 춘보설화가 전해짐	
실상사	지리산 천왕봉을 마주하고 자리한 절로 신라 흥덕왕 3년(828)에 흥척스님이 세운 최초의 선종가람이다. 정유재란 때 모두 불타 속종 때 건물 36동을 다시 지었으나, 고종 때 화재를 당해 현재 소규모로 복구함. 암자인 약수암과 백장암의 문화재를 포함하여 경내에는 국보인 백장암 삼층 석탑, 보물 11점 등이 있어 단일 사찰로는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	
황산대첩비지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적을 무찌른 업적을 기념하여 세운 승전비가 있던 자리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비전길에 위치함. 고려 후기 왜구가 지리산 방면을 집중 공격하자 이성계를 보내어 왜구를 토벌케 하였고 이 전투를 황산대첩이라 함	
만인의총	정유재란(1597년)때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민·관·군 1만여 의사들의 호국의 열이 서려있는 성스러운 곳임 전쟁이 끝난 뒤 피난에서 돌아온 성민들이 시신을 한 무덤에 모시고 1612년(숙종원년)에 남원역 뒤 동충동으로 이 건한 뒤, 1897년(고종22년) 사우가 철폐되어 단을 설치하고 춘추로 향사하여 옴	
만복사지	전라북도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고려 문종 때 지어진 만복사의 터로 기린산을 북쪽에 두고 남쪽으로 넓은 평야를 둔 아산에 위치하고 있음. 조선시대 속종 때에 간행된 [용성지]의 내용으로 보아 만복사에는 5층과 2층으로 된 불상을 모시는 법당이 있었고, 그 안에는 높이 약 10m의 불상이 있었으며, 대웅전을 비롯한 많은 건물들과 수백명의 승려들이 머무는 큰 절이었을 것으로 추정	
몽심재	남원의 몽심재는 조선 후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 상류 가정의 전형적인 가옥 형태를 잘 보전하고 있는 가옥으로 남원 호곡마을 안쪽에 위치한다. 몽심재는 갯들에서 흘러내린 물이 집 앞을 둥글게 감싸 안고 흐르는 지점에 있으며, 숙종 20년(1700)에 박동식이 산 아래의 따뜻한 터를 잡아 건립하였다고 전함	



구분	내용	이미지
교룡산성	백제시대 최초 축조된 것으로 알려지는 산성으로 남원시 산곡동 교룡산(518m)에 위치. 돌로 쌓은 이 산성은 총 둘레가 3,120m이며 고려말과 임진왜란 당시 왜와 전투가 벌어지기도 함.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제9호로 지정되었으며 산성 일대는 교룡산국민관광지로 남원시민들이 많이 찾음	
남원향교	1410년(태종10년)에 현유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하였으며 그 뒤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다가 복원되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정면 3칸, 측면2칸의 대성전과 동부(3칸)·서부(3칸)·명륜당(5칸)·동재(5칸)·서재(3칸)·신문(3칸)·고직사(6칸)·진강루(6칸)·외문(3칸) 등이 있음	
정령치	높이 1,172m로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과 산내면에 걸쳐 있는 지리산국립공원의 고개로 꼭대기에 위치한 정령치 휴게소에서 지리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음	
신계리 마애여래불	보물 제423호, 3.4m의 크기이며, 하나의 바위를 다듬고 조각하여 불상과 광배(불타의 몸에서 나온 빛의 표현)를 새김	
정령치 마애여래불	남원시 산내면 정령치로 지리산 개령암터 뒤편 절벽에 새겨진 마애불상군이며, 최대 4m크기의 마애불 12구가 거대절벽에 새겨져 있음. 고려시대 마애불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명문까지 새겨져 있다는 점에서 마애불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됨	
뱀사골 계곡	지리산 반야봉에서 반선까지 산의 북사면을 흘러내리는 길이 14km의 골짜기로 지리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여러 골짜기들 가운데서 가장 계곡미가 뛰어난 골짜기의 하나로 꼽힘	
구룡폭포	지리산 서쪽의 만복대(1,438m)에서 발원해 남원시 주천면으로 흘러드는 원천천 중간에 형성된 구룡계곡 최상류에 위치한 폭포로 원천천 상류에 있어 원천폭포라고도 불림	
구룡계곡	아홉 마리의 용이 노닐던 곳이라고 해서 구룡계곡으로 불리며, 남원시 주천면 호경마을과 고기마을을 흐른다. 계곡의 전체 길이가 4km정도 이며, 계곡을 따라 트래킹을 즐길 수 있도록 산책로가 조성됨	
백두대간생태 교육전시관	지리산의 상징성과 백두대간의 역사·생태·보존의 최적지인 남원에 조성되었으며, 한반도 지도 형상을 본 따 만든 곡선의 전시관 지붕외관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중심축인 백두대간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갖가지 내용물 전시	
백두대간휴양 시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높이인 해발 600~700미터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의 소나무 숲에서 분비되는 피톤치드가 풍부해 힐링과 휴양 그리고 삼림욕의 최적지로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트리하우스 조성	

자료 : 남원시 홈페이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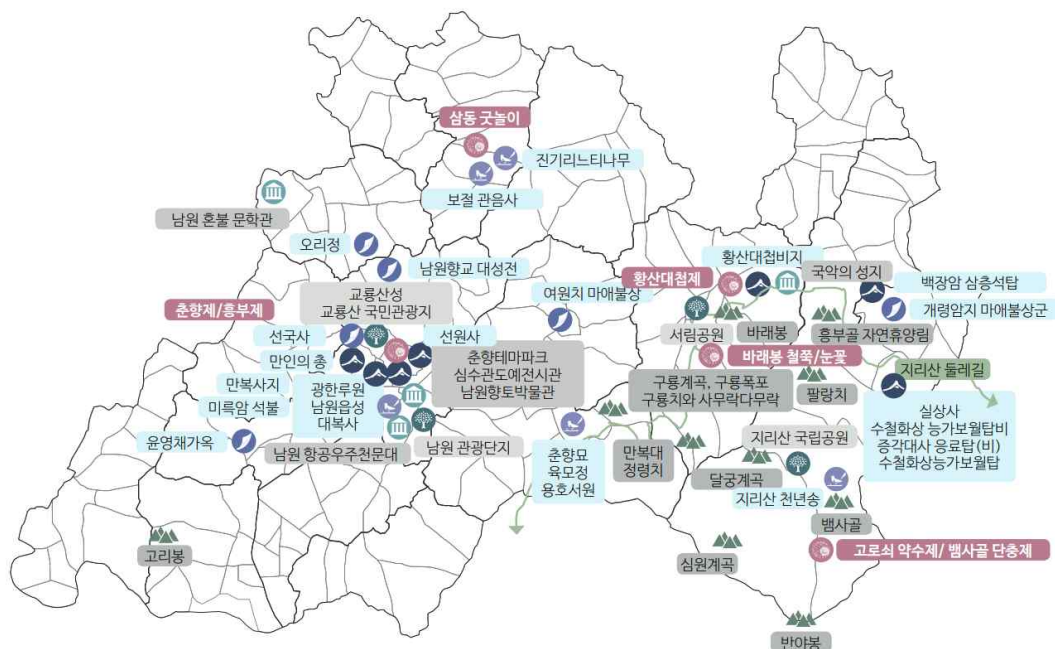
관광현황

3.1 자연·관광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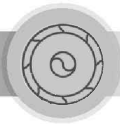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남원시의 총 40개 자연·관광자원 중 10개의 자연·관광자원이 시가지 지역 밀집

- 자연 및 관광자원은 지역의 고유성을 지닌 가치있는 자원으로 쾌적함과 유희, 휴식, 안정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관광의 동기와 의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상물
- 남원시의 시가지 지역에 관광자원이 밀집하여 분포되어 있고, 동남쪽에 위치한 지역인 산내면 지역은 지리산 자원으로 인하여 자연 자원들이 밀집하고 있는 모습
 - 일반적으로 자연·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할수록 지역의 경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상승
 - 천거동의 광한루원, 노암동의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어현동의 남원관광단지, 심수관 도예전시관, 춘향테마파크와 남원향토박물관, 산곡동의 교통산 국민관광지, 향교동의 만인의총, 천거동과 어현동에서 열리는 춘향제와 흥부제가 개최되고 있어 남원시의 총 40개의 자연·관광자원 중 10개의 자연·관광자원이 시가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남원시 자연·관광자원



자료 : 남원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남원시, 2016.02.



3.2 남원시 주요관광지

- '23년 기준 남원관광단지 47.1%, 지리산국립공원 20.1%, 광한루원 14.3% 순으로 높은 입장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자료 분석에 따르면 10년간 남원시 주요관광지점의 관광객 수는 아래표와 같이 지리산국립공원(29.3%), 남원관광단지(27.4%), 광한루원(24.2%)로 해당 세 지점이 다른 관광지점에 비하여 남원시를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음

[표 9] 남원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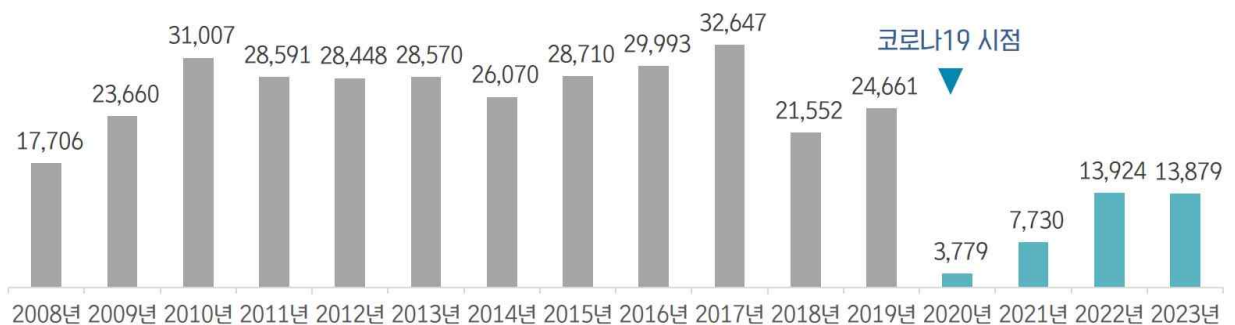
구분		2023년 입장객 현황		구분		10년간 입장객 현황 (2014년~2023년)	
		총 입장객 수	비율(%)			총 입장객 수	비율(%)
1위	남원관광단지	2,264,232	47.1%	1위	지리산국립공원	12,991,185	29.3%
2위	지리산국립공원	966,953	20.1%	2위	남원관광단지	12,144,010	27.4%
3위	광한루원	685,319	14.3%	3위	광한루원	10,758,300	24.2%
4위	드래곤레이크 C.C	128,375	2.7%	4위	지리산길(1~3코스)	2,156,634	4.9%
5위	지리산허브밸리	111,003	2.3%	5위	춘향테마파크	1,086,109	2.4%
6위	지리산길(1~3코스)	94,797	2.0%	6위	만인의총	767,897	1.7%
7위	남원상록골프장	93,831	2.0%	7위	교룡산국민관광지	688,157	1.6%
8위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73,275	1.5%	8위	혼불문학관	608,843	1.4%
9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60,248	1.3%	9위	남원상록골프장	573,336	1.3%
10위	춘향테마파크	59,119	1.2%	10위	지리산허브밸리	502,395	1.1%
11위	혼불문학관	52,935	1.1%	11위	실상사	438,439	1.0%
12위	교룡산국민관광지	52,689	1.1%	12위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351,076	0.8%
13위	안숙선명창의 여정	31,460	0.7%	13위	드래곤레이크 C.C	333,106	0.8%
14위	남원항공우주천문대	30,864	0.6%	14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317,222	0.7%
15위	요천생태습지공원	28,101	0.6%	15위	남원항공우주천문대	259,681	0.6%
16위	아담원	25,619	0.5%	16위	국악의성지	202,945	0.5%
17위	국악의성지	13,879	0.3%	17위	안숙선명창의 여정	73,010	0.2%
18위	남원고전소설문학관	13,196	0.3%	18위	요천생태습지공원	28,101	0.1%
19위	실상사	11,500	0.2%	19위	수지미술관	27,505	0.1%
20위	수지미술관	3,944	0.1%	20위	아담원	25,619	0.1%
21위	남원시 윗칠공예관	2,038	0.0%	21위	남원고전소설문학관	25,412	0.1%
22위	만인의총		0.0%	22위	남원시 윗칠공예관	8,389	0.0%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2024.04.

□ 국악의성지는 코로나19 이후 입장객 급감

- 국악의성지는 개관한 2008년 이후 3만명대까지 입장객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로나19 이후 대면접촉을 회피하는 상황으로 입장객 수 급격히 감소
- 현재 입장객 수는 예전의 50% 수준으로 절반이상 감소하며 회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 있어 보임

[그림 6] 국악의성지 입장객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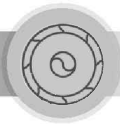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2024.04.

- 국악의 산실로, 판소리 다섯 마당 중 춘향가와 흥부가의 배경이었으며 동편제 판소리를 정형화한 가왕 송흥록의 고향이라는 남원의 역사성을 반영한 곳
- 국악의 보존, 전승,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산실

[그림 7] 국악의성지 사진





□ 광한루원

- 조선 시대 시인·묵객들이 4대 누각이라 부른 광한루, 부벽루, 축석루, 영남루 중 으뜸이라 꼽힌 누각이 있는 곳
- 경회루의 지원, 소쇄원과 더불어 근대 한국의 대표적인 정원이며 자연적 사고방식이라는 선비 사상을 간직하고 있음

[그림 8] 광한루원 사진



□ 혼불문학관

- 최명희 작가 및 저서 ‘혼불’의 문학정신을 널리 알리고 전승,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학관 소재지인 노봉마을은 소설 ‘혼불’의 배경인 매안마을로 인근에 종가, 노봉서원, 청호저수지, 새암바위, 호성암, 노적봉 마이애불상 등 소설 속에 등장하는 배경임

[그림 9] 혼불문학관 사진



□ 춘향테마파크

- 춘향전을 주제로 하여 조성한 관광지로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 KBS 드라마 ‘패걸춘향’의 촬영지 남원 관광지 내에 있으며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만남의 장, 맹약의 장, 영화세트장, 축제의 장 등 5개 마당으로 구성

[그림 10] 춘향테마파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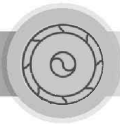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지리산허브밸리

- 국내 최대의 철쭉 군락지를 품은 지리산 바래봉 해발 600m 지역인 운봉읍 용산리 일대에 펼쳐진 허브밸리 2005년 정부에서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허브식물원, 오헤브정원, 허브토피아관, 자생식물수목원 등을 운영

[그림 11] 지리산허브밸리 사진





3.2 지역축제 현황

□ 바래봉 철쭉제, 춘향제 등 지역의 주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축제

- 남원시에는 각 지역단체가 주축이 되어 해당지역만의 특색을 갖춘 축제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
 -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주최측에 의한 단기적·일방적인 프로그램 전개로 구성되어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수준 높은 문화관광축제로 평가받는 축제는 부족

[표 10] 남원시 지역축제 현황

구분	주요 프로그램	개최시기 및 장소
고로쇠약수제	· 고로쇠 약수이고 달리기, 고로쇠 약수 마시기, 풍년기원 산신제, 지리산골 터울림, 노래자랑	· 시기 : 매년 3월초 · 장소 : 지리산뱀사골 반선관광주차장 · 주최 : 산내면, 산내면 번영회
바래봉 철쭉제	· 기념식, 체험행사, 공연행사, 경연대회, 제품전시판매, 토피어리존, 카페테리아 운영, 터울림 농악, 철쭉제례(산신제), 노래자랑 등	· 시기 : 매년 5월초 · 장소 : 지리산 바래봉 및 허브밸리 일원 · 주관 : 운봉읍
바래봉 눈꽃축제	· 눈썰매, 얼음썰매장 운영, 빙벽체험, 눈 조각, 눈사람 전시, 눈싸움대회, 바래봉 눈꽃 등반, 연날리기 대회 등	· 시기 : 12월-2월 · 장소 : 운봉읍 용산리 지리산허브밸리 일원 · 주관 : 애향회(겨울축제위원회), 운봉읍
뱀사골단풍제	· 단풍제례인 산신제와 등산대회, 산신령께 소원문쓰기, 판소리 체험 등	· 시기 : 매년 10월 말경 · 장소 : 지리산 국립공원 달궁 제3주차장 주변
삼동굿놀이	· 삼동마을 기세배, 당산제, 삼동서기, 지네밧기, 합굿(마당 밧기) 등	· 시기 : 매년 음력 7월 15일(백중절) ·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 · 주관 : 삼동굿 놀이 보존위원회
춘향제	· 춘향그네체험/대회(18세기 생활, 풍류상 재현/체험), 방자마당놀이 (야외공연/춘향전통체험/농경문화전통체험), 방자체험부스(도예, 짚공예, 종합공예, 천연염색, 판화, 토피어리, 허브홍보 체험마당), 요천전통체험(삼다리, 황포소금배체험), 남원막걸리체험, 춘향제속목장나들이 등	· 시기 : 매년 석가탄신일 전후 5일간 · 장소 : 광한루원 등 시내일원 · 주관 : 춘향제전위원회
황산대첩제	· 장사씨름대회, 윷놀이, 백일장대회, 노래자랑 등	· 시기 : 매년 8월 15일 · 장소 : 남원시 운봉읍 비전길(황산대첩비지) · 주관 : 운봉애향회
흥부제	· 고유제, 개막식(식전공연, 기념식, 축하공연), 경연/공연(흥부골 남원농악대회, 흥부골 농악개인놀이대회, 흥부놀이부 백일장 · 흥부상징 그림그리기 대회, 프린지페스티벌(슈퍼스타 HB), 흥부전 독후감 쓰기)	· 시기 : 매년 음력 9월 9일 · 장소 : 사랑의 광장 · 주최 : 흥부제전위원회

자료 : 남원시 홈페이지



3.3 동편제마을 현황

□ 국악의성지 인접지의 송홍록 생가 있는 전촌마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 국악의성지에서 500m 거리에 송홍록 생가와 황산대첩비가 있는 전촌마을에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조성된 시설 운영
 - 생활편의시설 : 동편제 휴(회의실 및 사무실), 수용인원 16명
 - 체험·식당시설 : 동편제마을 락, 수용인원 70명
 - 숙박시설 : 동편제마을 휴, 수용인원 36명
 - 음식시설 : 르방(제빵), 수용인원 20명

[그림 12] 동편제마을 휴락





□ 2021~2023년 방문객 감소에서 회복세

- RUCOS(농어촌공사 운영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시스템) 등록 기준

[표 11] 동편제마을 방문객('21~'23)

마을명	지정일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촌동편제마을	'11.11.02.	방문객	10,491	4,404	6,718

자료 : 남원시 농촌활력과

□ 마을여건 특색

[표 12] 동편제마을 여건 특색

마을여건 (특색)	역사	황산대첩비
	자연경관	지리산 덕두봉과 바래봉, 마을입구 소나무숲, 지리산둘레길
	관광자원	국악의성지, 황산대첩비지, 송홍록생가, 음식체험관 등
	독특한자랑거리	마을입구 소나무숲

자료 : 남원시 농촌활력과

□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체험의 최소 인원은 15인 이상
- 모든 체험은 다른 체험과 함께 묶어서 반나절/하루 코스로도 진행
- 산양 체험
 - 체험 종류: 산양유 아이스크림, 크림치즈, 피자, 동물빵 만들기 중 택1
 - 체험 내용: 산양과 교감체험 후 산양유를 이용하여 직접 음식 만들기
 - 소요 시간: 1시간 30분
 - 소요 예산: 18,000원
- ※ 산양유 크림치즈 만들기는 버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학생 이상부터 가능

○ 흑돈 소시지만들기 (동편제 락 체험동)

- 체험 내용: 돼지에 대해 알아보고 지리산 흑돈을 이용하여 소시지 만들기
- 소요 시간: 1시간 30분
- 소요 예산: 18,000원

○ 들깨 초콜릿 만들기 (동편제 락 체험동)

- 체험 내용: 들깨에 대해 알아보고 들깨를 넣은 초콜릿 만들기
- 소요 시간: 1시간
- 소요 예산: 14,000원

○ 양말목 재활용 체험 (동편제 락 체험동)

- 체험 내용: 버려지는 양말목을 활용하여 컵받침, 냄비받침, 텀블러 가방 등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 소요 시간: 1시간
- 소요 예산: 컵받침(4개) 14,000원 / 냄비받침(1개) 8,000원 / 텀블러 가방(1개) 14,000원

○ 동편제 마을 문화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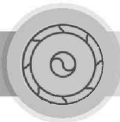
- 체험 내용: 황산대첩비지, 송흥록 생가를 방문하여 문화해설사님께 우리 역사와 문화 이야기 듣기
- 소요 시간: 30분~1시간
- 소요 예산: 무료

○ 동편제 판소리 배우기 (동편제 락 체험동)

- 체험 내용: 판소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동편제 판소리에 대해 배워보기
- 소요 시간: 1시간
- 소요 예산: 1회 60만원

○ 동편제 스콘 만들기 체험 (르방) - 미정

- 체험 내용: 고소한 견과류와 달달한 초코칩 넣은 스콘 만들기 체험
- 소요 시간: 1시간
- 소요 예산: 15,000원



4

교통현황

4.1 입지여건

□ 영호남의 연결거점이자 5개 국도를 통한 접근성 양호

- 남원시는 한반도의 서남부 내륙 전라남도과 경상남도에 접해있으며, 전라북도 동남부의 소백산맥 서사면의 넓은 분지에 위치
- 또한, 지리산 주 능선을 경계로 북동쪽에 경상남도 함양군, 남쪽은 섬진강을 경계로 전라남도 곡성, 서쪽은 임실군·순창군, 동남쪽에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남도 구례군이 위치
- 광역교통체계로서 순천-완주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5개의 국도(13, 17, 19, 21, 24호선), 전라선 철도가 통과하며, 호남과 영남의 연결 역할
- 남원시를 통과하는 5개의 국도는 남북으로는 4개 노선(13, 17, 19, 21호선), 동서축으로는 1개 노선(24호선)이 위치
- 철도는 전라선 철도 남원역을 통해 서울, 대전, 전주에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KTX의 경우, 전라도 철도 노선을 따라 하루 8회 운행

[그림 13] 남원시 입지 및 접근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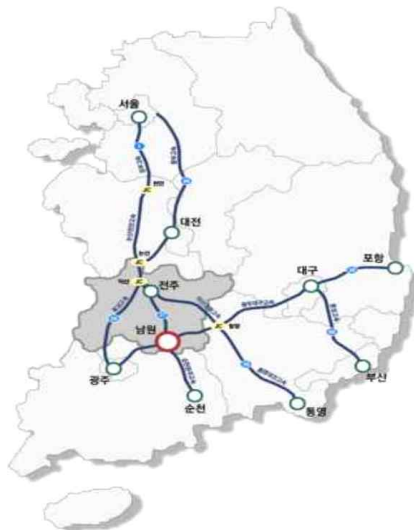
자료 : 남원시 농촌관광 발전계획, 남원시, 2021.02.

4.1 도로

□ 남원시 도로 총연장 520,668m

- 남원시의 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남원시의 도로는 총연장 520,668m
 - 광주-대구고속도로, 순천-완주 고속국도 등 고속국도 노선 59,420m, 국도 제13호선, 제17호선, 제19호선, 제21호선 등 일반국도 92,426m, 지방도 153,841m, 시군도 214,981m가 남원시를 지남
- 남원시의 도로 포장률은 2019년 기준 약 87.6%로 고속국도, 국도, 국가 지원지방도의 포장률은 100%나 남원시 관할 도로의 포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나 최근 개선되는 추세

[그림 14] 남원시 교통권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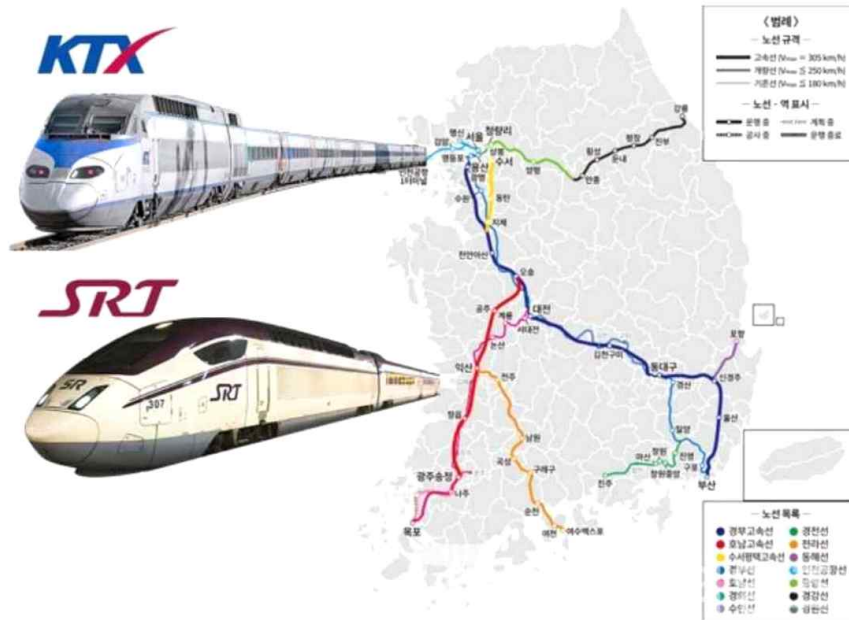
자료 : 남원 스마트관광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발전 연구,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2022.12.

4.2 철도

□ KTX 및 SRT 모두 남원역 정차

- 남원시에는 전라선 남원역 등 철도 교통이 발달해 있으며, 관내에는 남원역, 주생역, 용정역, 금지역의 4개 역이 설치되어 있음
 - 남원시의 관문인 남원역에는 KTX 열차를 비롯해 무궁화, 새마을호 등의 열차가 정차하며, KTX 열차를 이용할 경우 용산역에서 편도 약 2시간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음
- SRT의 경우, 전라선 운행 제한으로 남원으로 가는 여행객이 수서역 등을 통한 SRT선을 이용할 수 없어 일반적인 호남선에 비해 열차 운행 횟수가 현저히 적음

[그림 15] KTX 및 SRT 철도 노선표



자료 : 남원 스마트관광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발전 연구,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2022.12.

□ 2030년 달빛철도(광주~전북특별자치도~대구) 건설계획

-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광주~전남~전북특별자치도~경남까지 10개 광역·기초지자체를 지나는 동서횡단 노선으로 총 길이는 198.8km
- 판소리 동편제 태동지이자 춘향전과 흥부전이 탄생한 국악과 문학의 고장으로 '문화 콘텐츠 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기회

[그림 16] 달빛 고속철도 건설계획



자료 : 남원 스마트관광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발전 연구,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202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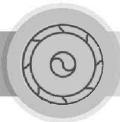
제2절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1 관련 계획 검토

1.1 상위 관련 계획

1.1.1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2021~2025) (국토교통부)

구 분	내 용
기본 목표	-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과 함께 성숙시대에 부합한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 - 어디서나 살기좋은 균형국토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
지역 발전	- 시도간 협력을 통한 광역협력권 산업 육성 - 에너지산업 : 광주-전북특별자치도 - 전기·자율차 : 전북특별자치도-광주-부산 - 프리미엄소비재 : 제주-충북-충남-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간 자율적인 연계·협력 촉진(관광분야) - 중부내륙권의 수려한 산악자원과 호수자원, 유서 깊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 서부내륙권의 우수한 관광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관광 성장동력 마련 -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시행 - 광역교통시설 (광역도로·철도, BRT, 환승시설)의 계획 수립
문화 관광	-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공간 창출 - 다양한 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적 재생을 통한 지역브랜드 육성 ▫ 문화적 도시재생(문화프로그램 및 공간 조성 지원) ▫ 글로벌 브랜드 구축 ▫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 지자체 특성에 따른 자율적 사업기획 추진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관광상품 ▫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통한 성과를 지역으로 환원(문화관광축제) ▫ 지방 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확대(테마여행 10선) ▫ 지역특화체험형 관광콘텐츠 육성(산업·생활관광, 명사 여행, 레저관광, 시티투어) - 지역 관광산업 혁신 지원 및 일자리 창출(관광산업 진흥기반) - 관광두레 조성 -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지원 -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발전 종합 - (전북특별자치도 연계협력권) 새만금권 해양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 체험학습 벨트 조성사업, 근대시민정신 동학·아리랑 체험학습 벨트조성사업 추진 - 재생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노후관광시설 재생, 관광콘텐츠 발굴) - 여가수요 및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노후관광지 재생, 노후 시설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발굴 ▫ 매년 공모를 통해 관광수요, 관광트렌드에 적합한 생태체험관광 콘텐츠 육성('21~'25년, 매년 5개소) ▫ 지역의 균형발전 유도, 중복투자 방지, 생태관광 브랜드 정립 등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단 운영, 중장기지원 체계 도입 ▫ 자생력 있는 관광상품 육성을 위해 지역주민, 지역기업 등 참여확대(선정지역 공모평가 시 가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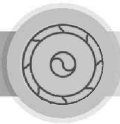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1.1.2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내 용
전북특별 자치도	- 글로벌 관광거점 구축 - 전주관광거점도시와 시군 연계 활성화 추진 및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 익산, 고창, 정읍 등 세계문화유산과 무주 태권도원 활용을 통해 국내·외 신규 수요
	-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태, 힐링 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재발견을 통해 관광자원의 명소화 실현 및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 관광상품콘텐츠의 개발
	- 지역특화 관광자원 육성 - 전라북도 1시군 대표관광지 및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을 통해 지역별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자원의 다양화 실현, 전북특별자치도다움 관광자원 육성 및 상품화 구성
	- 관광객 맞춤 상품개발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ICT 스마트관광 상품 개발 및 새로운 관광 홍보 마케팅 도입을 통해 맞춤형 관광상품의 개발 및 신규 수요를 창출
	- 고품격 수용태세 구축 - 코로나19 이후,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환경 조성 및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한 관광서비스 질의 개선과 고품격 수용태세 구축
시·도 개발방향	고품격 글로벌 관광매력도시 서울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한 스마트 관광도시 인천 일상을 선율하는 충남 발길이 머무는 행복관광 충남 모두가 행복한 나들이 관광행복도시 세종 소확행 결합 가치를 실현하는 중부권 허브 관광도시 대전 천년 역사문화여행 제철 1번지 전북 문화예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스마트 관광도시 광주 해양상대 관광중심 블루투어 전남 강원 세계인이 다시 찾는 생태활발 휴양 관광지역 경기 모두를 위한 관광 글로벌 경기 관광 충북 미래관광 재설계 융복합 관광거점 충북 경북 세계로 열린 문화상대 관광거점 대구 미래혁신형 글로벌 관광도시 대구 울산 어울림 상대관광도시 울산 부산 모두의 일상이 여행이 되는 도시 부산 경남 세계로 열린 문화상대 관광거점 제주 미래지향적인 청정자연유산관광 중심지역

1.1.3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구 분	내 용
K-컬처	- 한국관광의 프리미엄화 (고급 문화체험) 한옥 호텔, 고급 한식, 명인·명사와의 만남 등 한국 고유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하소성 있는 콘텐츠 발굴 - 문화시설과 연계한 다도체험·국악공연 감상과 같은 고궁, 박물관, 미술관 내 고급관광 특별문화체험 콘텐츠 개발 - 시장별 방한지출 의향이 높은 소비층 대상 고급관광 상품
규제혁신	마이스(MICE) 산업 유치전략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 (유치전략 다각화) 유사나(USANA) 기업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부터 하이브리드·소규모 마이스 행사까지 전방위적 유치를 위한 마이스 지원 제도 개편(지원기준 완화, 대규모 외국인 유치 국제회의 인센티브 등)
체류형 관광모델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콘텐츠 지원) 전통문화, 명사 등 지역의 고유한 스토리를 활용한 지역 관광상품 개발 - 지역 고택, 마을회관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이색 숙소 조성 지원 및 지역 숙박 여건 개선 (예) 전통문화(문경새재)와 고택을 결합한 한옥스테이 문경 '화수헌' - 방문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광지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 재방문을 유도하는 관광주민증 발급('22년 2개 → '27년 총 30개소)
독창적 매력 관광	- 지역 특화 광역관광개발로 '하루 더 쉬미 있는 여행환경' 조성 (소권역별 전략) [남서권] 남도문화 예술지대 구축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 지대 형성, [남동권] 해양문화 체험 휴양지대 형성
	- 관광거점도시 확대 - 지역의 문화콘텐츠 자산(음악, 예술, 해양레저, 스포츠)을 활용 한국 관광을 대표하는 관광매력 도시 육성을 위한 '관광거점도시' 추가 선정 추진('24년~) - 기존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5개 관광거점도시 '25년까지 사업 완료
	- 지역 주도형 지역관광개발 - 지역 주도적으로 관광콘텐츠 발굴 및 개발계획을 수립, 지역 특화 주제·관광자원, 마케팅 등 바탕으로 입체적 관광개발 추진(계획공모형 관광개발 : '19~'21년 15개 지역 선정, '24년 추가 지원 추진)
	노후 관광지 재생 - 관광트렌드 변화 및 시설 노후화로 방문객이 감소한 관광지의 시설·기능 개선을 통해 지역관광거점으로 재도약('24년~) - 전국 225개 관광지 중 일부·전부 준공하여 운영중인 곳은 188개, 이중 방문객이 감소중인 곳은 85개
문화유산 관광	문화유산 방문코스 개발·보급 - 이야기 발굴, 콘텐츠 개발 등 문화유산 방문코스(10개) 활성화 및 지자체·코레일·여행사 협업 관광상품화 - 왕가의 길, 천년정신의 길, 가야 문명의 길, 관동 풍류의 길, 백제고도의 길, 산사의 길 등 (예) '관동풍류 바다열차', '선교장 달빛 방문' : 해설사와 동행하며 전통예술 공연 관람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 문화유산과 미디어·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체험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관광자원으로 육성(매년 8~10개소) 조선헌문문화제 (왕릉음악회) 문화재야행 (인천개항장문화재야행)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수원 화성)



1.1.4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전북특별자치도)

구 분	내 용
공간 구조	• 동남권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 목표 : 건강·생태 유토피아 - 전략 : 헬스케어산업 특화, 山水 생태 거점
문화	• 공생과 혁신의 지역문화 -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과 생활권 중심의 기반 마련 - 예술창작 안전망 구축과 계층·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지역문화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과 확산
관광	•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체험 1번지 육성 -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매력도 향상 ▫ 가장 한국적인 '한(韓)문화 거점도시 전주'를 국내·관광객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전통문화 브랜드로 육성 ▫ 관광지 재생 '남원관광지 RE-PLUS 사업' 추진

1.1.5 제7차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2022~2026) (전북특별자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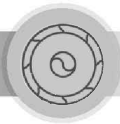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비전	비전 천년 역사·문화 여행체험1번지, 전북 목표 • 안전·안심 여행지 구축 • 체류관광 거점 도약 2027 • 내국인관광객수 9,800만 명 • 외국인 관광객수 200만 명 추진 전략 글로벌 관광거점구축 융복합 관광콘텐츠개발 지역특화 관광자원육성 관광객 맞춤형 상품개발 고품격 수용태세구축 추진 과제 • 전주관광거점도시 • 새만금 관광 활성화 • 세계유산관광육성 • 무주 태권도 세계화 • MICE 생태계 구축 • 생태관광자원개발 • 역사관광자원개발 • 레저스포츠자원개발 • 수변관광자원개발 • 유휴관광자원개발 • 시군 대표관광지 육성 • 광역연계관광육성 • 산림휴양관광육성 • 농산여촌관광육성 • 해양·섬 관광육성 • 스마트관광 체계 구축 • 실감 체험콘텐츠 계획 • 관광 홍보마케팅 계획 • 축제 및 이벤트 계획 • 관광상품 및 코스 계획 • 관광편의시설 개선 • 관광상품 품질 개선 • 관광서비스 질 개선 • 관광인적역량 강화 • 관광지 접근성 제고 미션 한곳 더, 하루 더, 한번 더 방문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태, 힐링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재발견을 통해 관광자원의 명소화 • 실현 및 고부가 관광상품 개발 • 타 산업과 관광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증대 및 관광객 유치 도모 • 추진과제 - 생태관광자원, 역사문화관광자원, 레저스포츠관광, 수변관광자원 개발, 유휴관광자원 개발

2

관련 법규 검토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	내용	검토결과
법 제56조	- 개발행위의 허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허가 제외
시행령 제53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 토지의 형질변경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법 제58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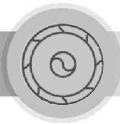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조항	내용	검토결과
시행령 제55조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 규모 충족 (황산 : 농림지역, 충족) (논 : 생산관리지역, 충족)
시행령 제71조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교육시설, 수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야영장 건축가능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다중생활시설, 휴게음식점 등 면적 조건 충족시 설치 가능
시행령 제71조 별표20	-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제과점 300제곱미터 초과 시 건축가능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다중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미만) 건축가능
시행령 제84조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준수
시행령 제85조	-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2 문화재보호법

조항	내용	검토결과
법 제13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문화재가 있는 동편제마을에 건설공사 영향 없음
시행령 제21조의2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마.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시행령 제21조의3	-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관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안내판 등 설치하는 허가 대상 제외

2.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조항	내용	검토결과
제5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각 호의 범위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를 초과하여 보존지역을 정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 2.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문화재가 있는 동편제마을에 건설공사 영향 없음



2.4 농지법

조항	내용	검토결과
법 제34조	•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를 매입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필요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	내용	검토결과
법 제17조	• 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 밖에는 묘지 설치 가능

2.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조항	내용	검토결과
법 제10조	•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설립과 운영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 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지방 박물관 추후 고려
법 제12조	•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현재 적용
법 제24조	• 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현재 적용

제3절 유사사례 분석

1 종교성지 사례

1.1 배론성지

□ 국내 최초의 신 학당 터이자 최양업 신부의 안식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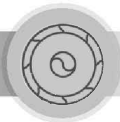
- 배론 성지는 우리나라 천주교의 성립과정에 있어 중요한 성지로서, 조선 순조 1년(1801)에 있었던 천주교 박해 때부터 지금까지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찾는 천주교 성지
- 배론(舟論)은 치악산 동남 기슭에 우뚝 솟아 있는 구학산(985m)과 백운산(1,087m)의 연봉이 둘러싼 험준한 계곡 양쪽의 산골 마을로 골짜기가 배 밑바닥처럼 생겼다고 하여 배론이라 불림
- 한국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 들어와 화전과 용기를 구워서 생계를 유지하며 신앙을 키워 나간 교우촌으로, 1801년 황사영 순교자가 머물며 백서를 썼고, 1855년에는 사제양성을 위한 성요셉신학교가 세워져 1866년까지 신학교육이 이루어짐
- 배론성지는 제천10경에 선정될 정도로 풍광이 빼어나고 자연경관과 잘 조화된 성지
 - 제천10경은 제천시시의 아름다운 풍광과 의미 깊은 문화유산 10개소에 빼어난 경치를 이르는 '경(景)'을 붙여 제천10경이라 함

□ 문화유적자원 토굴, 신학교, 묘 조성

- 유적으로는 조선 후기 천주교도 황사영이 머무르며 '백서'를 썼던 토굴과 성 요셉 신학교, 최양업 신부의 묘가 있음

[표 13] 배론성지 사례

구분	내용	비고
소재지	• 충북 제천시 봉양읍 배론 성지길 296	
관리자	• 재단법인천주교원주교구	
기타	• 시대 : 조선 철종(1855) • 등록 : 충청북도 기념물 제118호(2001.03.02.)	



구분	내용	비고
황사영 백서 토굴	- 현재 백서의 원본은 로마 교황청 바티칸 민속 박물관에 보관 -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황사영은 8개월 동안 배론 마을 오기 굴을 가장한 토굴 속에 머물며 중국 북경교구장 구베아 주교에게 편지(백서)를 작성 - 이 백서는 첫째, 인사말(1-5행), 둘째, 신유박해의 진행과정(6-32행), 셋째, 순교자 열전(32-90행), 넷째, 교회 재건과 신앙 자유를 얻기 위한 5가지 방안(90-118행), 다섯째, 관면요청과 맺음말(119-122행)로 구성	
성 요셉 신 학당	- 한국 교회 최초의 신학교임과 동시에 조선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었다는 데에 의의 - 성 요셉 신 학당은 1855년 프랑스 선교사 메스트로 신부에 의해 설립. 이때 교우촌 회장 장주기 요셉(1803-1866)이 자신의 집을 신 학당으로 봉헌 - 1856년부터 푸르티에 신부(1856-1866)가 교장으로, 프티니콜라 신부(1862-1866)가 교수로 재직, 신학 교육에 매진 - 1866년 3월 2일 서울에서 남종삼 요한을 체포하려 온 포졸들이 신 학교를 급습하여 두 신부를 체포, 3월 11일 서울 새남터에서 순교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묘	- 우리나라 에서 두 번째로 사제가 된 최양업 토마스(1821-1861) 신부의 묘 - 최양업 신부는 1836년 12월 김대건, 최방제와 함께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중국 마카오로 유학을 가서 신학교육을 받았고, 1849년 4월 15일 중국 상해에서 사제품을 받았음 - 1861년 6월 15일 경상도 전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던 중 과로로 문경에서 선종, 그해 11월경 교구장 베르뇌 주교에 의해 당시 신학교가 있었던 배론 성지에 묻힘	
최양업 토마스 신부 기념 성당	- 토마스 신부를 기념하는 현대식 성당 조성 - 천주교 예배 통해 지속관리 운영	
무료 셔틀버스	- 제천시 관광지원 - 배론성지 순례 방문자에게 무료 셔틀버스 운영	

□ 관광테마와 엮은 프로그램 운영

- 제천관광 공유코스 성지순례 특별프로그램 운영 및 기차 순례 프로그램 등 단순 도보순례 뿐 아니라 관광테마와 엮은 프로그램 운영
- 천주교 성지순례가 철도청과 연계된 열차 순례 프로그램으로 개발 되어 국가 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거나 열차 순례자들이 지방도시 투어(특산물 구입 등)로 인해 지방 소도시의 소득 증대되는 효과 기대

1.2 치명자산성지

□ 동정부부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 순교자의 안식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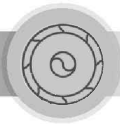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치명자산성지는 조선시대 호남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유항검과 그의 가족 6명과 순교자들의 묘소 등이 있는 천주교 성지
- 이 중에는 다블뤼 주교가 ‘한국 순교자들의 보석’이라고 칭송한 동정부부 순교자 이순이와 유중철도 포함. 순교자 묘 밑에는 1994년 건립된 기념성당이 자리하고 있으며, 성직자 묘지와 십자가의 길이 잘 조성되어 있음
- 치명자(致命者)는 ‘목숨을 바친 자’라는 뜻으로, 승암산과 중바위로 불리던 이곳에 ‘치명자’라는 말이 붙여진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가톨릭신자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음
- 또한 매년 5월, 순교자 현양 문화 축제인 ‘요안루갈다제’를 개최
 - 요안루갈다제는 동정 부부 순교 복자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의 신앙과 사랑을 본받기 위한 기념제전으로, 2001년 시작돼 매년 이어지고 있음
 - 매년 새로운 주제에 따라 각종 강연이나 세미나 또는 순교 체험 등의 영성 프로그램과 함께 음악회,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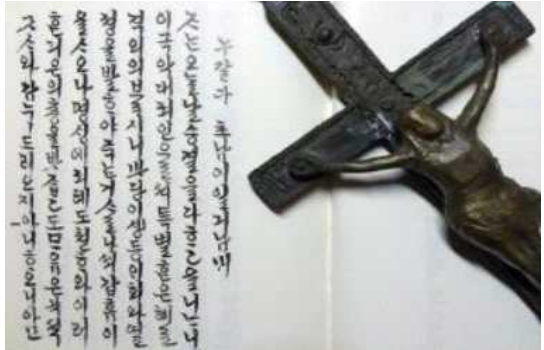
□ 문화유적자원 후백제 견훤고성이 있던 승암산(치명자산) 자리

- 승암산(치명자산)은 후백제 견훤고성이 있던 자리로 천년고도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동고사, 단군성전, 성황사 등 다양한 종교들이 자리한 전주 역사문화자원의 집적지로 평가

[표 14] 치명자산성지지 사례

구분	내용	비고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바람쐼는길 92	
관리자	• 재단법인천주교수원교구	
기타	• 시대 : 근대~개항기(1864~1910) • 등록 :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제68호	
순교복자 가족묘역	• 유항검과 가족 순교자 7인의 합장묘 - 묘역 위에는 갯세마니의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연기암의 '예수마리아 바위'와 1949년 7월 전통성당 자모회에서 봉헌한 '십자가 기념비'가 있음 - 이 합장묘는 1984년 전라북도기념물 68호 '천주교순교자묘'로 지정	



구분	내용	비고
산상기념성당	• 순교복자 가족묘역 바로 아래에 위치 - 전주교구는 교구설정 50주년을 계기로 치명자산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1994년 성당 신축공사를 완료 - 동정부부 순교자 유종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가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고 동정과 순교의 상징인 쌍백합 등과 함께 성당입구 양쪽에는 이순이 루갈다의 옥중편지 중 일부가 새겨져 있음	
십자가의 길, 성직자 묘지	• 순교복자 묘역과 기념성당으로 올라가는 성지입구 - 순교복자 묘역과 기념성당으로 올라가는 성지입구에는 예수성심상이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피에타 상에서 왼쪽으로는 바위 벼랑길 200m를 등정하며 기도하는 십자가 길과 오른쪽에는 성직자 묘지가 있음 - 성직자 묘지는 전주교구 사제들의 영원한 안식처이며 교구설정 50주년인 1987년에 조성	
이순이 루갈다 옥중편지 필사본	 	

□ 지역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

- 성지순례를 하며 한국(전주) 전통문화도 체험할 수 있어 외국인에게 매력적
- 치명자산 세계평화의 전당은 종교적 활동 공간뿐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의 숙소와 교육, 문화 활동의 거점으로도 활용, 종교뿐 아니라 일반 대중문화 관광지로 확장
- 요안루갈다제(기념제전)를 통해 매년 새로운 주제에 따라 각종 강연이나 세미나 또는 음악회,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 종교를 넘어 대중화 시도

2 추모묘역 사례

2.1 국립 5·18 민주묘지

□ 민주화운동 성지로서 지역 정체성 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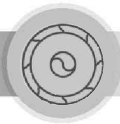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국립 5·18민주묘지는 옛 전남도청 등에서 발생한 열흘간의 역사를 민중항쟁으로 정의할 때, 그 이후 망월 묘지에서 신 묘역 건립, 국립묘지 승격, 국립묘지법 제정까지 약 15년 동안 지속해온 민주화운동의 성지로서 이를 지지하고 동참해온 광주시민과 전라남북도민의 지역 정체성을 체화
-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주검은 처참하게 훼손된 주검을 손수레에 싣고 직접 묻었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5월 27일 도청 함락 때 희생된 분들은 청소차에 실려와 현재 망월묘지공원 제3묘원에 그대로 묻힌 이곳은 ‘민주의 성지’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묘지성역화 사업을 추진

□ 성역공간, 역사·교육공간, 사무 및 휴게공간 구성

- 주요시설로는 묘역인 성역공간, 역사·교육공간, 사무 및 휴게공간으로 나누어짐
 - 성역공간은 묘역, 유영봉안소, 참배광장으로 구분
 - 역사·교육공간은 역사광장, 역사의문(어린이학습체험장), 송모루, 추모관 등이 있음
 - 사무·휴게공간은 오월관, 민주관, 민주의 문(접견실) 등으로 구분
- 국립 5·18 민주묘지의 규모는 166,770㎡(50,839평)이며, 공부상 부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
 - 조경시설(민주동산, 수변휴게공간, 화계, 잔디광장, 조경휴게소) 13,213㎡
 - 교양시설(야외공연장, 전시벽, 전시광장, 추념의 문, 참배단, 유영봉안소, 추모관) 16,311㎡
 - 편의시설(송모루, 휴게소, 역사의문, 주차장, 화장실) 15,321㎡, 관리사무소 3,298㎡
 - 묘역광장 9,350㎡, 도로광장 31,728㎡, 기타 녹지 78,547㎡

[표 15] 국립 5·18 민주묘지 사례

구분	내용	비고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200	
관리자	• 중앙정부	
기타	• 조성 : 1997년 • 규모 : 166,770㎡	



구분	내용	비고
민주의 문	- 오월 영령들을 만나기 위해 들어서는 문으로 양쪽으로 참배대기실 및 안내실(165㎡) 있음 - 의전, 안내시설 확보를 통해 유가족과 방문객에게 안락한 환경 및 참배 편의를 제공	
유영봉안소	- 영정과 위패를 모신 곳 - 우리나라 전통 묘 형태인 고인돌을 형상화로 건축 - 내부 중앙은 희생자 영정, 좌측은 부상을 입고 사후 돌아가신 분들의 영정, 우측은 행방불명된 분들의 영정을 모심	
7개 역사마당 부조벽	- 민족 불굴의 저항정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들을 시대순으로 형상화 - 역사마당에는 7개 부조벽으로 임진왜란 의병부터 동학농민전쟁,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통일마당 등 대표적인 사건들을 시대순으로 형상화	
추모관 전시실	- 전시주제는 기억을 위한 추모, 참여를 통한 정신의 계승 - 제1전시실 : 추모의 방 - 제2전시실 : 진실의 방	
발주방식	설계공모	
이용행태	휴게, 참배	
조성시설	   	

2.2 국립 4·19 민주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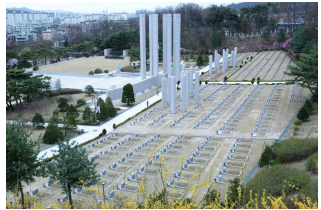
□ 성역화사업 완료 후 국가보훈처리 이전하여 국립민주묘지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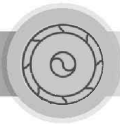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1960년 사건발생 이후 1961년 2월 국무회의에서 공원묘지 설립결의를 하여 1962년 기공식과 1963년 9월 묘지 준공 및 기념탑 제막을 하였다. 1993~1995년에 걸쳐 성역화사업을 완료하여 서울시에서 국가보훈처로 관리 이전하여 현재 국립민주묘지로 운영
- 국립 4.19 민주묘지는 기존의 전통능원의 공간구성원리에 입각하여 조성된 묘역을 성역화사업에 의해 재조성한 추모공원
- 입지적으로 도시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강한 중심축선을 따라 진입공간, 참배공간, 묘역공간, 유영공간을 배치하고, 좌우 정형적 대칭으로 조성하였으며, 수직적으로 위엄성을 나타내는 위령탑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상징적 기념성을 강조
- 이에 따라 넓은 이용공간을 공원처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이용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념일, 행사일, 교육적 체험을 위한 방문도 많이 이루어고 있음

□ 성역공간, 이용공간, 산림공간으로 구성

- 주요시설로는 성역공간, 이용공간, 산림공간으로 나누어짐
 - 성역공간(29,405㎡)은 묘역(6,612㎡), 유영봉안소(331㎡)으로 구성
 - 이용공간(7,845㎡)은 다목적광장(3,306㎡), 연못(1,676㎡), 주차장(2,863㎡)이 있으며, 기념관(1,752㎡)은 성역공간으로 분류가 되나 부지가 협소하여 이용공간에 배치
 - 산림공간(59,587㎡)은 잔디밭(27,200㎡), 상징조형물 기념탑 외 11종이 있음

[표 16] 국립 4·19 민주묘지 사례

구분	내용	비고
소재지	•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로 17	
관리자	• 보훈처	
기타	• 조성 : 1995년 • 규모 : 96,837㎡ • 조성비용 : 150억원(국70, 지80)	



구분	내용	비고
공간분석	- 전체적으로 상징적 기념성 강조 - 중심축선을 따라 진입공간, 참배공간, 묘역공간, 유영공간을 배치 - 시설 : 묘역, 유영봉안소, 기념관, 기념탑, 잔디광장, 산책로 등 - 좌우 정형적 대칭으로 조성 - 수직적으로 위엄성을 나타내는 위령탑이 중심에 자리	
이용 친근감	- 공원화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넓은 이용공간을 공원처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이용 많음 - 기념일, 행사일, 교육적 체험을 위한 방문	
발주방식	설계공모	
이용행태	휴게, 참배	
조성시설		

3

추모공원 사례

3.1 5·18 기념공원

□ 시민에게 5·18 추모와 기념공간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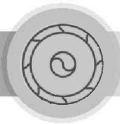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5·18 기념공원은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공원
 - 5·18 민주화운동이 전개될 당시 군사시설이었던 상무대가 이전하자 정부가 공원 부지를 제공
 - 이에 따라 1998년 광주광역시는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과 값진 교훈을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208,000㎡ 규모로 5·18 기념공원을 조성
- 전체면적의 약 45%인 92,099㎡가 녹지로 조성되어 전통 연못과 다양한 수목들이 자리하고 있어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널리 활용
- 광주광역시 산하단체인 5·18기념문화센터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5·18기념문화관 내에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구속 부상자회의 3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에 의해 재단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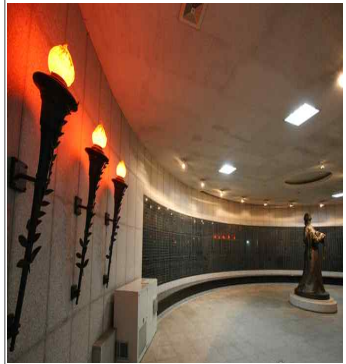
□ 광장, 조경시설, 관시시설, 건축물로 구성

- 주요시설로는 광장, 조경시설, 관리시설, 건축물로 나누어짐
 - 광장은 진입광장 2개소와 대동광장(2,700㎡), 전통광장(5,000㎡)으로 구성
 - 조경시설은 휴게공간 및 녹지(26,300㎡), 잔디광장(6,200㎡), 연못2개소(2,500㎡), 어린이놀이터(2,800㎡), 자연수림대로 구성
 - 관리시설은 산책로(3,200㎡), 주차장 154면, 공원도로 및 기타시설(34,495㎡)로 이루어짐
 - 건축물은 9종 12동으로 5.18기념문화관, 오월루, 추모승화공간, 안내실, 화장실, 대성전, 단성전, 팔각정, 계류정으로 구성

[표 17] 5·18 기념공원

구분	내용	비고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61	
관리자	• (재)5.18기념재단	
기타	• 조성 : 1980년 • 규모 : 204,985㎡ • 조성비용 : 공원 41억원(시), 문화관 162억원(국)	



구분	내용	비고
조형물	• 공원 내 조형물 종류 - 지상인물상(브론즈, H4.0m×L4.4m×W4.0m), - 스테인레스조형물(0.3m~8m, 847개), - 관부조(마천석, H8.2m×L14.0m×W5.0m), - 지하인물상(브론즈, H42.5m×L1.5m×W41.5m), - 지하부조(마천석, H2.0m×L14.0m), - 지하5.18참여자명단(오석, H2.2m×L22.0m), - 햇불6기(청동, H1.5m×L0.4m×W0.4m), - 제기(청동, H1.0m×L1.6m×W1.6m), - 월계수(청동, H1.2m×W0.75m), - 벤취 겸 조명등 17개(화강석, H0.5m×L0.4m×W0.4m)	
기념문화관	• 기념문화관은 5.18기념공원 내 위치 - 부지면적은 10,421.51㎡ -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구성 - 연면적은 10,581.86㎡ - 사업비는 국비 162억원 - 착공 1998년 10월, 2001년 4월 준공	
발주방식	• 일반입찰	
이용행태	• 휴게, 산책, 관람, 참배	
조성시설	   	

3.2 제주 4·3 평화공원

□ 고난의 역사에서 희생당한 4·3 희생자 위령 및 추념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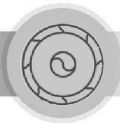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조성된 4·3 평화공원은 제주4·3사건 발발 이후 50여 년간 해원 되지 못한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역사에서 희생당한 4·3 희생자 위령·추념의 공간
- 복합문화공간으로서 4·3평화공원은 비극의 역사를 문화적으로 재생산하는 창조적 공간으로 도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임.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4·3의 교훈을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승화·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이용공간, 성역공간으로 구성

- 중심축을 따라 이용공간(진입광장, 기념공간)과 성역공간(참배공간, 유영공간)으로 공간구분 조성
 - 주요시설로는 위령제단과 위패봉안실(529.95㎡), 각명비(232m), 행방불명 개인표석(3,884기), 위령탑, 연못이 조성되어져 있으며 건축물로는 평화교육센터(1,746.6㎡), 사료관(6,206㎡), 봉안관(429㎡), 관리사무실(132.3㎡) 조성

[표 18] 제주 4·3 평화공원

구분	내용	비고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 (봉개동)	
관리자	• 제주4.3평화재단(위탁운영)	
기타	• 조성 : 2008년 • 규모 : 395,380㎡ • 조성비용 : 750억원(국735, 지15)	
조형물	• 현 위치 근처에서 희생된 두 모녀의 비극과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아기를 껴안은 모성애를 표현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음	
위령광장	• 연중 4·3 희생자에 대한 참배를 진행하는 경건한 공간 • 매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봉행되는 광장 • 오석의 아치형으로 영원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도민화합, 민주와 인권과 안락의 공간을 상징하며 참배공간 제	
위패봉안실	• 방문객들이 희생자의 억울한 넋을 위로하기 위한 경건한 추념의 공간 • 희생자 14,533명 중 14,117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공간	



구분	내용	비고
봉안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발굴된 유해를 봉안하는 장소 - 발굴기간 동안 유해 408구가 발굴·수습, 유해 408구에 대해서는 유전자 감식이 이루어져 133구의 유해에 대해 신원확인 완료. 봉안관에 380기 안치	
각명비	제주 4·3사건의 희생자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사망일시와 장소 등을 기록한 공간, 총길이 29.5m, 기록자 수 14,095명으로, 돌에 새겨 영원히 기억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공간	
조형물(귀천)	제주 4·3사건의 희생자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사망일시와 장소 등을 기록한 공간, 총길이 29.5m, 기록자 수 14,095명으로, 돌에 새겨 영원히 기억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공간	
위령탑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제주도민의 화합과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며 평화의지의 영원함과 완전함을 추구하는 기원공간	
발주방식	설계공모	
이용행태	관람, 추모	
조성시설	   	

4

전시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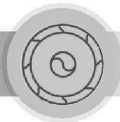
4.1 국립국악원 전시관

□ 국악 향유 기회 확대, 국악체감 및 국악 가치 확산

- 국민이 체감하는 전통예술 가치 제고
 - 국민 행복을 위한 국악 공연 확대, 고품질 국악공연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참여형 관객 개발 및 서비스 개선
- 누구나 누리는 국악, 행복한 국민
 - 생활 속 맞춤형 콘텐츠로 국악누림 확대, 생애주기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국악교육 실현, 국악동행으로 문화취약계층 사각지대 문화 양극화 해소
- 국악의 활용 증대로 다양한 지식서비스 구현
 - 국악학 및 정책 연구 기반 강화, 학술교류 확대, 현장 중심의 국악기 연구개발 및 국악 분야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국악박물관 대외 전시·체험 확대 및 국악 자료 서비스 다각화
- 국악으로 K-컬처 해외진출 역량 강화
 - K-컬처의 매력 확산, K-컬처-해외 국악애호가 저변 확대를 통한 국악 한류 확산, 한국음악 전시를 통한 K-컬처 홍보 및 체험제공

□ 공연, 전시, 연수 부문으로 구성

- 주요시설로는 연습사무동, 공연장, 박물관, 연수관 건축물로 나누어짐
 - 대지 39,775㎡, 연면적 32,532㎡
 - 지하1층 지상4층의 연습사무동과 두 개의 실내 공연장(예약당·우면당), 한 개의 야외공연장(별맞이터), 그리고 국악박물관과 국악연수관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예약당은 1996년에 건립한 734석 규모의 국악 전용 대극장
 - 우면당은 1988년에 건립한 348석 규모의 소극장
 - 연희마당은 2,000석 규모의 자연친화적 야외공연장
 - 국악박물관은 1995년에 건립, 입체영상실, 국악체험실, 고문헌실, 명인실, 악기전시실, 국악사실 등으로 구성



[표 19] 국립국악원 전시관

구분	내용	비고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관리자	•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 조성 : 1951년 • 규모 : 39,775㎡ • 전시 : 국악박물관 건물동																			
국악박물관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국악틀</td><td>13.1채널(14개 스피커), 4K UHD 고화질 영상</td></tr><tr><td>소리품</td><td>다듬이질 소리, 자연소리, 맷돌소리, 장작소리 등 음악재료 소리실</td></tr><tr><td>악기실</td><td>관악기, 현악기, 타악기</td></tr><tr><td>문헌실</td><td>악보, 무보, 악서, 도병 등 기록물</td></tr><tr><td>아카이브실</td><td>전통음악·춤·연희 기록한 음향·동영상 자료 등 39만여 점 소장</td></tr><tr><td>명인실</td><td>1940년대 이전 출생자이면서 유파를 남기거나 일가를 이룬 예인</td></tr><tr><td>체험실</td><td>악기 연주, 터치오감소리, 소리놀이터</td></tr><tr><td>기획전시</td><td>비정기적 기획전시</td></tr></table>	구분	내용	국악틀	13.1채널(14개 스피커), 4K UHD 고화질 영상	소리품	다듬이질 소리, 자연소리, 맷돌소리, 장작소리 등 음악재료 소리실	악기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문헌실	악보, 무보, 악서, 도병 등 기록물	아카이브실	전통음악·춤·연희 기록한 음향·동영상 자료 등 39만여 점 소장	명인실	1940년대 이전 출생자이면서 유파를 남기거나 일가를 이룬 예인	체험실	악기 연주, 터치오감소리, 소리놀이터	기획전시	비정기적 기획전시	
	구분	내용																		
	국악틀	13.1채널(14개 스피커), 4K UHD 고화질 영상																		
	소리품	다듬이질 소리, 자연소리, 맷돌소리, 장작소리 등 음악재료 소리실																		
	악기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문헌실	악보, 무보, 악서, 도병 등 기록물																		
	아카이브실	전통음악·춤·연희 기록한 음향·동영상 자료 등 39만여 점 소장																		
	명인실	1940년대 이전 출생자이면서 유파를 남기거나 일가를 이룬 예인																		
	체험실	악기 연주, 터치오감소리, 소리놀이터																		
기획전시	비정기적 기획전시																			
이용행태	• 상설전시, 기획전시, 아카이브, 체험실																			
조성시설																				
																				

4.2 한국대중음악박물관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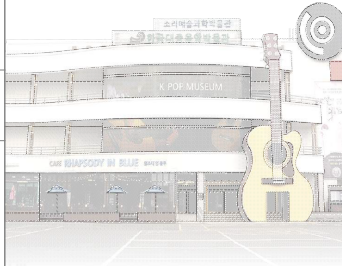
□ 국내 대중음악의 소개 및 음악향유를 목적으로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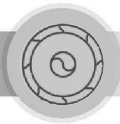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시대별 방대하고 다양한 대중음악 자료 전시
 - 1910년대부터 최근까지 전쟁과 평화를 겪어온 우리 역사를 그대로 반영한 대중음악의 모든 것을 전시, 시대별 유행했던 음악 디스크, 유명 가수의 옷과 악기, 생활소품까지 10년 단위로 일목요연하게 소개
 - 2층에는 남진, 이시스터즈, 이금희, 김상희, 현미 등 가수들이 무대에서 입었던 의상과 한대수, 윤연선, 김목경, 김두수, 이장혁 등이 기증한 기타 등이 전시
 - 3층에는 세계 최고의 오디오와 스피커 등이 전시
- 현재 진행 중인 대중음악 역사 관련 자료의 활발한 기증활동을 통해 자료 수집 용이 및 수요자와 소비자의 경계 탈피
 - 한국대중음악박물관 유충희관장이 대중음악의 태동기인 대한제국 시대부터 2000년대의 K-pop 까지 대중음악관련유물을 30년 가까이 수집했으며 소장품은 약 7만여 점에 달함
 - 주요 소장자료로는 텔레비전, 가사지, 악보, 음악 교육책, 트로피, 축음기, 오르골, 빈티지 스피커, 오디오 시스템 등으로 최초와 희귀 아이템으로 구성

□ 교육실, 전시관, 음악감상실 부문으로 구성

- 주요시설로는 휴게실, 교육실, 전시관, 음악감상실로 나누어짐
 - 건축면적 : 연면적 5,200㎡ 지상 3층, 지하 1층
 - 기획전시실, 특별전시관, 대중음악100년사관, 음악감상실, 영화OST 전시관, 어린이만화주제관, 가족노래방, 카페, 사무실 등
 - 개관 이후 30여만 명 관람

[표 20] 한국대중음악박물관 전시관

구분	내용	비고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9 한국대중음악박물관	
관리자	• (사)경상북도박물관협의회	
기타	• 조성 : 2015년 • 규모 : 연면적 5,200㎡ • 기능 : 대중음악 전시 관람	



구분	내용		비고
시설구성	구분	내용	
	1층	기획전시실, 가족노래방, 어린이만화주제관, 교육실	
	지상1층	카페, 랩소디인블루(문화상품점), 인포메이션 사무실, 음악감상실(강당)	
	지상2층	대중음악100년사관, 특별전시관, 영화 OST전시관	
	지상3층	소리예술과학 100년사관, 유종희 뮤직스페이스, 오르골 전시관, 음악감상실	
이용행태	• 상설전시, 특별전시, 기획전시		
조성시설			
			

5

체험촌 사례

5.1 영동국악 체험촌

□ 난계 박연선생의 국악체험, 체류형 국악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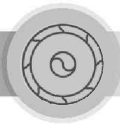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전통국악의 대중화 및 자원화
 - 전국 난계국악경연대회 추진 및 우수 국악인 발굴
 - 난계국악단 공연 활성화
 - 국악강습을 통한 국악인구 저변 확대 : 난계민속풍물단 지도자 양성, 읍면 풍물 경연대회
- 국악기반시설 확충 및 보존관리
 - 국악 팔부 테마길 및 고당 수변공원 조성
 - 국악 특화거리 조성
 - 국악체험촌,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난계국악박물관, 난계국악당, 난계국악기제작촌, 난계사, 난계묘소, 난계생가 운영 관리

□ 공연, 학습체험, 숙박실 부문으로 구성

-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단체체험실, 숙박실 건축물로 나누어짐
 - 대지 75,956㎡, 건축물 연면적 8,644㎡
 - 3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우리소리관과 국악기 연주 및 명상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소리창조관, 숙박이 가능한 국악누리관과 세계 최대의 북 “천고”가 안치 되어 있는 천고각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우리소리관(공연장 304석, 연습실 12실, 세미나실 2실), 국악누리관(식당 200석, 객실 43실), 소리창조관(100명 체험실 2실, 50명 체험실 2실, 강습실 4실), 천고각으로 구성

[표 21] 영동국악체험촌

구분	내용	비고
소재지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1길 33 일원	
관리자	• 영동군청	
기타	• 조성 : 2015년 • 규모 : 부지 75,956㎡ 건축물 8,644㎡ • 주차 : 89대	



구분	내용		비고
시설현황	구분	내용	
	우리소리관	공연장(304석) 국악단 연습실(12실) 사무실 세미나실(2실)	
	국악누리관	식당(200석) 객실(가족실 2실, 6인실 26실, 2인실 15실)	
	소리창조관	단체체험실(100명 규모 2실, 50명 규모 2실) 전문가 강습실(일반 4실, 숙박겸용 6실)	
	천고각	팔작지붕 형태(기네스 월드 레코즈 등재) 세계 최대 북 '천고' 안치	
이용행태	• 공연장, 체험실, 숙박실		
조성시설			
			

5.2 정선아라리촌

□ 연암 박지원 이야기 전시, 강원도 전통가옥 체험

○ 정선군 공립 민속촌이자 전시관

- 2004년 개관하여 강원도 지역의 전통 가옥과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의 이야기를 전시하고 있으며, 조양강을 끼고있는 정선군 공립 아리랑박물관
- 강원도 산악 지대 및 화전민들이 거주하였던 귀틀집, 저릅집, 돌집, 너와집 등이 전시되어있으며 연암 박지원이 쓴 양반전의 이야기와 조선왕조 당시 양반가 가옥이 있음
- 조선시대 강원도 정선의 마을 모습을 재현하여 직접 살아보고, 둘러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장 기능 수행

○ 아리샘터 거점 공간 조성

- 2019년 정선아라리촌 내 조성된 시설로서, 주민 커뮤니티, 동호회, 연습, 발표, 교류 등 지역주민이 생활문화의 주체가 되는 문화적 가치를 지역사회로 연결하는 생활문화 형성과 활성화 거점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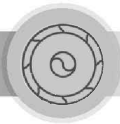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휴게, 체험, 전시, 전수교육 부문으로 구성

○ 주요시설로는 카페 및 거리, 농기구 공방·방아·물레, 학당, 전시실, 다목적실 등 건축물로 나누어짐

- 대지 10,503㎡ (아리샘터 연면적 757.2㎡)
- 너와집, 거릅집, 돌집, 귀틀집, 굴피집, 통방아, 물레방아, 연자방아, 양반가 가옥, 연암 박지원 양반전 내용 재현 조각상, 아리랑박물관 등으로 조성
- 조선 실학자 겸 소설가인 연암 박지원의 한문소설인 '양반전'의 주요 장면들을 동상으로 재현해 놓기도 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 정선 대표 민요 '정선아리랑' 노래를 학당 형태의 체험교육의 장 운영
-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이 있는 곳에서는 양반증서에 들어갈 이름을 한자 또는 한글로 서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양반증서를 만들어 주며 관람이 끝날 때 양반증서를 무료로 찾아갈 수 있음

[표 22] 정선아라리촌

구분	내용	비고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37	
관리자	•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기타	• 조성 : 2004년 • 규모 : 10,503㎡ • 사업비 : 74억원	



구분	내용		비고
시설현황	구분	내용	
	아라리촌 카페	지붕과 벽체를 너와로 건축	
	양반전 거리	연암 박지원의 소설을 바탕으로 양반전 거리 조성	
	전통 가옥	굴피집, 거름집, 저름집, 너와집, 귀틀집, 서낭당	
	아라리 학당	정선의 대표 민요 '정선아리랑' 노래를 학당 형식을 빌어 교육 체험의 장 활용	
	아라리 마당	관람객을 위한 정선아라리 공연이나 전통 놀이 감상 공간	
	농기구 공방, 방아, 물레 등	조선시대 전통 생활문화를 볼 수 있는 대장간을 비롯해 농기구 전시, 물레, 방아(통, 연자, 물레, 디딜)등을 전시	
	문화관광 해설사집	정선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집을 운영하며 인터넷 예약 관람 해설	
	입장료	아라리촌 내 상가와 정선군 관내 상품권 가맹점(음식점, 매점, 숙박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정선군민 무료)	
이용행태	아리샘터	1층 : 소규모 전시공간(미술, 서예, 수석 등) 2층 : 다목적실(정선아리랑 전수교육, 동아리발표회 등) 3층 : 녹음실, 소규모 연습실(드럼, 키보드 등 활용)	• 휴게, 체험, 전시, 전수교육
	조성시설	   	



리뉴얼 및 활성화 필요성

I. 설문조사·분석

II. 수요실태 및 심층면접 조사·분석

제4장

리뉴얼 및 활성화 필요성

제1절 설문조사·분석

1 설문조사 개요

1.1 조사목적 및 조사방법

1) 조사목적

□ 국악의성지 방문객의 기본 현황과 욕구 분석

- 국악의성지 설문조사는 국악의성지 방문객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리뉴얼 및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자료 수집 및 종합적 분석을 통해 리뉴얼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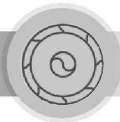
2) 조사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병행 수행

- 2024년 4월 국악의성지 리뉴얼 및 활성화에 대해 응답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국악의성지 주변 관광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조사 병행 수행

[표 23] 국악의성지 설문조사

조사대상	• 국악의성지 및 동편제마을 방문객
조사기간	• 2024년 4월 3일 ~ 4월 30일
유효표본	• 103명 응답
조사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개별 조사



2

설문조사 결과분석

2.1 응답자 일반현황

□ 남원시 관광지 방문객 총 103명 응답에 참여

- 응답자 연령은 20~40대 71명(45.6%)으로 다수, 다음으로 50~60대 26명(25.2%) 참여
- 국악의성지 및 주변 관광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분석

[표 24] 응답자 일반현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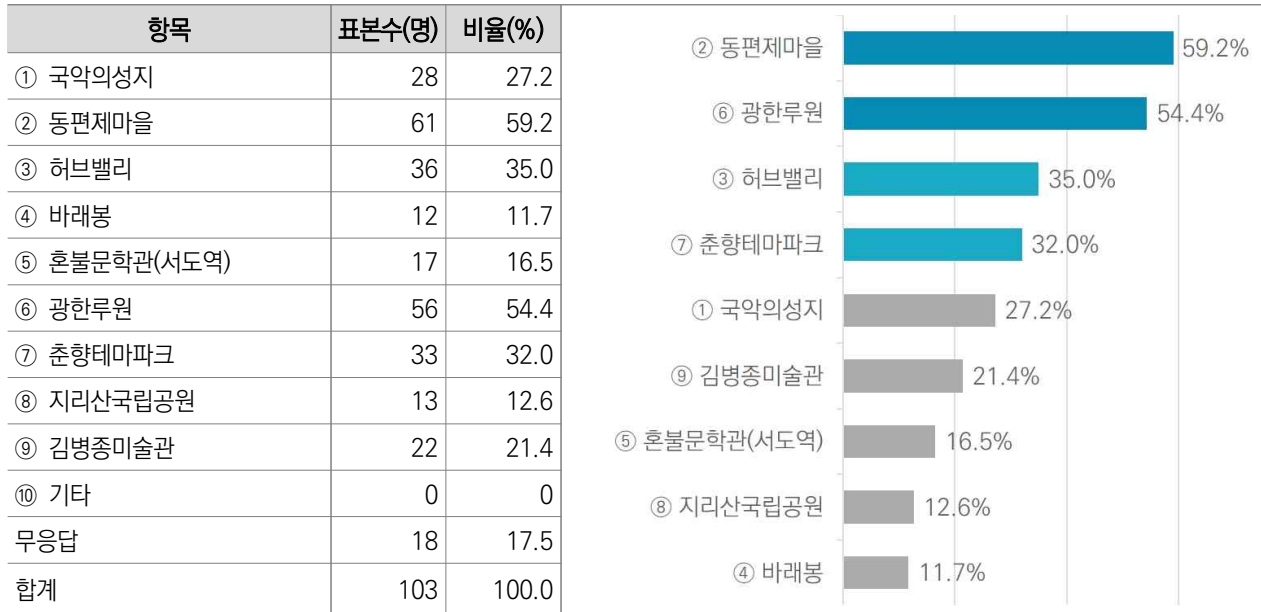
구분		표본수	비율
성별	남성	43	41.7
	여성	58	56.3
	무응답	2	1.9
연령	10대	3	2.9
	20대	24	23.3
	30대	20	19.4
	40대	27	26.2
	50대	16	15.5
	60대	10	9.7
	70대 이상	1	1.0
	무응답	2	1.9
거주지역	남원시	18	17.5
	전북특별자치도	25	24.3
	전남	16	15.5
	서울	15	14.6
	경기	3	2.9
	강원	1	1.0
	충북	7	6.8
	충남	6	5.8
	경북	5	4.9
	경남	4	3.9
	무응답	3	2.9
직업	국악관련	15	14.6
	학생	4	3.9
	교직원	5	4.9
	회사원	25	24.3
	자영업	15	14.6
	공무원	7	6.8
	주부	16	15.5
	기타	2	1.9
	무응답	14	13.6
전체		103	100.0

2.2 관광객 특성

[2.2.1] 남원시 방문 관광지(복수응답)

□ 동편제마을(59.2%) 및 광한루원(54.4%) 주로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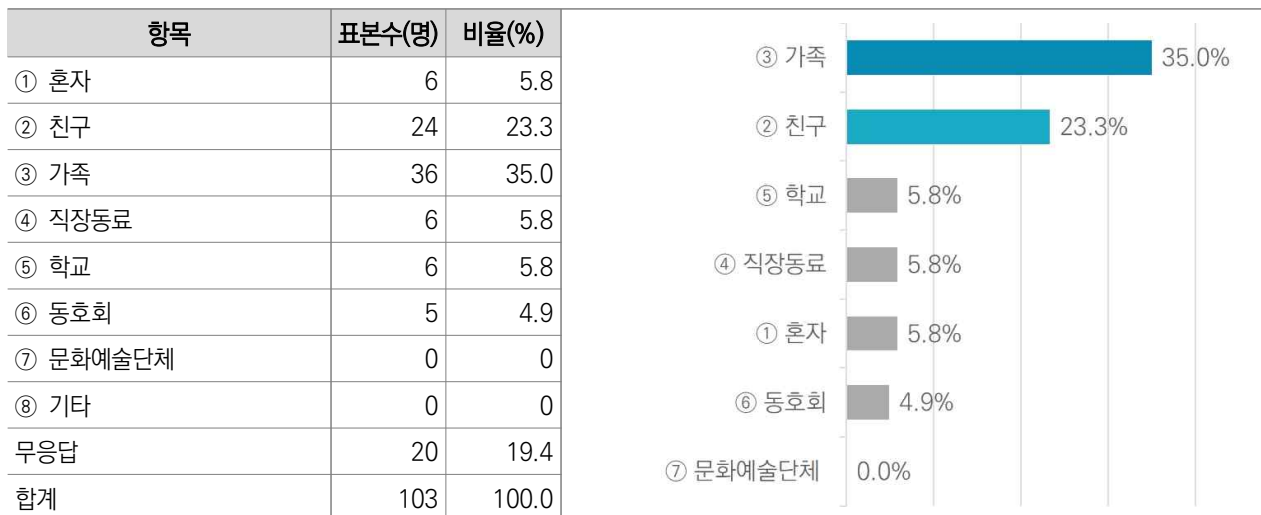
○ 국악의성지 주변 관광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했음에도 국악의성지 방문율은 27.2%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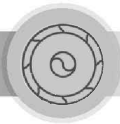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2.2.2] 남원시 방문 동행자

□ 가족(35.0%) 및 친구(23.3%)와 남원시 방문 58.3%

○ 가족·친구 이외에 단체(직장, 학교, 동호회) 16.5%, 혼자 5.8% 순으로 응답





[2.2.3] 남원시 체류시간

□ 체류시간은 주로 1박2일(35.9%) 및 2박3일(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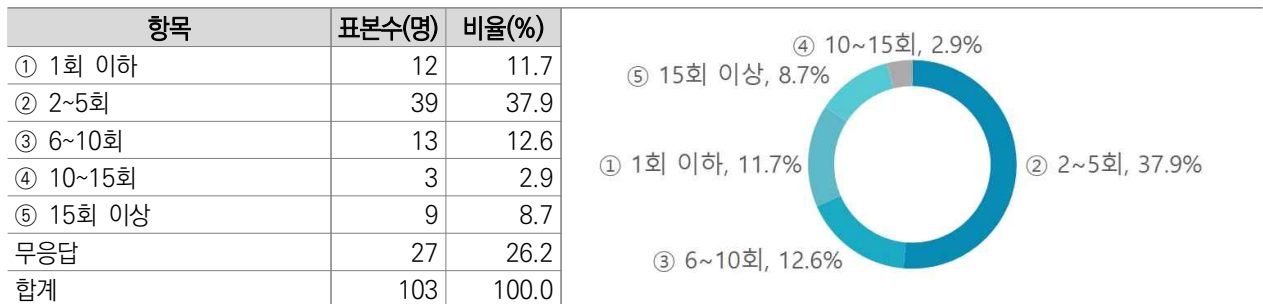
○ 당일(11.6%) 보다는 대체적으로 1박2일 이상 남원시에 체류



[2.2.4] 남원시 총 방문횟수

□ 방문횟수는 주로 2~5회 37.9%이며, 6회이상 24.2%로 재방문율이 높음

○ 방문횟수 2회 이상이 62.1%로 무응답자까지 포함시 남원시 재방문율은 70% 이상으로 예상



[2.2.5] 남원시 관광지 정보경로(복수응답)

□ 인터넷·SNS 30.8%로 월등히 높고, 다음으로 주변사람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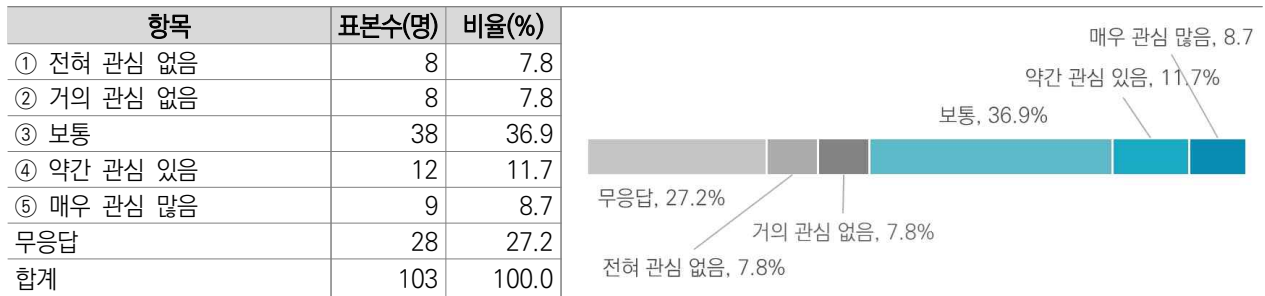
○ 전통매스컴(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 방식보다는, 인터넷·블로그·인스타그램 등 IT매체 주이용



2.3 국악의성지 인지도

[2.3.1] 국악 관심수준

□ 국악에 대한 관심은 보통(평균3.08점/5.0점)



[2.3.2] 국악의성지 인지율

□ 국악의성지 인지율 39.7%로 다소낮음



[2.3.3] 국악의성지 정보경로(복수응답)

□ 홍보배포자료(안내문,기관,책자)를 통한 정보인지 46.5% 반면에, 인터넷·SNS는 8.7%로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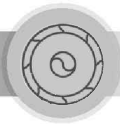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위의 "[2.5] 남원시 관광지 정보경로"에서 인터넷·블로그·인스타그램 등 IT매체 주이용과 차이



[2.3.4] 국악의성지 방문경험

□ 국악의성지 방문경험 38.5%로 다소낮음





2.4 국악의성지 활성화

[2.4.1] 국악의성지 만족도

□ 대체로 보통수준 3.15점~3.60점 만족도

- 해설사와 시설안내 만족도가 3.6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에, 어울림광장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은 3.15점~3.2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항목	만족도 평균 (5점 만점)	
1 전체적인 만족수준	3.49	7 시설 안내 3.60점
2 묘역 시설	3.42	6 해설사 3.60점
3 어울림광장 시설	3.15	1 전체적인 만족수준 3.49점
4 전시관 시설	3.30	2 묘역 시설 3.42점
5 체험 프로그램	3.23	8 부지규모 3.37점
6 해설사	3.60	4 전시관 시설 3.30점
7 시설 안내	3.60	5 체험 프로그램 3.23점
8 부지규모	3.37	3 어울림광장 시설 3.15점

[2.4.2] 국악의성지 묘역확충

□ 현 상태 유지(37.5%)를 가장 많이 응답

- ‘묘소 증설’은 25.0%로 다소 낮음
- ‘잘 모르겠음’ 35.0% : 묘소 증설에 회피하는 응답으로서 그다지 찬성하지 않음으로 해석되며, 이는 곧 ‘현 상태유지’ 또는 ‘축소’를 의미

항목	표본수(명)	비율(%)	
① 무형문화재 국악인 묘소 증설	10	25.0	② 현 상태 유지 37.5%
② 현 상태 유지	15	37.5	③ 잘 모르겠음 35.0%
③ 잘 모르겠음	14	35.0	① 무형문화재 국악인 묘소 증설 25.0%
④ 기타	1	2.5	④ 기타 2.5%
합계	40	100.0	

[2.4.3] 국악의성지 전시관 개량(복수응답)

□ 디지털 융복합 전시·안내(37.8%), 휴식시설(30.6%), 숙박시설(20.4%) 순으로 응답

- 전시방식의 디지털 적용이 가장 우선적으로 리뉴얼을 해야할 부문
- 휴식시설 및 숙박·공유주방 시설 조성 필요

항목	표본수(명)	비율(%)	
① 디지털 융복합 전시,안내	37	37.8	① 디지털 융복합 전시,안내 37.8%
② 숙박시설	20	20.4	④ 휴식시설 30.6%
③ 공유주방	8	8.2	② 숙박시설 20.4%
④ 휴식시설	30	30.6	③ 공유주방 8.2%
⑤ 기타	3	3.1	⑤ 기타 3.1%
합계	98	100.0	

[2.4.4] 국악의성지 체험프로그램 강화(복수응답)

□ 디지털 국악체험(28.4%)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득음실 판소리 체험(17.7%) 순으로 응답

- 위의 '[4.3] 국악의성지 전시관 개량'에서 응답한 디지털전시와 함께 악기연주 기능 융복합 필요
- 다음으로는 국악의성지 컨셉에 맞는 판소리 체험 의견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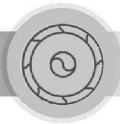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2.4.5] 국악의성지 활성화 추가기능(복수응답)

□ 관광촉진 및 국악전문 양립 기능 필요

- 관광촉진 : 주변 연계 관광자원(18.3%) > 퓨전 공연행사(16.9%) > 홍보방식(14.1%)
- 국악전문 : 전문 국악기능 강화(14.8%)





제2절 수요실태 및 심층면접 조사·분석

1 면접조사 개요

1.1 조사목적 및 조사방법

1) 조사목적

□ 국악의성지 개선발전에 실질적인 국악전문가·관계자 의견조사 중요

- 국악의성지 현황 및 특징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국악의성지 리뉴얼 및 활성화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함이며, 특히 그동안 국악의성지가 운영 되면서 개선 및 발전이 필요한 사항은 이 시설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국악전문가 및 관계자의 실질적인 의견조사가 가장 중요
- 또한 국악의성지 인근 마을조직체인 비전마을, 전촌마을, 동편제마을 이장 및 위원장과의 의견조사를 통해 발전연계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도모

2) 조사방법

□ 조사대상에 따른 수요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구분 수행

[표 25] 국악의성지 수요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조사대상	• 국악의성지를 잘 아는 국악전문가 및 관계자 - 수요실태조사 : 동편제마을 이장, 위원장 등 관계자 - 심층면접조사 : 국악인, 교수, 협회 등 국악전문가
조사기간	• 2024년 4월 1일 ~ 4월 26일
유효표본	• 총 12명 응답 - 수요실태조사 : 3명 - 심층면접조사 : 9명
조사방법	• 사전 연락을 통해 1:1 대면 면접조사

2

수요실태 및 심층면접 조사·분석 종합

2.1 수요실태 조사·분석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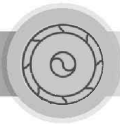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20~30대 연령층 동참할 수 있는 행사기획

- 행사참여 대상자를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친근감 있는 공연 필요
- 공연기획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외에 전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및 학생들도 기획·연출·공연 모두 가능하므로 공연기획부터 프로그램까지 참여의 폭을 넓혀야할 필요성 고려

□ 동편제마을과 국악의성지 상생구현

- 동편제마을과 국악의성지는 500미터 거리로 인접해 있고, 동편제라는 문화지역으로 공동체임
- 람천을 따라 지리산둘레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의 마디마디를 연결할 필요
- 동편제마을 휴락게스트하우스에 연간 6,000명이 방문하는데 국악의성지 인지도가 매우 낮으므로 동편제마을과 국악의성지간 교류채널 구축, 공동 홍보활동 및 공동 체험활동 등 연결고리 강화 필요

구분	방문객 추세	홍보마케팅	국악의성지 상호작용	방문을 향상 제안
비전·전촌 마을이장	•동편제 국악축제 -정몽구재단 지원 축소 (코로나로 중단되며 축소) -방문객 1/3 감소	•방문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사업 조성 -개인카페로 임대운영	•국악공원 조성 선호 -묘역 보다는 공원이 좋음 -지리산둘레길2코스 연계	•특색있는 공연 필요 -일반국악: 밋밋함 -퓨전국악: 20~30대 타겟 (송소희 등)
	•방문자 유형 -일반인 80% (연령: 50~70대) -국악학생 20%	•운봉읍 축제 2개 -운봉예향회: 철쭉축제 -운봉발전협의회: 벚꽃축제		•둘레길 연계행사 가능 -기념품, 메달 지급 행사 -국악공원~지리산둘레길
		•관광객 방문경로 -지역방송(전주방송) -국악동호회		•행사 연속성 필요 -동편제 국악축제(9월) - 국악의성지 재례(10월)
		•차량이정표 새단장 필요		



구분	방문객 추세	홍보마케팅	국악의성지 상호작용	방문율 향상 제안
동편제마을 위원장	•동편제 국악축제 - '23년부터 전북도+남원시 지원으로 운영 -1박2일로 축소	•인터넷·SNS 영향력 중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록 -포토존 등 공원조성	•마을주민 감내 범위 -묘역 급증시 공동묘지화 -마을활력 쇠퇴 위험	•홍보 강화 많이 필요 -국악의성지 인지도 낮음
	•휴락게스트하우스 -좋은시설, 입소문 꾸준 -연간 6,000명 방문			•악기 체험 확대 -대학생단체 인기 경험
				•체험연계 가능 -하몽판매+체험 인기 좋음

2.2 심층면접 조사·분석 종합

□ 국가적 규모로 위상 정립

- 묘역 주변 기념조형물, 사당 위패 명창 등 국가를 대표하는 역사인물로 모시도록 자원역량 집중
- 국악대제향 초청참여자 대상을 중앙정부 기관장으로 높이고 전통성·대표성 가치 격상 필요

□ 학예기능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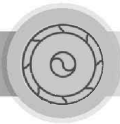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국악의성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예·공연·전시·수련 4가지 기능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는 전시기능 1가지 뿐이라서 우선적으로 국가적 규모의 학예기능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연과 수련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
- 전국 국악명인의 삶을 재조명하는 역사기록 조사 및 목록화 사업 필요
- 전국 국악인이 모여서 연습하고 연습결과물을 발표하며 공유하여 배우는 기회를 독려함으로써 국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능 요구
- 양반의 소리 동편제 본고장 남원에 국가적 규모의 학예기능시설 조성으로 동편제 이외에도 서편제, 중고제, 민요, 기악, 무용 등 국악관련 연구의 집대성 역할수행 필요

□ 콘텐츠가 다양한 전시기능 구현

- 일부 명창 기념품 전시에서 벗어나서 명창 유파별, 시대적 일대기별, 국악 종류별 전시구획을 갖추어 많은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학습요소를 제공하는 기능이 요구
- 현존하는 많은 국악명창이 기획전시를 할 수 있도록 수장고를 갖추어 기증품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완비 필요
- 디지털 및 입체적 전시방식을 적용한 리뉴얼과 첨단테크놀로지 기술기반 시도를 고려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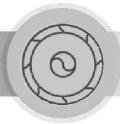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대중적이고 특색있는 관광투어 상품개발

- 2030년 달빛철도 개통에 맞춰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들 수 있는 관광콘텐츠상품 개발 필요
- 창극 전용 소공연장 또는 창극 다목적공연장 조성으로 다채로운 국악(판소리, 기악, 무용) 공연 가능



구분	공간배치 적절성	중점 활성화 사업	공간별 프로그램	명성 제고
전문가 1	•묘역:전시:야외 비율 -33%:33%:33%	•국악명인 역사기록 목록화 -역사기록 인문학 조사 및 목록화 책자 제작 (명인 직계·후손) •국악대제향 이후 일반참관 공연 필요 -풍성한 대제향+관람공연	•묘역: 안치 절차 홍보 필요 •전시관: 기악 체험교육 -단소,가야금,거문고,장구 체험교육 선생님 필요 •야외공연장: 무대세팅완비 •국악인 득음실·숙박실 필요 -득음수련 기간 체류 •전문가 섭외 인력육성 -분야별: 판소리(발성), 기악(운주), 무용(동작)	•국악공연의 관광자원화 -특색있는 공연 개발 (민속국악진흥회 대제향) (악성옥보고 공연) (남원시립예술단 공연) •홍보공연 규모화 필요 -거리행진 공연 -송가인초청(친분관계활용)
전문가 2	•묘역:전시:야외 비율 -25%:50%:25%	•국악명인 역사기록 목록화 -묘역에 모셔진 명인 기록 -제자와 후손 관심	•전시관: 명창관 다양화 필요 -명창 한구획씩 전시 조성 (현재 박초월,송흥록 집중) •소규모 공연장 조성 필요 -관객 150명 정도 -연습장+공연장 겸용 •공원 조성 필요 -그늘막, 쉼벤치 -포토 조각공원 -명창 육성소리 조형물 •숙박숙식 건물 필요 •소리공부 시설 필요 •공연장 개방 관광자원화	•소리의 성지 필요 -소리공부 + 소리공원 + 소리동상 + 소리폭포 + 소리길 •철도관광투어 상품 개발 -달빛철도 개통 프로그램 -국악공연 상품 개발 (사물놀이,판소리,단막극, 민요,무용)
전문가 3	•묘역:전시:야외 비율 -20%:20%:25% -추가: 학예기능 40%	•학예기능 강화 필요 -학예사 최소 1명 -학예역할: 공연+세미나+ 도서+인물발굴·섭외+ 학술교류+자체연수 기능 -전국규모 활용	•일반인 참배 기능 필요 •다양성 전시 필요 •수장고 조성 필요 -기획전시 추세 -명인 기획전시 활성화 •공연장 개방 관광자원화 •음향·무대완비 공연장 조성 •콜라보 좌담회 -국립민속국악원과 콜라보	•성공 필요기능 4가지 -공연+전시+학예+수련 (국악의성지: 現전시1가지) •유파별 월간 공연 -안숙선,성창순 등 유파 -1년 6번~10회 공연 •위탁경영 및 조직체계 구축

구분	공간배치 적절성	중점 활성화 사업	공간별 프로그램	명성 제고
			•숙박숙식 건물 필요 •소리공부 시설 필요	-現 남원시립예술단 상주 -향후) 관장,학예사 구축 - 위탁경영 필요
전문가 4	•묘역:전시:야외 비율 -40%:30%:30%	•국악기반시설 확장 -묘역,득음수련,공연 기능	•국악인 개인 묘역화 확장 -묘역 50~60기 추가조성 •국악인 전시박물관 확장 •수장고 조성 •창극 전용극장 관광자원화 -150명 규모 -전세계 춘향전 3개국: - 한국 창극, 중국 무극, 북한 가극 •숙박시설 조성 필요 •소리공부 기반시설 필요 •학술대회 시행 필요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극장 - 학술대회 시 국악인 교류 - 효과 있었음	•국악의성지 국악대제향 - 성역화 위해 이양 필요 -現민속국악진흥회 - 향후)민속국립국악원
전문가 5	•묘역:전시:야외 비율 -33%:33%:33%	•학예기능 필요 -연수, 세미나 -명인 예술과 삶 재조명 -악보화, 리메이크화 -디지털도서관 DB구축 -명창 연습결과물 발표회	•묘역 현수준 유지 -상징성, 신성성 측면 갖추 •입체방식 전시 구현 필요 -악기 작동, 설명 입체방식 •양상불 공연 예약프로그램 -연습중이라도 오픈가능한 - 양상불 공연형태로 예약 - 시행 가능 •국악전용극장 관광상품화 •야외공연장 변경 -활용성 낮아 공원 변경 •홍상거리 조성 -중앙계단옆, 야외광장 등 -명창 소리음향 •득음실 조성 필요 -실내공연장 내 개인연습실 - 및 2~3명 연습실 형태	•국악인 및 학도 중심 홍보 •주변연계 관광상품화 -송흥록생가~옥보고거문고터~ - 변강쇠근거자~홍보가탄생지 •국가매칭 운영으로 변경 -現)남원의 국악의성지 - 향후)국가의 국악의성지
전문가 6	•공간별 특징 함유 -묘역: 상징성, 신성성 -전시관: 표현성, 시각성 -공연장: 전승성	•문화예술 활성화	•묘역 현수준 유지 -묘역이 많은 국악의성지 - 보다는 문화예술 활성화된 - 국악의성지 필요	•주변 관광지 연계코스 개발 -지리산둘레길~송흥록생가~ - 옥보고거문고터~홍보가 - 탄생지 등



구분	공간배치 적절성	중점 활성화 사업	공간별 프로그램	명성 제고
			•야외공연장 유지 -자연경관 연계 공연 •일반인 대상 학습장·공연장 -고창 동리국악당 벤치마킹 -어린이 왕중왕 국악대회 -초청 국악인 공연 -국악교실연수생 발표회 •판소리 및 기악 체험 •전국 단체 합숙시설 필요 •소리공부 시설 조성 •대학생 창극 공연 필요 -국악원 단원 필수역량 (전북대 창극 교육 있음) •대학생 스태프·단역 양성 영재스쿨 운영 필요 -창극 연출, 공연 기획 -예: 학생 8명 300만원 국악인력 생태계 도모	
전문가 7	•묘역:전시:야외 비율 -30%:50%:20%	•국악 아카데미 필요 -전국 국악전공자 공연기획 및 제작 교육공간 -디지털 아카이빙 라운지 •공연,워크숍 등 다목적 공간 -실내공연장 100석 규모 -별도 방음시설 소리연습실 -워크숍 회의룸 -카페 휴게실 •외국인 1주일 국악스테이 -해외외국인 국악관심자 해외대사관 관계자 초청 국내 유학외국인학생 -체험,교육,발표 등 1주일 머무는 템플스테이 형식	•납골당: 명창 자격완화 -200~300명 모시면 명절 마다 유가족 방문 가능 •초등생 교육프로그램 -전북교육청 협약 (전북초등학교 국악체험) •어린이 명창 육성 재시도 필요 -안숙선 명창 초빙 •전시장: 내부 리뉴얼 -조명 트렌드 반영 -전시장 경로 플로우 구축 -기증품 디지털전시 적용 •꽃길 조성 마을연계 -동편제마을~국악의성지 •창제작 교류 레지던스 필요 -숙박시설 40~50명 규모 •소리공부 시설 조성 •소리 주제 공간브랜딩 -소리길+소리터+소리공원	•국내외 홍보 -Global K-culture 시대 -다른시설기관과 연계 •전문가 중심 공간
전문가 8	•묘역:전시:야외 비율 -33%:33%:33%	•국가적 행사로 전환 필요 -국악대제향 초청 대상자 격상(중앙기관장 참여)	•가묘 대신 기념물로 변경 -3대악성(우륵,왕산악,박연) 4대(상동,옥보고) 5대(상동,세종대왕) -동상, 각명비, 조형물 등	•국악인 중심 건축물 •국가적 축제 행사

구분	공간배치 적절성	중점 활성화 사업	공간별 프로그램	명성 제고
			•사당 중심 국가대제향 -위패에 많은 명창 모셔서 국가대제향 시행 (정악 및 민속악 명창) -사당 3칸→7칸으로 넓힘 •묘역 확대시 인근 산 측면 -협오시설 방지	•국악의성지 컨셉 재확립 -컨셉1: 국가 대표성 -컨셉2: 전통성 -국악의 정신적 가치 보존 및 보전 확립
		•‘국악의성지 대상’ 제도화로 수준 격상 필요 -올해의 국악인 수상 (상금 1개부문 2천만원) (수상 3부문(판소리,가악,무용)) -공로패 수상 (국가적 행사 격상 기여)	•연수시설 및 전수시설 조성 -공간배치 1/4 비중 -득음실,연수원,소리공부 •소공연장 및 숙박시설 조성 •야외공연장 리뉴얼 -국악연수원, 수장고 조성 •매스컴·TV 축제규모화 •국악캠퍼스는 지양 -본인 유파 선생님께 배움	•발전계획 논의 자문단 구성 -소수1~2명 의견 주의
전문가 9	•묘역:전시:야외 비율 -33%:33%:33%	•교육·수련공간 조성 필요 -국악기관 연계 콜라보 (연수원, 탐방견학 등) -세미나실,교육장,공연장, 숙박시설	•가묘 상징적 의미 있음 -송흥록 묘 소재지 불분명 -옛명창은 한 곳 머무르지 않고 여러곳 다니며 창을 하기에 정해진 곳 없음 •창극 공연 -살아있는 흥부가,춘향가 •야외공연장 추가시설 지양 -환경특성상 사용 어려움 •숙박시설 조성 -50명 규모 -소리공부 1주일 체류 •득음실 조성 필요 -방음완비 실내연습실 (국악학생 트렌드) •토굴 득음실은 관광용 활용 •전남대 교육과정 연계 가능 -국가무형유산 전수학교 지정 1호 -프로그램 예: 합숙+특강+유적답사+산공부 견학	•지속 남원명창 배출 필요 -판소리 전승기관 시스템 구축 (전수지원+문화재 연계 등) •자문단 구성



기본구상

- I. 국악의성지 기본방향
- II. 국악의성지 공간구상
- III. 국악의성지 추진사업안

제5장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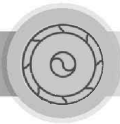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제1절 국악의성지 기본방향

1 기본방향 설정

1.1 국악의성지 컨셉

□ 우리음악 대표성

-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민족 구성원 대다수가 향유하여 온 민속음악이 우리음악을 대표해야 함
- 판소리는 민속음악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또 기본이 되는 음악으로 판소리를 모태로 해서 산조와 병창이 발생했고 또 창극이 발생했으며 단가는 또한 판소리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판소리는 우리 민족이 향유하고 있던 모든 음악 장르를 포괄
 - 판소리는 처음에는 하층계급에 의해서 하층계급 혹은 서민들을 기반으로 자라났지만 후에는 임금을 포함한 지배계급까지도 청중으로 끌어들여 마침내 민족예술이 되었음
 - 판소리는 18세기에 이미 양반들의 사랑에 침투했으며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임금을 포함한 양반 지배계급의 판소리 향유가 일상화 되었음. 지배계급은 판소리를 감상하는 단순한 소비자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판소리의 개작과 예술적 세련에 개입하였으며 또 판소리에 관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음
 -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도 애초에는 호남지방에서 발생한 판소리가 나중에는 전국 각지로 퍼져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음
- 판소리는 예술성 및 전문성에 있어서 이미 탁월성을 인정받고 있음
 - 판소리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 전문성이란 판소리가 보통사람들도 금방 할 수 있는 예술이 아니라 전문적인 훈련을 장기간에 걸쳐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술이라는 것임
 - 판소리가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다는 말은 판소리가 그만큼 높은 수준을 요하는 예술이란 뜻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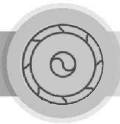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판소리는 다른 예술 장르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데 그 관련성은 우선 문학에서 두드러짐
 - 판소리는 설화에서 판소리로 다시 판소리계 소설로 발전했는데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사설을 채록하고 이를 읽기 위한 독서물로 개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
 - 판소리계 소설은 하나같이 높은 문학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고전소설을 대표함
 - 판소리는 시, 영화, 드라마, 오페라 등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왔음
 - 이러한 현상은 판소리가 장르를 넘어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재창조되는 마르지 않는 섬임을 보여줌
-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 판소리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악은 없으며, 따라서 국악의성지가 우리나라 음악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음악 전통성

- 국악의성지가 위치한 남원은 동편제의 본고장으로서 우리나라 음악의 전통을 대표하고 있음
 - 고유한 우리의 음악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유산이 곳곳에 있으며 음악과 관련된 행사와 축제가 많고 우리음악을 가르치고 보존하는 국악예술고등학교와 국립민속국악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음
- 동편제 전통음악은 이 지역문화의 바탕에 남아 우리나라 소리문화의 중심축으로서 소리꾼의 공급과 선발의 기능을 계속적으로 담당함
- 동편제 판소리의 발상지이며 명창의 고향, 춘향전과 흥부전의 고향 국악의성지는 우리음악에 대한 연구, 교육과 홍보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특색 있는 문화자원으로 도약해야 함
- 전통을 계승하고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사업을 국악의성지에서 수행해야함
 - ① 우리음악 연구 활동 : 우리음악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정리,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전통음악의 보존 및 개발 방안 연구, 잊혀져 가는 명창들에 관한 조사, 전통음악의 계승과 창조방안 연구 등
 - ② 전통음악 교육 : 우리음악에 대한 교육을 통해 우리음악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우리음악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하고, 전문명창의 양성도 해야 함. 전문 명창의 소리 수련을 위한 장소나 강사의 제공 등을 통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음

□ 우리음악 대중성

- 글로벌 시대에 네트워크 연결로 인해 세계인의 문화가 획일화되어 가는 한편, 다양한 문화가 유통되어 다양성이 촉진되고 있음
 - 문화가 상품이 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
 -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문화상품은 우리고유의 독창적인 유산물이어야 함
- 우리 문화를 국제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특성이 있어야만 하고 우리만의 특성은 우리의 정체성에 이어지게 됨
 - 세계에 내놓을 만한 문화상품으로 우리는 우리음악 판소리를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사물놀이의 세계화로 이미 입증된 바 있음
 - 세계에 내놓을 때는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야 하고(판소리는 서양의 오페라에 견줄 수 있는 창극 공연), 즉 전통에 기반한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국악의성지는 이러한 일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위치임
- 따라서 국악의성지는 우리나라의 민족적 자긍심을 키우며 우리문화를 글로벌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함
 - 국악의성지가 위치한 남원은 이미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 음악을 관광의 중요한 상품으로 가꾸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춘향제가 대표적이고 여름휴가철 여행객을 위한 음악회도 매우 성공적인 예임) 국악의성지는 이러한 성공을 더욱 확실하게 펼쳐내는 중심역할·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



1.2 국악의성지 비전·목표·전략 체계도

비전

국가대표 국악의성지 위상 격상

목표

고유한 소리문화의 창조적 전승·연구 및 세계화 위상 추구

전략

3대 전략 | 25개 추진사업



주요기능

대제 기능

학예 기능

전시 및 공연 기능

핵심사업

- 국가수준 대제향
- 사당 및 위패 확장

- 국악연구소 설립
- 창제작 교류 레지던스 조성

- 창극 전용극장 조성
- 명창관 확장 조성



2

국악의성지 추진사업안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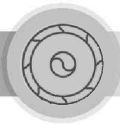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2.1 추진사업안 종합

□ 국악의성지 리뉴얼 및 활성화 방안은 3대 전략, 26개 추진사업안으로 구성 제시

- 추진사업의 형태는 시설조성, 조례, 교류관계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비교란에 기재

[표 26] 국악의성지 리뉴얼 및 활성화 추진사업안 종합

전략	추진사업안	비고
우리음악 대표성	① 사당 확장 및 위패 확대	시설조성
	② 묘역 주변 역사성 담긴 벽체기념조형물 조성	시설조성
	③ 국악대제향 중앙정부 기관장 초청 국가대표화	교류관계
	④ ‘국악의성지 대상’ 조례 제정 및 시행	조례
	⑤ ‘국악의성지 자문단’ 위촉 및 지원조례 제정	조례
우리음악 전통성	① 국악연구소 조성	시설조성
	② 국악명인 역사기록 목록화	교류관계
	③ 국악 학술대회 개최	교류관계
	④ 이동식 학술대회 프로그램	시설조성
	⑤ 국악전용 수장고 조성	시설조성
	⑥ 득음실 및 소리공부실 조성	시설조성
	⑦ 창제작 교류 레지던스 조성	시설조성
	⑧ 명상카페 및 숙식 등 휴게실 조성	시설조성
우리음악 대중성	① 디지털 입체전시관 리뉴얼	시설조성
	② 명창관 전시 다양화 구성	시설조성
	③ 기악 체험교육 프로그램	교류관계
	④ 특색있는 소공연장 조성	시설조성
	⑤ 철도관광투어 상품 개발	교류관계
	⑥ 특색있는 공연 프로그램 운영	교류관계
	⑦ 국악공원 조성	시설조성
	⑧ 동편제체험휴양마을 상호연계 원원 구현	교류관계
	⑨ 동편제체험휴양마을 체험프로그램 연계 운영	교류관계
	⑩ 2030퓨전국악축제	교류관계
	⑪ SNS 홍보마케팅 촉진	교류관계
	⑫ 람천~국악의성지 장미·LED터널 조성	시설조성
	⑬ 국악의성지 출입교차로 안내입간판 설치	시설조성



2.2 추진사업안 추진일정

전략	추진사업안	단기 (1~2년)	중기 (3~4년)	장기 (5년이상)
우리음악 대표성	① 사당 확장 및 위패 확대			
	② 묘역 주변 역사성 담긴 벽체기념조형물 조성			
	③ 국악대제향 중앙정부 기관장 초청 국가대표화			
	④ ‘국악의성지 대상’ 조례 제정 및 시행			
	⑤ ‘국악의성지 자문단’ 위촉 및 지원조례 제정			
우리음악 전통성	① 국악연구소 조성			
	② 국악명인 역사기록 목록화			
	③ 국악 학술대회 개최			
	④ 이동식 학술대회 프로그램			
	⑤ 국악전용 수장고 조성			
	⑥ 득음실 및 소리공부실 조성			
	⑦ 창제작 교류 레지던스 조성			
	⑧ 명상카페 및 숙식 등 휴게실 조성			
우리음악 대중성	① 디지털 입체전시관 리뉴얼			
	② 명창관 전시 다양화 구성			
	③ 기악 체험교육 프로그램			
	④ 특색있는 소공연장 조성			
	⑤ 철도관광투어 상품 개발			
	⑥ 특색있는 공연 프로그램 운영			
	⑦ 국악공원 조성			
	⑧ 동편제체험휴양마을 상호연계 원원 구현			
	⑨ 동편제체험휴양마을 체험프로그램 연계 운영			
	⑩ 2030퓨전국악축제			
	⑪ SNS 홍보마케팅 촉진			
	⑫ 람천~국악의성지 장미·LED터널 조성			
	⑬ 국악의성지 출입교차로 안내입간판 설치			

제2절 국악의성지 공간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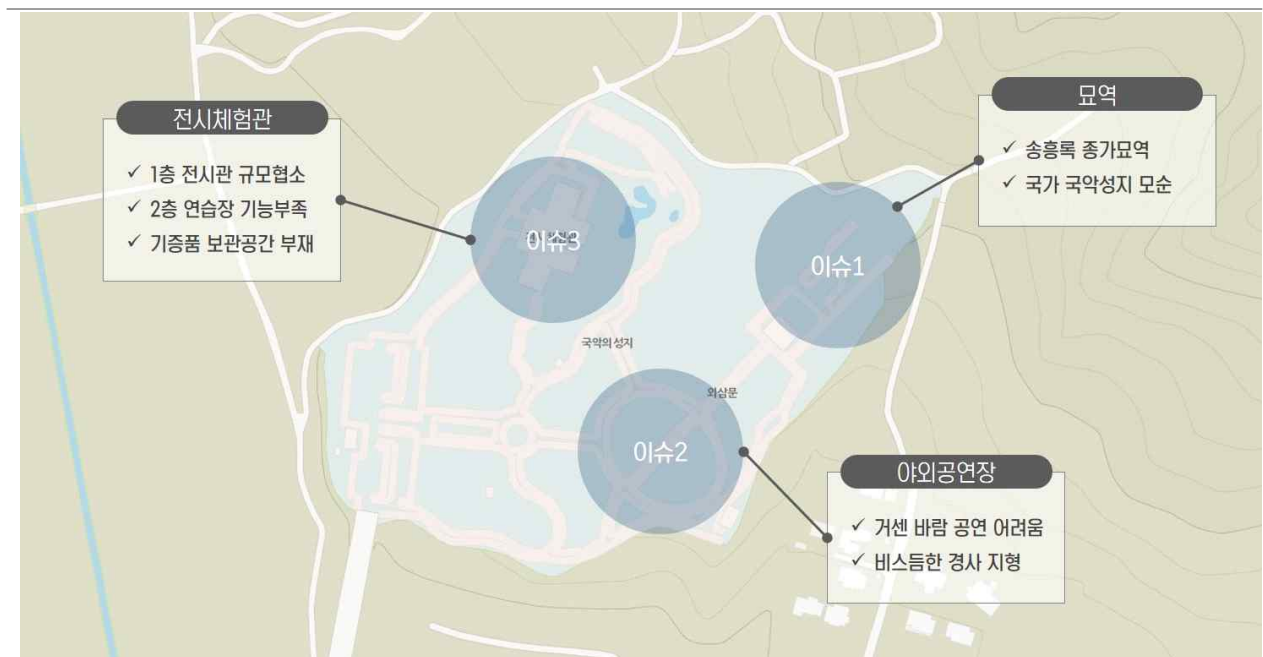
1 국악의성지 공간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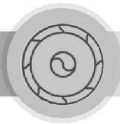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1.1 국악의성지 공간 이슈사항

□ [이슈1] 묘역 vs 국악의성지 이미지간 모순 발생

- 국악의성지 브랜드에는 국가 명창이 모셔져있고 국악의 발상근원지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반면에, 묘역에 모셔진 분은 송홍록 명창의 종가 가족묘역이라서 국악의성지 브랜드와 이미지 불일치 현상 발생
- 또한 사당에 모셔진 위패에는 본래 99명의 위패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현재는 20% 수준만 모셔져 있어서 국악의성지 브랜드 이미지간 괴리감 상태
- 국가 수준의 국악인을 기념하는 조형물 및 위패 등 모시는 형태로 변경이 필요해 보임

[그림 17] 국악의성지 공간 이슈사항





□ [이슈2] 야외공연장 환경상 이용수요 부재

- 야외공연장 위치는 마을이 내려보이고 바람이 부는 풍광이 좋은 위치에 있어서 경치가 매우 빼어난 곳임
- 하지만, 거센 바람이 부는데다 비스듬한 경사 지형이라서 야외공연으로 활용하려는 국악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용수요에 맞는 변경이 필요
- 야외공연장에 조명과 무대를 설치하거나 공원화를 만들기에는 부지의 가치가 좋기 때문에 국악연구기능 건축물 조성으로 변경이 필요해 보임

□ [이슈3] 전시체험관 본기능 퇴색

- 국악의성지 전시체험관으로서의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국악 종류별, 명창 유파별, 연대기별 등 형태로 다양한 역사문화의 산물이 보여져야 하는 공간인데 반면에, 2층건물 중 1층에만 소수의 기념물을 진열한 전시관 실태
- 동일한 건물내에 2층은 공연장 용도로 사용하기 보다는 연습장으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 기능을 위해 필요한 규모 보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당초보다 작은 규모로 지어져서 운영되어야 할 시설이 제대로 갖추지지 않았기 때문
- 현재 시설규모에 기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전시관, 공연장, 연습장이 각기 독립된 건물로 운영되어야 함
- 또한, 전시관 전시품은 명창께서 기능해주는 역사문화 물품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국단위의 많은 명창의 기념물을 받아 전시하기 위해서는 오랜세월동안 훼손되지 않고 온·습도를 일정하게 유지관리하는 수장고가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악의성지 내에는 수장고가 없어서 추가 조성이 매우 필요

2

국악의성지 공간배치안

2.1 공간배치 ALT1

□ 국악의성지 부지내 현시설유지 내부 리뉴얼

○ 묘역 윗상단축 조형물 추가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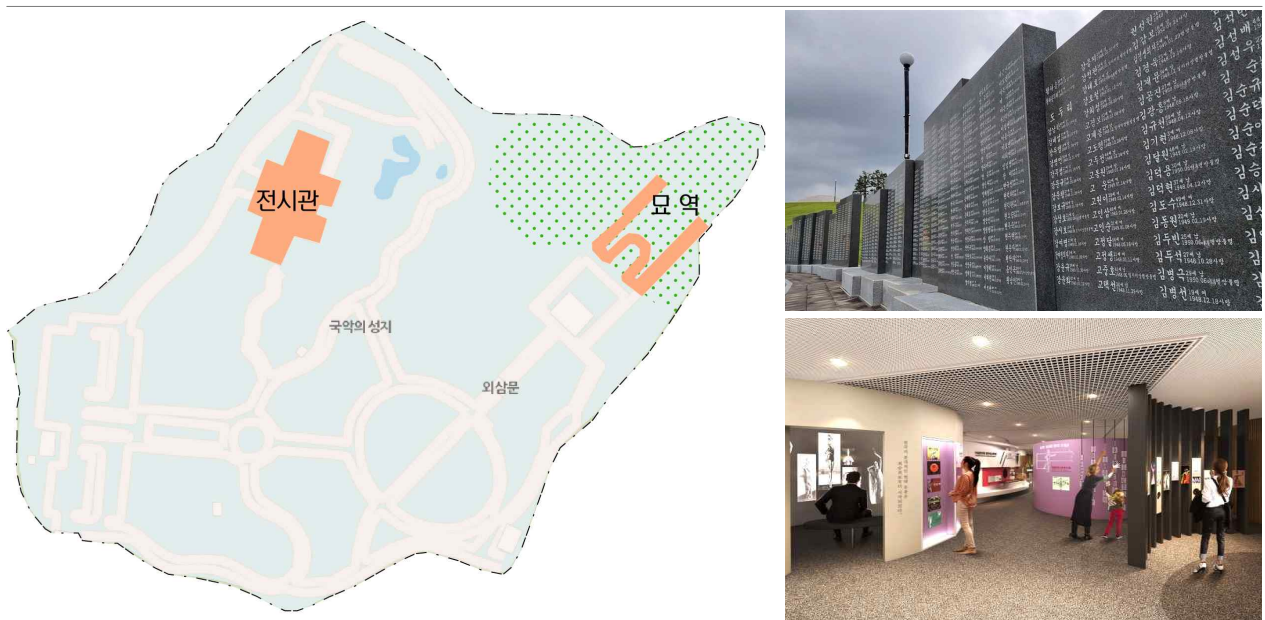
- 우리나라 국악 대표인물의 조형물을 묘역축 윗상단에 배치
- 각명비에 모시는 대상 관련 법규는 없음. 하지만, 종묘(세종대왕) 및 영동묘소(박연) 등 타 지자체에서 모시는 분들은 그 지역과 국가적 관리 무형문화로서 서로 존중하고 지켜줘야 하는 예의이므로 신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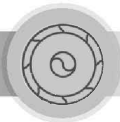
※ 참고 : 5대 악성 우륵, 왕산악, 박연, 옥보고, 세종대왕

○ 묘역 윗좌우측 주변둘레부 각명비 추가설치

- 우리나라 '국악 역사명인'을 시대순, 유파별, 음악유형별 추가설치
- 송흥록 명창 이외에도 국악관련 3대 부문(판소리, 기악, 무용)에 역사인물의 이름을 각명비에 새겨넣어서 국가대표를 기념하는 수준으로 위상을 높이도록 함

[그림 18] 국악의성지 공간배치 ALT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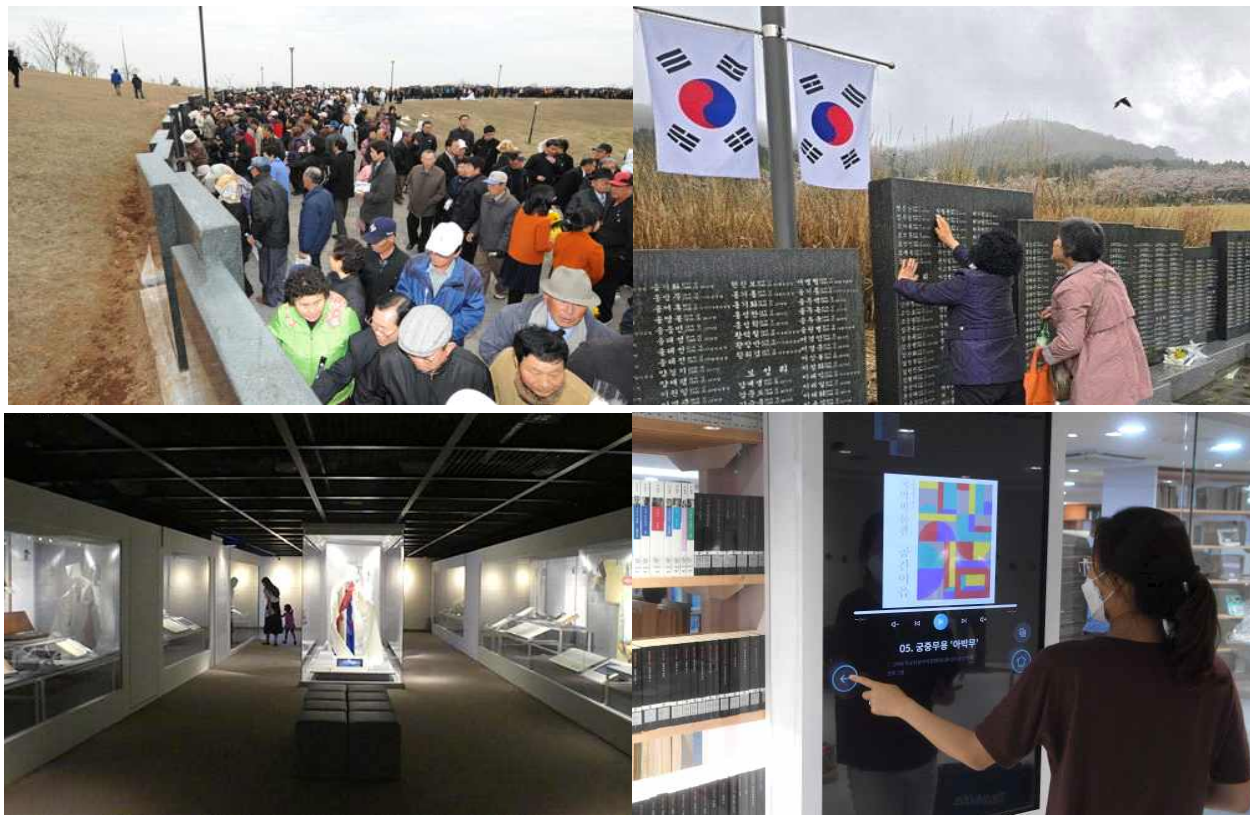




○ 전시관 디지털 융합 전시 리뉴얼

- 전시방식이 20년전 아날로그 전시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시각디자인 트렌드에 뒤쳐져 보임
- 전시관은 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체험교육을 위해 많이 방문하는 곳인데, 국악의성지 전시관은 디지털 세대의 시각에서 후퇴하여 개선이 필요
- 서울 국립국악원에 설치된 디지털 전시방식이 최신 트렌드로서 이러한 시각적 디지털 방식으로 리뉴얼을 해야 할 필요가 요구
- 또한, 향후에 2층에서 연습장을 사용하며 상주해있는 남원시립예술단이 다른 시설로 이주를 할 경우 1층~2층 통합한 명창관으로 확장 필요

[그림 19] 국악의성지 공간배치 ALT1 예시



2.2 공간배치 ALT2

□ 국악의성지 부지내 시설변경 활성화

○ 랜드마크 건축디자인 건물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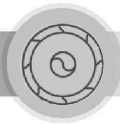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국악의성지 메인입구에 위치한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국악의성지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건축물 디자인 조성으로 국악의성지 입지를 한번에 도약하는 것이 매우 필요
- 글로벌 시대를 맞아 각국은 역사문화를 상징하는 건축물 디자인만으로도 수많은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지역성장과 역사문화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추세에 국악의성지 역시 국악을 상징하는 모양의 건축물 디자인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아야할 시점

○ 국악연구소 건립

-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연구하고 계승·발전 및 산업화를 하기 위한 국악연구소가 매우 필요
- 국립기관으로 조성을 함으로써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민요, 기악, 무용 등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역사 중심지로 거듭나야 할 시점
- 랜드마크 디자인의 건축물로 처음부터 설계 건축하여 명실상부 국가 대표건물로 가치를 높이고 세계적인 음악연구 및 관광명소로 위용을 높이도록 건립추진

[그림 20] 국악의성지 공간배치 ALT2





○ 랜드마크가 된 이색적인 세계 건축물 예시

- 프라하 춤추는 집
- 스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 호주 어반 포레스트
- 미국 롱거버거 빌딩
- 미국 캔자스시립공공도서관
- 중국 국가대극원

[그림 21] 국악의성지 공간배치 ALT2 예시



2.3 공간배치 ALT3

□ 국악의성지 부지 추가조성 활력강화

○ 국악의성지 인접 부지 추가매입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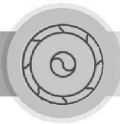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국악의 성지다운 면모를 보이고 본래의 제대로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창극전용극장, 수장고, 창제작레지던스 등 건립 필요
- 현 국악의성지 부지내에서는 ALT1~ALT2를 시행하면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ALT3 대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국악의성지에 인접한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논을 추가매입하는 것이 매우 필요

○ 국가 대표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건립

- 수장고 : 역사적인 전통음악 기증품에서 현존하는 국악인의 기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기증품을 보관하여 특색있는 기획전시를 하기 위해 꼭 필수적인 시설
- 창극 전용극장 : 한국의 오페라, 뮤지컬이라고 불릴 수 있는 ‘창극’을 공연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K-전통음악공연의 성지로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
- 창제작 레지던스 : 전문국악인이 창극 공연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숙식을 해야하며, 소리공부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국악학생들 또한 일정기간 동안 숙식을 하는 것이 필요

[그림 22] 국악의성지 공간배치 ALT3





[그림 23] 국악의성지 공간배치 ALT3 예시



제3절 국악의성지 추진사업안

1 우리음악 대표성

1.1 사당 확장 및 위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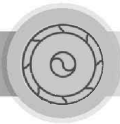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국가적 차원의 국악대제향 시행을 위해 사당·위패 중심의 전통성 유지
- 국가적 규모를 고려해서 사당 확장 필요 : 현재 3칸 → 향후 7칸
- 위패 모시는 대상 관련 법규는 없음. 하지만, 종묘(세종대왕) 및 영동묘소(박연) 등 타지자체에서 모시는 위패는 그 지역과 국가적 관리 무형문화로서 서로 존중하고 지켜줘야 하는 예의임



1.2 묘역 주변 역사성 담긴 벽체기념조형물 조성

- 국가적 차원의 참배와 대제향을 고려할 때, 송흥록 선생일가와 제자에 국한하는 것은 제한적임
- 국악5대악성 '우륵, 왕산악, 박연, 옥보고, 세종대왕' 및 우리음악 명창 시대사적 기록과 활동 모습이 담긴 벽체기념조형물 형태로 묘역 주변에 추가설치하여 국가대표성 위상 고취





1.3 국악대제향 중앙정부 기관장 초청 국가대표화

- 국가적 규모화 확립을 위해 대표성 있게 리뉴얼 확장
- 초청인사 :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국립국악원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남원시장, 공영방송국, 중앙신문사, 전북대학교 총장, 전남대학교 총장,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장 등 주요기관장 참여



1.4 국악의성지 대상' 조례 제정 및 시행

- 전국 국악인을 대상으로 국악의성지 올해의 국악인 수상 제도화 마련하여 수준 격상
- 상금 예 : 1개 부문에 2천만원
- 부문 예 : 3개 부문(판소리, 기악, 무용)
- 공로패 추가 시상 : 국악의성지를 국가적 수준으로 격상하고 위상을 갖추는데 기여한 분



1.5 국악의성지 자문단 위촉 및 지원조례 제정

○ 자문단 위촉 이후 자문활동 참여시 자문료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

- 자치조례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제17조(위원회) 규정은 있지만, 자문단 구성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기에, 필요시 특정 역할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하는 규정 신규 제정 또는 기존 조례에 문항 추가 필요

[표 27]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자문단 규정 추가(예시안)

제00조(자문단) 국악의성지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남원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악의성지 발전계획 조사·수립 자문
2. 국악연구소 설립·운영 자문
3. 대내외 관계자 네트워크 교류활동 참여
4. 명창발굴 및 섭외 자문 등

제00조(자문료 및 수당 등) ① 시장은 자문단에게 자문의뢰 안건에 대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등 자문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지급 등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00조에 따른 소집 회의에 참석한 자문단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체재비, 숙박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표 28] 「남원시 국악의 성지 자문단 자문료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예시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남원시 국악의성지 자문단에 대한 자문료 지급 등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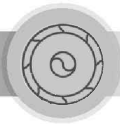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제2조(자문의견서의 기본형식) 서면으로 제출하는 자문의견서의 기본형식은 자문대상과 내용 등을 감안하여 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자문료 산정기준) ①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00조에 따른 자문료는 안건 1건당 최소 20만원을 지급하며, 그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의견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금액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자문 건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건당 10만원씩 최대 30만원
2. 자문의견에 대한 선행연구 또는 유사 자문사례가 없는 경우: 20만원
3. 자문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로 회신한 경우: 10만원
4. 자문의견이 탁월하여 남원시 국악의 성지 발전정책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산 범위에서 추가 지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의견서가 제2조에 따른 기본형식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문 내용이 요청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악관련 많은 협회·단체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공익적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자문가 소수 구성
 - 국악은 각 유파가 나뉘어 있고 단체도 다양해서 사익적 역할로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함
 -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문가 특징 : 국가산하, 남원시산하, 대명창, 학계소속 등

- 자문단 역할
 - 국악의성지 발전계획 조사·수립 자문
 - 국악연구소 설립·운영 자문
 - 대내외 관계자 네트워크 교류활동 참여
 - 명창발굴 및 섭외 자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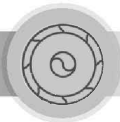
2

우리음악 전통성

2.1 국악연구소 조성

- 전국적인 국악전문 학예기능 역할 수행
 - 역사기록 인문학 조사, 국제 세미나, 디지털도서관, 인물발굴 및 섭외, 학술교류, 자체연수 기능
- 명창 배출 프로젝트 기획
- 전시관 기념물 수집, 수장고 보관 및 기획 전시 운영
- 전국의 국악 대학교 및 국악원 통합 세미나, 학술대회포럼 운영
- 국악의 국내외 홍보 활동
- 고유한 지역국악(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민요) 및 관련부문(무용, 기악, 창극 등)에 대해 위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수행가능한 조직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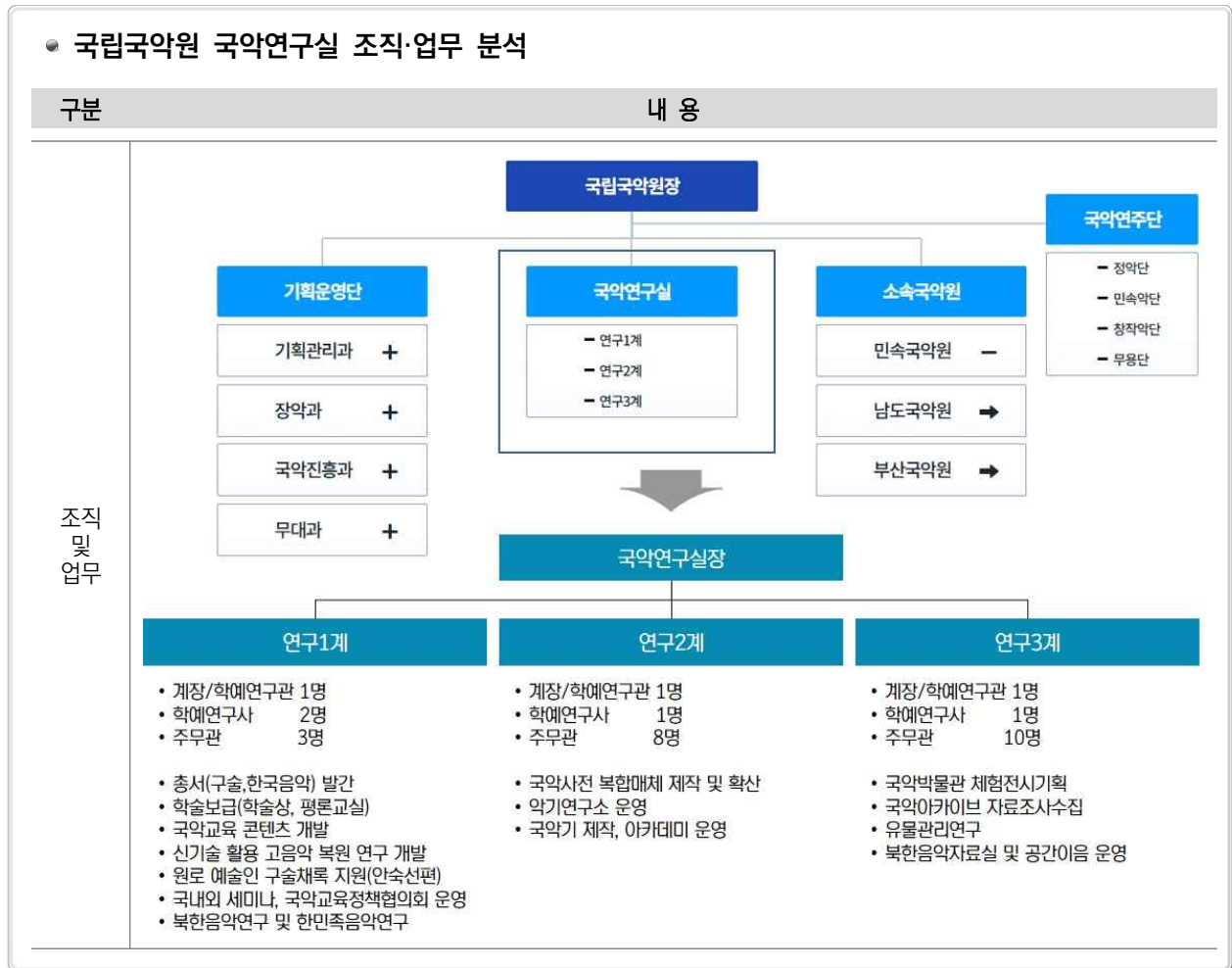


□ 국악연구소 조성 연계되는 ‘상위 관련 계획’

●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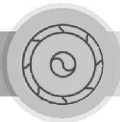
구분	내 용
K-컬처	- 한국관광의 프리미엄화 (고급 문화체험) 한옥 호텔, 고급 한식, 명인·명사와의 만남 등 한국 고유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희소성 있는 콘텐츠 발굴 - 문화시설과 연계한 다도체험·국악공연 감상과 같은 고궁, 박물관, 미술관 내 고급관광 특별문화체험 콘텐츠 개발 - 시장별 방한지출 의향이 높은 소비층 대상 고급관광 상품
규제 혁신	마이스(MICE) 산업 유치전략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 (유치전략 다각화) 유사나(USANA) 기업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부터 하이브리드·소규모 마이스 행사까지 전방위적 유치를 위한 마이스 지원 제도 개편(지원기준 완화, 대규모 외국인 유치 국제회의 인센티브 등)
체류형 관광 모델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콘텐츠 지원) 전통문화, 명사 등 지역의 고유한 스토리를 활용한 지역 관광상품 개발 - 지역 고택, 마을회관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이색 숙소 조성 지원 및 지역 숙박 여건 개선 (예) 전통문화(문경새재)와 고택을 결합한 한옥스테이 문경 ‘화수헌’ - 방문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광지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 재방문을 유도하는 관광주민증 발급(’22년 2개 → ’27년 총 30개소)
독창적 매력 관광	- 지역 특화 광역관광개발로 ‘하루 더 쉽이 있는 여행환경’ 조성 (소권역별 전략) [남서권] 남도문화 예술지대 구축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 지대 형성, [남동권] 해양문화 체험 휴양지대 형성
	- 관광거점도시 확대 - 지역의 문화콘텐츠 자산(음악, 예술, 해양레저, 스포츠)을 활용 한국 관광을 대표하는 관광매력 도시 육성을 위한 ‘관광거점도시’ 추가 선정 추진(’24년~) - 기존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5개 관광거점도시 ‘25년까지 사업 완료
	- 지역 주도형 지역관광개발 - 지역 주도적으로 관광콘텐츠 발굴 및 개발계획을 수립, 지역 특화 주제·관광자원, 마케팅 등 바탕으로 입체적 관광개발 추진(계획공모형 관광개발 : ’19~’21년 15개 지역 선정, ’24년 추가 지원 추진)
	노후 관광지 재생 - 관광트렌드 변화 및 시설 노후화로 방문객이 감소한 관광지의 시설·기능 개선을 통해 지역관광거점으로 재도약(’24년~) - 전국 225개 관광지 중 일부·전부 준공하여 운영중인 곳은 188개, 이중 방문객이 감소중인 곳은 85개
문화 유산 관광	문화유산 방문코스 개발·보급 - 이야기 발굴, 콘텐츠 개발 등 문화유산 방문코스(10개) 활성화 및 지자체·코레일·여행사 협업 관광상품화 - 왕가의 길, 천년정신의 길, 가야 문명의 길, 관동 풍류의 길, 백제고도의 길, 산사의 길 등 (예) ‘관동풍류 바다열차’, ‘선교장 달빛 방문’ : 해설사와 동행하며 전통예술 공연 관람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 문화유산과 미디어·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체험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관광자원으로 육성(매년 8~10개소)
 조선왕릉문화제 (왕릉음악회)  문화재야행 (인천개항장문화재야행)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수원 화성)	

□ 국립국악원 연구기능 분석



□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조직 특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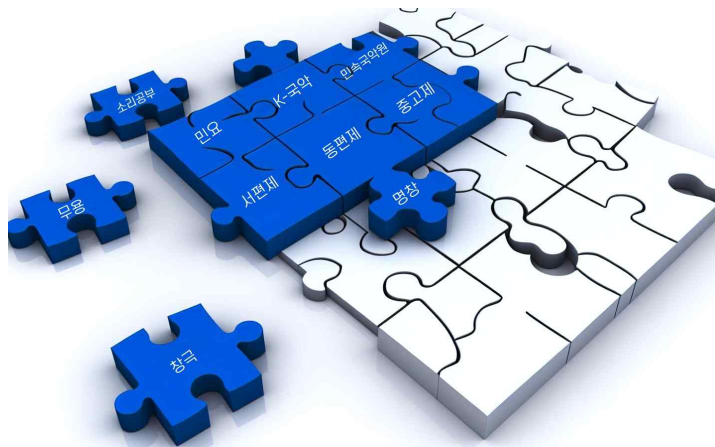
- 국립국악원 내 국악연구실(총 29명) 구성 : 실장 1명, 팀장 3명, 학예연구사 4명, 주무관 21명
- 주요 업무 : 총서 발간, 국악교육 보급, 고음악·악기 복원 및 연구, 국악박물관 체험, 국악아카이브 자료관리, 북한음악 연구
- 업무 특징 : ① 우리음악의 전반적인 문헌·악기 연구와 향유에 중점
 ②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에서 수행하기에는 우리음악의 다양한 지역특색과 인물·유파 등 연구대상의 범위가 넓고 깊기 때문에 이를 다루지 못하는 한계
 ③ 이로 인해 우리음악의 총체적·포괄적 기능유지 측면에 한계



□ 연구기능 발전방안 제언

1 전문적 기능 역할 : 국가 국악연구소 설립

- 국악은 크게 궁정에서 불리는 아악(정악), 민간에서 불리는 (민)속악으로 구분
- 우리에게 친숙한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민요 등은 민속악으로서 지역고유의 특색을 갖추고 수많은 명창과 유파를 만들고 제자가 계속해서 양성되고 있음
- K-국악체험과 창극공연 등 앞으로 우리음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특색을 살려내고 잊혀진 명창과 소리를 살려내는 전문국악연구 기능이 필요
- 또한 국악에는 판소리 이외에도 기악, 무용, 창극 등이 있으며, 수많은 명창과 유파가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의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업무로는 이러한 국악자원과 문화로까지 심도깊은 연구와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기에 한 조직의 부속실이 아닌, 자체적인 국가국악연구소 설립이 필요



2 국악진흥법 : 2024.07.26.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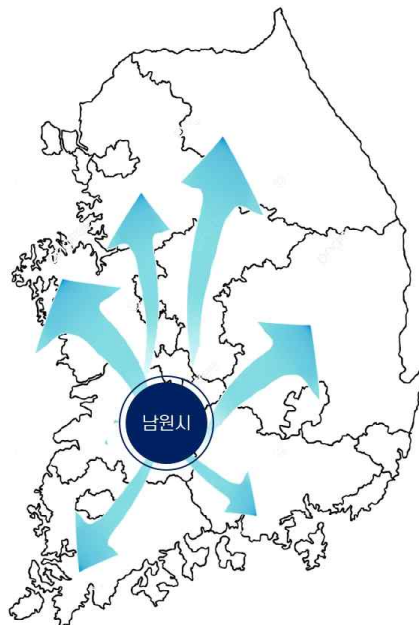
- 2004년 「전통문화진흥법」 발의된지 20년만에 국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여할 근거를 마련한 「국악진흥법」 2024.07.26. 시행
- 국악진흥법 내 국립국악원 관련 조항에 대해,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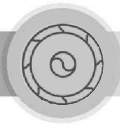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조항	내용	검토결과
법 제15조	• 국립국악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악을 보존·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국악원을 둔다.	“사무” 의미 : 문서 기록·보관, 행정·경영활동 ⇒ 전문적 기능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관리한다는 의미로 보임
	② 국립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의 조사 및 정책 연구 2. 국악 교육 및 자료 개발 3. 국악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4. 국악자료의 수집·제공·전시 및 관리 5. 국립국악원 공연 제작 및 국내외 보급 6. 국립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7. 그 밖에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	앞에서 분석한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조직·업무’에 관한 항목규정 ⇒ 연구대상 깊이·넓이 보다는 총체적, 포괄적 기능유지와 관리측면에 한정

- 위의 검토결과에 언급한 것처럼, 국립국악원 내 소속부서에서 방대한 국악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있게 전문연구하는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음
- 문화향유와 보존에 중점을 둔 ‘사무 관장 기관’ 이외에 국악에 전문적이고 깊이있는 연구기능 조직체 「국가 국악연구소」 필요

3 남원시 지리적 특징 : 국악 발전 중심지

- 남원시는 동편제의 고장으로서 우리나라 5대악성 중 한분이신 악성옥보고(거문고 부문)를 비롯해서 가왕 송홍록, 박초월, 그리고 현대에는 안숙선 명창 등이 태어나고 머무르며 국악문화가 지역에 스며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 누구나 알고 있는 국악의 고장임
- 또한 남원시는 쾌청하고 광활한 자연공간인 지리산 일대에서 판소리 발성 터득과 연습을 위해 예로부터 명창과 제자들이 모여서 소리공부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많은 명창은 지리산 일대에서 득음을 하는 지역
- 남원시 하면 춘향전, 흥보가 등이 떠오르며 이러한 판소리는 창극으로 재탄생하여 미래에는 글로벌 K-창극 시대를 열어갈 준비가 갖춰져 있음
- 지리산 운봉읍 일원에 국악의성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국악대제향을 지내고 있고, 주변에 악성옥보고 터전, 송홍록 생가, 명창 묘역 등이 분포되어 있으며, 남원시의 동편제를 중심으로 인접지역의 서편제, 중고제, 민요 등 국악 교류·확산에 중추적 역할 수행가능 위치





2.2 국악명인 역사기록 목록화

- 전국 국악명인 역사기록 인문학 조사 및 목록화 책자 제작
- 우선은 국악의성지 묘역 및 위패에 모셔진 명창 대상으로 역사인문학 목록화 시행
- 디지털 DB 업로드 및 디지털 도서관 아카이브 구축
- 판소리의 악보화 제작
- 판소리의 리메이크화 제작
- 명창 연습결과물 발표회 자료 보관



2.3 국악 학술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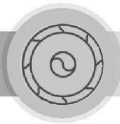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국악 학계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
- 국악의성지 국악연구소에서 ‘국악의성지 학술저널’ 제작하여 별도의 회원등록 및 학술대회 추진
 - 학술저널 편집위원회 및 회원조직체 구성
 -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1년 2회)



2.4 이동식 학술대회 프로그램

- 국악의성지 : 본식, 학술대회
- 동편제마을 : 식사, 다과, 숙박 등 워크숍
- 악성옥보고 : 득음연습장





2.5 국악전용 수장고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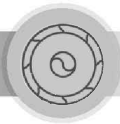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전시관 기념물 수집, 수장고 보관
- 다양한 명창의 많은 기념물 보관하여 역사자원화
- 전시관 인접한 곳에 수장고 위치 조성
- 기념물 및 전시물품 수시로 기획전시 하기위한 운반차량 드나들 수 있는 상차·하차장 마련
- 수장고 내 습도, 온도 등 일정유지 시스템 완비



2.6 득음실 및 소리공부실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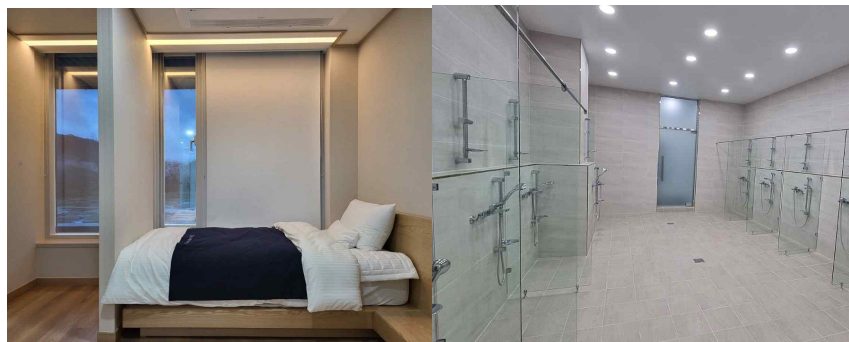
- 실내 연습장 내에 개인득음실, 2~3명 소리공부실 등 조성
- 현재 전시관 2층에 비치되어 있는 1인실 득음부스 3개소는 추후 득음실 전용공간 조성시 함께 활용
- 국악학생 트렌드에 맞춰서 실내공간의 냉난방시설 완비 공간으로 조성
- 실외에 조성시에는 나무그늘막, 정자 등 형태로 자연경관감상과 휴식을 겸하도록 설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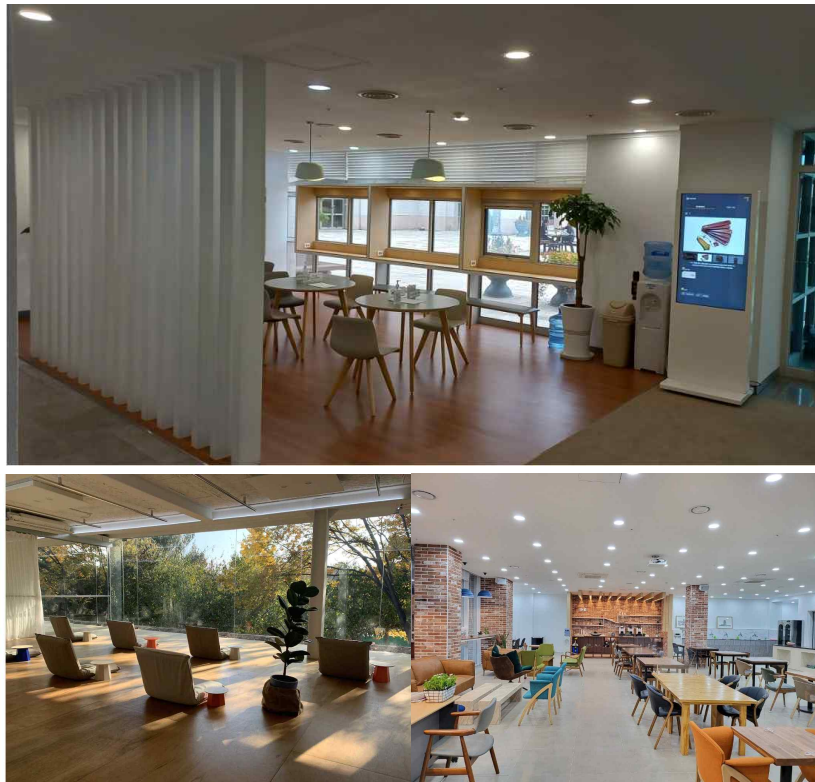
2.7 창제작 교류 레지던스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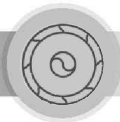
- 30~40명 숙박가능 공간 요구,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준에 따른 공간 조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서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151평)미만 조성 가능
- 1개 방에 5~6명 숙박(15평)하는 공간으로 조성 등 건축설계 방식에 따라서 가능
- 숙박장소의 안전과 개인생활보호를 위해 CCTV 다각도 설치 및 보안요원 상시 순찰운영



2.8 명상카페 및 숙식 등 휴게실 조성

- 국악소리공부 및 공연연습 등 특성상 국악의성지 내에서 숙박 및 숙식 모두 해결 필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서 ‘휴게음식점·제과점 300㎡(90평) 초과시 조성 가능
- 명상카페 및 숙식을 위해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90평 이상 크기로 조성
- 옛 명창선생님들의 육성, 기악 및 퓨전국악 등 다채로운 국악음향을 들으며 쉴 수 있는 국악인들의 힐링장소로 운영
- 일반 방문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열린공간으로 운영하되 국악인들만의 자리지정석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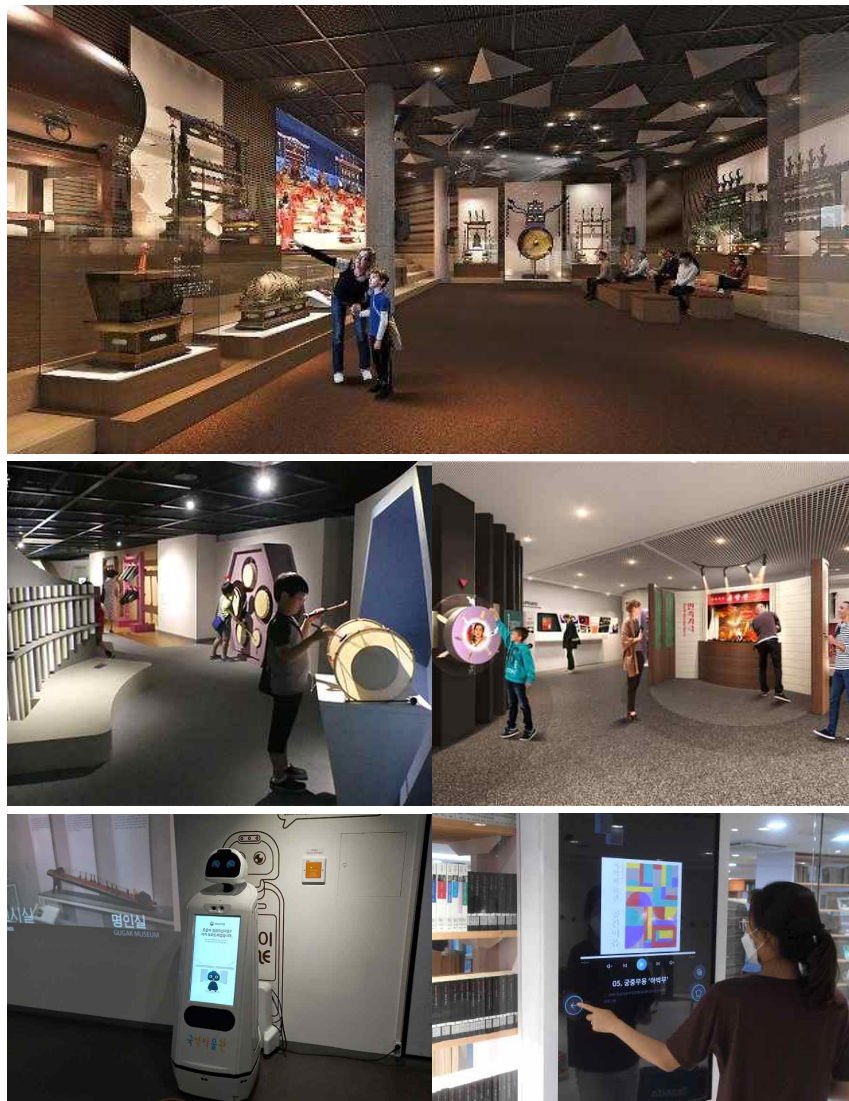


3

우리음악 대중성

3.1 디지털 입체전시관 리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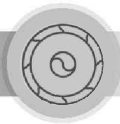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기악(단소,가야금,거문고,장구 등) 디지털 입체영상 구현 및 자동연주작동 시연
- 전시관 이동동선 플로우 디지털 구현
- 디지털 키오스크에 전시관 배치도, 기악 위치, 도서자료 등 탐색 구현
- 로봇 안내원 및 로봇 큐레이터 도입



□ 디지털 입체전시관 리뉴얼 관련 재정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사업명	내 용
2024 예산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 사업목적·내용 - 전통문화 창업 활성화, 전통문화 해외진출 지원, 전통문화 융합 활성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 사업기간 - '20년 ~ 계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비율 : 70~100% - 지원금액(2024년) : 341억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 사업목적·내용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비율 : 50% - 지원금액(2024년) : 431억원 (평택 평화예술의전당건립 외 7개 시설 건립)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 사업목적·내용 -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운영, 연극교육체험관 조성 지원,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아리랑 등 전통문화유산, 공연예술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K-뮤지컬), 해외 국악공연 지원, 세계음악극페스티벌 개최 지원 등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비율 : 정액 - 지원금액(2024년) : 222억원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외 7개 사업 지원)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 사업목적·내용 -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립 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 박물관·미술관 협력 강화, 박물관·미술관 주간,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개최,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 운영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비율 : 정액, 50% - 지원금액(2024년) : 129억원 (사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 외 5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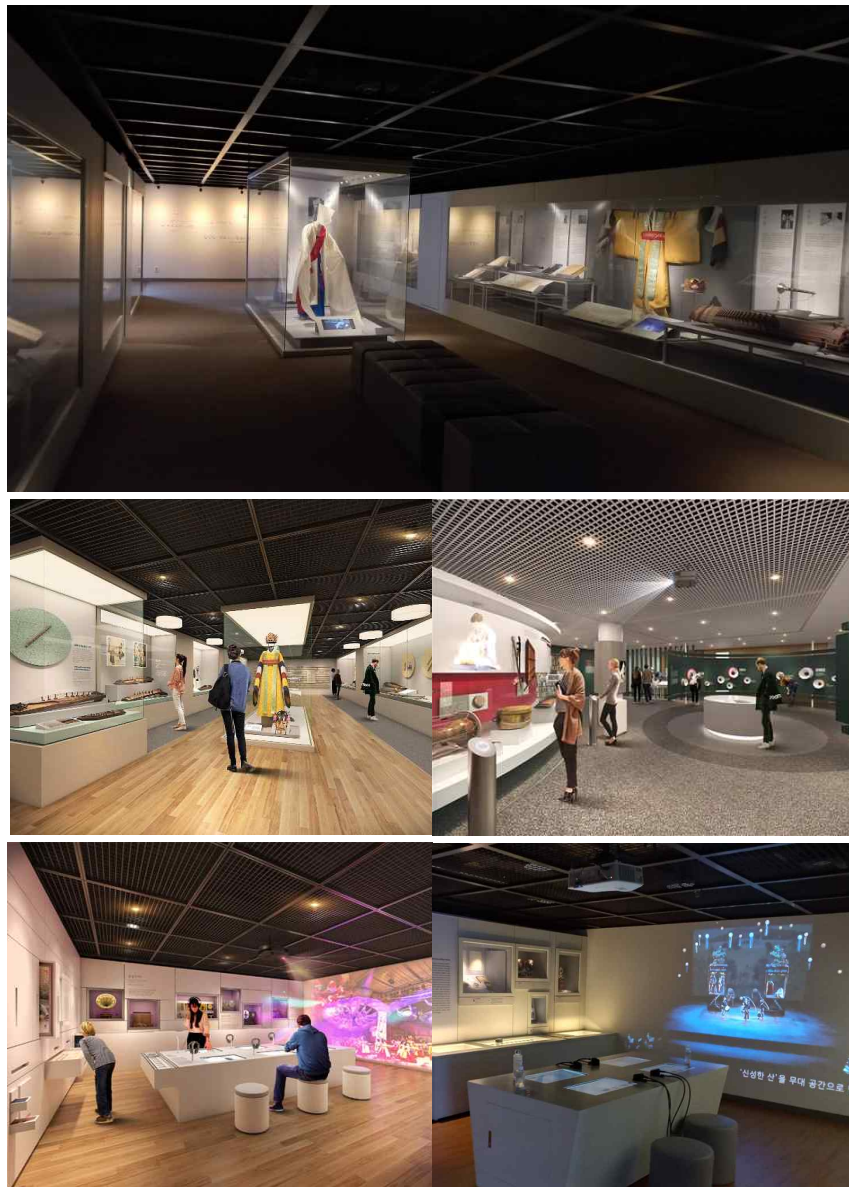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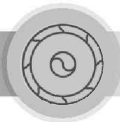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사업명	내 용
2024 예산	AI미디어·문화 향유 확산	• 사업목적·내용 - 초거대 AI기반 영상, 이미지, 음원, 텍스트 생성 및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미디어, 출판, 광고, 디자인 등 창작 지원 • 사업기간 - '24년 ~ '27년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초거대 AI 기업, AI 전문기업, 창작 서비스 기업 등 - 지원비율 : 100% - 지원금액(2024년) : 9,000백만원 = 초거대 AI 기반 창작 6개 서비스 × 1,500백만원
	뉴미디어활용 과학문화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확산	• 사업목적·내용 - 대중 접근성이 높은 뉴미디어(유튜브 등)를 활용해 국민 관심도가 높고시의성이 있는 과학이슈 및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과학문화 디지털 콘텐츠 제작·확산 지원 • 사업기간 - '24년 ~ 계속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창의재단)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지원비율 : 100% - 지원금액(2024년) : 1,500백만원 =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1,500백만원(75백만원×20건) - 지원대상 : 1인 미디어 창작자, 콘텐츠 기획·제작·유통기관 등

3.2 명창관 전시 다양화 구성

- 현재의 전시관 1층~2층 통합하여 명창관으로 리뉴얼 조성
(2층에 있는 공연연습장은 부지확보하여 신규공연장으로 이동)
- 명창 한 구획씩 기념품 추가확보 및 전시 진열
- 시대순 또는 명창유파별 구획 전개하여 전시참관 학생 및 일반인들의 국악에 대한 이해 도모
- 국악 부문별 구획 전시(판소리, 기악, 무용 부문)





3.3 기악 체험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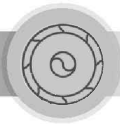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기악(단소,가야금,거문고,장구 등) 체험교육 선생님 섭외 및 예약제 운영
- 동편제 마을에서 운영중인 ‘동편제 판소리 배우기 (동편제 락 체험동)’ 연계 운영
 - 체험 내용: 판소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동편제 판소리에 대해 배워보기
 - 소요 시간: 1시간
 - 소요 예산: 1회 60만원



3.4 특색있는 소공연장 조성

- 창극 전용극장으로 조성하되 실제사용은 다목적 겸용 공연장이 되는 것이 효율성 있음
 - 연습장, 창극, 국악공연, 발표회 등
- 창극 고정된 공연으로 글로벌 상품화
 - 전세계 춘향전 오직 3개국에만 있음 : 한국 창극(판소리), 중국 무극(무용), 북한 가극(가요)
 - 국악의성지 창극공연장에서만 볼 수 있는 춘향전 등 창극 관광코스 여행상품개발
(중국인, 일본인 및 해외주재 대사관 등 연계 초청행사)
- 관객 150명 참관 가능한 규모 조성
- 2030년 달빛철도 개통과 동시에 많은 관광객의 남원방문 예상
- 이에 맞춰 남원역에서 국악의성지까지 관광투어버스 운영하여 정기적인 관광볼거리 제공
- 해외에서는 오페라와 민속춤이 관광상품화 되어 운영되듯이, 남원에서는 동편제 본고장답게 창극 공연 및 연출로 특색있는 관광상품화 창출
- 전북대학교 국악학과 학생들의 경우 공연 스태프, 기획에서 연출 등에 이르기까지 실무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에 상생운영 가능





3.5 철도관광투어 상품 개발

- 2030년 달빛철도 개통시 운영 목적의 철도관광투어 상품 개발
- 국악공연 상품 개발 : 사물놀이, 판소리, 단막극, 민요, 무용 등
- 창극 전용극장에서 흥부가 창극 예약 공연

3.6 특색있는 공연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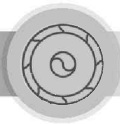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부문별 및 유파별 공연 기획 운영
 - 악성옥보고 : 거문고 공연
 - 남원시립예술단 : 연습중 오픈가능한 양상블 공연
 - 민속국악진흥원 : 국악대제향
 - 국립국악원남원 : 국악대제향 연속 기획
 - 안숙선 명창 및 제자 : 국악 유파별 공연
 - 이난초 명창 및 제자 : 국악 유파별 공연
 - 1년에 6회~10회 공연(관광수요에 맞춰 횟수 또는 공연일시(축제동시 고려) 조율)



3.7 국악공원 조성

- 다양한 명창 조형물 배치
- 명창 생전 육성 소리 구현
- 그늘막, 쉼벤치 조성
- 덕음장 올라가는 중앙계단 좌우사이드에 명창 흉상 또는 기악조형물 등 배치
- 포토존, 포토 조각공원 조성으로 일반 방문객 체류시간 확장 도모





3.8 동편제체험휴양마을 상호연계 원원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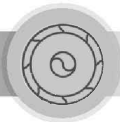
- 휴락게스트하우스 연간 6,000명 방문객에게 국악의성지 방문 홍보연계책
- 체험프로그램 연계 운영(국악 악기 체험 확대)
- 둘레길 정기행사 추진(지리산둘레길2코스 ~ 국악의성지공원)



3.9 대중적인 대규모 홍보공연 집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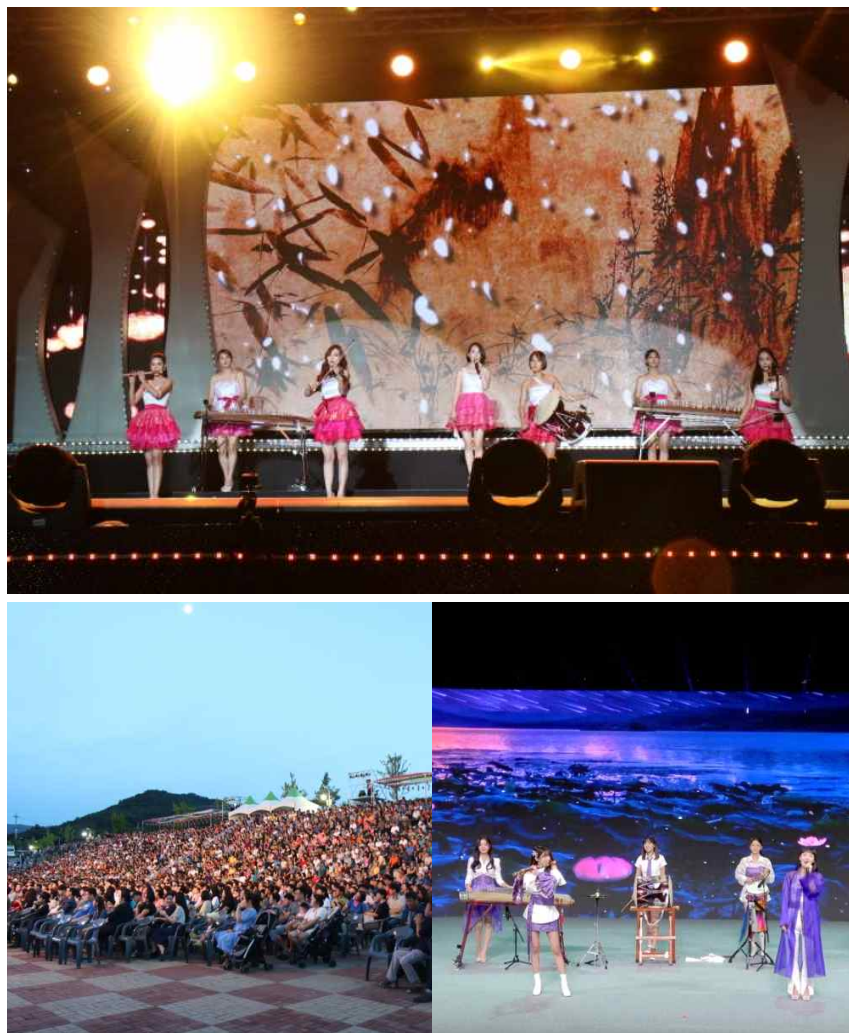
- 동편제마을 국악축제, 국악의성지 국악대제향 등 연속적인 행사 스펙트럼이 갖춰진 행사 필요
- 기존에는 국악인들만의 대제향 및 행사였던 한계에서 벗어나 대중화로 국악의 친근감 트렌드 필요
- 퓨전공연 예: 송소희, 이날치 등 젊은 국악인 스타덤에 오름
- 일반공연 예: 송가인(판소리 전공, 악성옥보고기념사업회와 친분관계 있어서 초청 연계 가능)
- 일반공연 예: 전유성(동편제마을 주민들과 친분관계 있어서 '24년부터 행사 한파트 맡기로 함)
- 후원회사 예: 현대차 정몽구재단(코로나19 이후 소원해진부분을 행사프로그램 강화로 재연계 고려)
- 전북대 국악학과 및 전남대 국악학과 등 대학교 학생들이 공연 스태프 활동하면서 공연도 하며 경제력과 실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또한 젊음의 열기·열정 발현 기대





3.10 2030퓨전국악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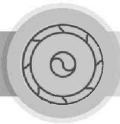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MZ세대로 불리는 2030이 참여하는 흥이 있는 퓨전국악축제로 지역사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트렌디한 국악문화 향유
- 유명한 국악인이 진행하는 공연은 아니더라도 흥겨운 노랫가락과 경쾌한 율동 등 새로운 음색 축제를 대중에게 선사함으로써 독특한 체험경험을 선호하는 MZ세대의 만족도 증대
- 정기적인 축제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축제지원으로 남원시 주변 대도시에서 수많은 관람객과 방문객이 남원시를 더 자주 찾는 친근한 문화행사가 되기를 기대



3.11 SNS 홍보마케팅 촉진

- SNS 홍보 매체 :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 동호회 등
- 남원시에서도 블로그 기자단을 해마다 모집하여 주요 관광지와 문화축제 등을 홍보해오고 있음
- 하지만, 국악의성지에 대한 블로그, 유튜브 등 SNS에 대한 방문객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남원시 블로그 기자단에 국악의성지 홍보를 특별히 별도 요청하여 홍보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활용 과학문화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확산」 사업 등 활용하여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확산에 참여할 수도 있음
- 요즘엔 MZ세대 사이에서 건전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사회교류를 하는 것이 트렌드이므로 남원시 지역 MZ세대를 대상으로 국악의성지 사진촬영 및 홍보물 제작 등 동호회 지원도 고려해볼 수 있음





3.12 랫천~국악의성지 장미·LED터널 조성

- 아름다운 생태하천 랫천이 허브밸리~동편제마을~국악의성지를 따라 흐르고 있으며, 하천 위 뚝방길은 지리산둘레길 제2코스로 정비가 되어 있어서 걷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춘
- 특히 동편제마을~국악의성지는 500미터 거리로 인접해 있고 둘레길이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결된 느낌을 갖기에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상태로서 이 구간을 장미터널 또는 LED터널로 연결하여 방문객이 양방향으로 오고갈수 있는 소통통로 역할을 구현해주는 것이 필요
- 체험휴양마을 기능을 갖춘 동편제마을, 국악인 대제향 기능을 갖춘 국악의성지, 이 두 곳의 연결로 방문객이 더 많이 찾아오고 서로 활력을 회복하기를 기대



3.13 국악의성지 출입교차로 안내입간판 설치

- 국악의성지 진출입로는 경사면 차로로 경사면에서 150m 내려오면, 앞에는 버스정류소와 아스팔트 차량도로 그리고 램천하천의 교차지점이고, 진출입로는 경사면으로 올라가 있어서 국악의성지를 네비게이션 없이는 찾을 수 없는 도로상태임
- 주변 관광지 방문객 누구나 국악의성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이정표, 안내입간판 필요
- 입간판은 단독으로 설치되는 사인물로서 건물의 위치나 장소를 알려주는 옥외 사인물임
- 제작시에는 스테인레스 스틸을 성형 혹은 지주목을 설치하여 지정색 커팅시트로 부착 마감하고, 설치시 주변의 장애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설치상황에 따라 크기를 변경할 수 있음





사업타당성 분석

- I. 법률적 타당성 검토
- II. 기술적 타당성 검토
- III. 경제적 타당성 검토
- IV. 파급효과 분석

제6장

사업타당성 분석

제1절 법률적 타당성 검토

1 대상지내 법률별 규제사항

- 국악의성지는 도시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표 29] 대상지내 법률별 지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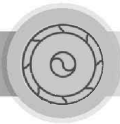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관련법률	지정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 각 지정사항별 주요 행위가능사항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표 30] 행위가능사항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제과점 규모 조건)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과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규모 조건)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규모 조건) •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규모 조건)	•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 적용 •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 적용 •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 완화 적용



2.2 문화재보호법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
 - 건설공사 인·허가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 우려가 있는 행위 여부 검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 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한
 -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 보존에 영향 우려가 있는 시설 및 변경 등 행위
-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제한
 - 문화재 시설의 신축·개축, 표지판, 울타리 등 설치 행위

3

법률적 타당성 검토

- 국악의성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정한 면적 조건을 준수할 경우 사업계획안의 시설 조성 가능
 -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제곱미터 초과 시 건축가능
 - 다중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미만 시 건축가능
 - 교육시설, 수련시설, 묘지시설, 야영장 : 조건제한 없이 건축가능
- 국악의성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보호 범위이지만 건설공사의 행위가 문화재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근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안의 시설 조성 가능
 - 보조지역 거리 범위 : 동편제마을 내에 있는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500미터 거리 끝자락에 위치하여 영향력이 거의 없음
 - 입지여건 : 동편제마을과 국악의성지 중간지역에는 람천 하천 및 지리산둘레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자연환경이 갖춰진 지역으로서 서로의 영역이 보호 지켜지고 있으면서도, 대형차량의 진출입 도로는 국악의성지 앞에서 지방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동선이기 때문에 동편제마을에 영향력이 거의 없음
- 만일, 국악의성지 옆 농지를 추가매입 해야할 때에는 「농지법」에 의해 생산관리지역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필요할 수 있음

제2절 기술적 타당성 검토

1 시공부문

1.1 연구제안시설

- 공간구상 ALT1 및 ALT2 대상 분석
 - 공간구상 분석에서 제시한 공간배치 ALT1(전시관·묘역 리뉴얼) 및 ALT2(야외공연장 부지에 국악 연구소 건립)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
 - ALT3(창극전용극장, 수장고, 창제작레지던스) 대안은 부지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남원시에서 조성중인 남원시아트센터 또는 국악의성지 인근지역시설을 사용하는 방식, ALT1(전시관·묘역 리뉴얼) 대안을 통해 기존시설 활용하는 방식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본 연구의 타당성 검토는 공간구상 ALT1 및 ALT2 대상으로 분석하도록 함

1.2 지형영향

- 예측결과
 - ALT1(전시관·묘역 리뉴얼)과 ALT2(야외공연장 부지에 국악연구소 건립) 건립을 위한 공사시 및 운영시 지형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나 현재 지형의 경사가 완만하여 지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저감방안
 - 지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더라도 최대한 현재 지형을 이용한 지반고로 계획하는 등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도록 계획에 반영

1.3 토사유출

- 예측결과
 - 지형의 영향부문과 마찬가지로 현재 지형의 경사가 완만하여 부지정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토공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물 터파기후에 발생하는 토량은 가능한 부지내에서 조정부지 등에 활용



하여 인공적인 토사유출 최소화 도모

- 강우기 공사시 일부 토사유출 가능

- 저감방안

- 공사중에 발생가능한 강우시 토사유출 예방을 위해 가배수로, 부직포 등의 설치로 유출에 대하여 대응하도록 계획하고, 최대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 시행

1.4 사면발생

- 사업대상지는 이미 국악의성지로 조성이 된 부지환경으로 건축물 및 통행차로와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면발생 대상 아님
- 사업대상지 뒷산인 황산의 사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미 조치가 처리되어 있으며, 또한 조성하려는 건축물의 대상부지인 야외공연장과 300미터 거리가 있어서 사면발생 위험 낮음

2

환경영향

- 조성공사 시행 등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 Leopold, L.에 의해 만들어진 행렬식 대조표법인데, 이 방법은 공사시행에 관한 정보를 정성화된 대조표로 검토하여 항목별로 환경의 영향정도를 분석하는 방식
- ALT1(전시관·묘역 리뉴얼) 및 ALT2(야외공연장 부지에 국악연구소 건립) 건립으로 인한 환경영향 요소는 공사 및 운영관리단계로 구분하고, 영향정도는 지형적·인문적 환경조건 등을 고려
- 각 분류에 따른 환경적 요건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 ALT1(전시관·묘역 리뉴얼) 및 ALT2(야외공연장 부지에 국악연구소 건립)을 건립함에 있어서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은 대체로 미약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각종 저감방안 마련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표 31] 행렬식 대조표

구 분		기상	대기질	악취	수질	토지	지형지질	동식물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인구주거
공사시	절·성토		▲		▲		▲	▲		▲	▲	▲
	다짐·정지		▲			△	△			▲		
	관로공사				▲							△
	조경공사					◎		◎				□
	포장공사		▲		▲			▲		▲	▲	△
	건축공사		▲							▲	▲	△
운영관리시	대기·수질 오염											
	악취발생											
	생활폐기물									▲		
	소음									▲		
	지역개발촉진					△			◎		□	◎

※ 행렬식 대조표 기준

◎ : 긍정적 영향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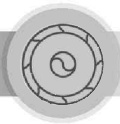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 비교적 긍정적임

△ : 긍정적이나 크기가 적음

● : 부정적 영향이 큼

■ : 부정적 영향이 다소 있음(보통 정도)

▲ : 부정적 영향은 있으나 미미함



제3절 경제적 타당성 검토

1 사업비 산정

1.1 사업비 산정 기준

1) 공종별 공사비

- 신축 공사비 산정은 주요 공정별로 개념설계 단계의 개략견적 방법인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적용함

[표 32] 공사비 분석 내용

분석항목	주요내용	활용대상	비고
• 단위면적당 공사비	• 공사유형에 대한 단위당 공사비	• 사업계획 수립	적용
• 공종별 공사비	• 건축물을 구성하는 건축, 설비, 전기, 통신, 부대 시설 등 공종별 공사비	• 적정공사비 추정 • 기본설계 계획	
• 세부공종별 공사비	• 세부공종(가설공사, 기초공사, 철근공사, 미장공사 등)에 대한 공사비	• 주계약자공동계약 • 상세설계 계획	
• 공사원가구성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구성 요소에 대한 공사비	• 예정가격의 적정성 • 원가계산제도 개선	
• 주요 건설자재 투입	• 철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투입비 및 투입량	• 자재 소요량 예측 • 자재 수급여건 검토	
• 세부공종별 주요품목비	• 세부공종이 주요품목별 세부공종 상 비중	• 상세설계계획 • 물가변동 예측	

자료 : 2017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조달청, 2018

- 공사비의 산정은 조달청에서 발간된 “2017년 유형별 공사 현황(조달청, 2018.6.)”의 복지시설 공사비 비중을 참고하여 단위면적당 공종별 공사비를 산정
 - 공사비는 설계가(공사비 예산)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포함
 - 신축공사비(건축, 설비, 토목, 조경) 기준 자료로써, 부대공사비(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와 부대경비를 제외한 총 공사비

- 건설공사비지수 중 건물 건설 및 보수의 최근 6년간 연차별 증감율인 6.08% 적용

[표 33] 건설공사비 지수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건설부분 (2015=100)	111.90	116.21	118.53	131.71	145.45	151.94	128.91
증감율	4.60%	3.85%	2.00%	11.11%	10.44%	4.46%	6.08%

자료 : 건설공사비 지수,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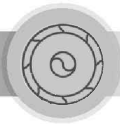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연도별 건설공사비지수(통계청, 건설공사비지수 2015년 기준)를 적용한 후 2024년 현재 가치화를 적용한 값 산출

[표 34] 복지시설 단위당 평균 공사비(2017년 유형별 공사현황, 조달청, 2018)

구분		연구소①	연구소②	연구소③	연구소④	연구소⑤	적용값
공사기간		540일	420일	720일	480일	660일	
연면적		10,675㎡	4,263㎡	10,135㎡	6,300㎡	3,799㎡	
건축규모		지상4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3층	
총공사비(백만원)		27,276	10,385	25,663	16,653	9,693	
단위 면적당 공사비 (원/㎡)	건축공사	1,152,744	1,416,199	1,122,825	1,363,515	1,376,801	1,833,086
	기계공사	521,069	363,680	322,443	530,866	238,045	563,171
	전기공사	356,992	393,226	418,778	408,659	431,649	572,633
	통신공사	150,938	151,261	274,312	106,283	226,841	259,238
	소방공사	102,744	39,648	93,064	87,685	76,398	113,865
	부대시설	270,655	71,936	300,778	146,410	201,932	282,629
	소계	2,555,144	2,435,952	2,532,204	2,643,420	2,551,669	3,624,626

자료 : 건설공사비 지수, 통계청

- ALT2(야외공연장 부지에 국악연구소 건립) 공사비 : 국악의성지에 국악연구소는 지상2층 높이 (현재 전시관 2층과 동일)로 주변 시설과 층고를 동일하게 하여서 연면적 2,000㎡ 건축하는 가정하에 건축물 공사비 7,249,251,410원 예상



○ ALT1(전시관·역) 리뉴얼 사업비 산출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공지된 타지자체 전시관 사업비 참고
- 타 지자체 전시관은 0.58백만원/㎡ 예산 사용

[표 35] 타 지자체 전시관 사업비

사업명	시설규모	사업비	단위 사업비/㎡
서천군조류생태전시관 리뉴얼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2,049㎡	1,258백만원	0.72백만원/㎡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전시관람 보조물 및 전시안내 콘텐츠 설계·제작·설치	2,053㎡	1,462백만원	0.71백만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홍보전시관 리뉴얼	277㎡	200백만원	0.72백만원/㎡
도라산평화공원 전시관 리뉴얼	149㎡	98백만원	0.66백만원/㎡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리뉴얼 및 예술창작작품 제작·설치	414㎡	88백만원	0.21백만원/㎡
평균 단위 사업비/㎡			0.58백만원/㎡

- 국악의성지 리뉴얼은 위의 ㎡면적 단위당 사업비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산출

[표 36] 국악의성지 ALT1(전시관·묘역) 리뉴얼 사업비

사업명	시설규모	단위 사업비/㎡	사업비 산출
국악의성지 ALT1(전시관·묘역) 리뉴얼 제작·설치	1,350㎡	0.58백만원	788백만원

○ 총 사업비 : 80억원 예상

- ALT1(전시관·묘역 리뉴얼) + ALT2(국악연구소) 공사비 + 토목공사 : 약 80억원 예상

2) 부지 매입비

- 부지는 현재 남원시 소유로 부지매입에 따른 비용은 발생되지 않음
 - 공간구상 ALT1(전시관·묘역 리뉴얼) 및 ALT2(야외공연장 부지에 국악연구소 건립)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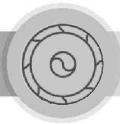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3) 기타 사업비 산정 기준

- 기타 사업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및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설계·감리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산정하였으며, 토목공사비는 관련 문헌자료 및 전문가 자문을 참조하여 작성

[표 37] 기타 사업비 산정 요율

구분		제2종(보통)			비고
		상급	중급	기본	
설계	50억원까지	5.20	4.33	3.46	
	100억원까지	5.07	4.22	3.38	
감리	50억원까지	1.18			
	100억원까지	1.14			
시설부대비	50억원까지	0.27			
	100억원까지	0.25			

- 설계비
 - 설계비는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하여 직선 보간법으로 요율을 산출하였으며, 공사비에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설계비를 산정
- 공사감리비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설계감리비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직선보간법으로 산출하였고, 공사비에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공사감리비를 산정



○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으며, 건축부문 요율에서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을 적용 준수
- 시설부대비의 항목은 공공요금과 사용기계 및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공사감독 및 재산취득에 따른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임금, 공사현장 도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 체재비 및 피복비,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수수료, 재산취득에 따른 감정료, 측량수수료, 공사계약 수수료, 공사감독에 따른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시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등이 포함

[표 38] 건축물의 종별 구분

종별	건축물의 종류
1종(단순)	• 가설건축물 • 창고시설(하역장) •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2종(보통)	•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서관 제외) • 공장,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공공용시설(발전소, 방송·통신시설, 촬영소 제외) • 묘지관련 시설(화장장 제외),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3종(복잡)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도서관 • 운동시설 • 공공용시설(발전소, 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 묘지관련 시설 중 화장장 •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1.2 사업비 산정 결과

[표 39] ALT1 및 ALT2 단위당 평균 공사비 산정

구분		기준	단가(원/㎡)	금액(원)	비고
건축연면적		2,000㎡			
공사비	토목공사	2,000㎡	87,000	174,000,000	ALT2
	건축공사	2,000㎡	1,800,000	3,600,000,000	
	기계공사	2,000㎡	600,000	1,200,000,000	
	전기공사	2,000㎡	600,000	1,200,000,000	
	통신공사	2,000㎡	300,000	600,000,000	
	소방공사	2,000㎡	100,000	200,000,000	
	부대시설공사	2,000㎡	300,000	600,000,000	
	소계			7,574,000,000	
	리뉴얼			426,000,000	ALT2
	소계			8,000,000,000	
용역비	실시설계	800,000,000	4.29%	343,200,000	
	공사감리		1.18%	94,400,000	
	시설부대비		0.28%	22,400,000	
	소계			460,000,000	
총 사업비				8,460,000,000	

자료 : 건설공사비 지수, 통계청

○ 총 사업비 8,460,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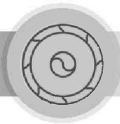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ALT1(전시관·묘역 리뉴얼) + ALT2(국악연구소) 공사비 + 토목공사 + 용역비

- 공사비 : ALT1(전시관·묘역 리뉴얼) 426,000,000원

ALT2(국악연구소) 7,574,000,000원

- ALT1(전시관·묘역 리뉴얼) 만의 공사비 및 용역비 합계는 약 5억원 예상

ALT2 포함 총 사업비는 약 85억원 예상



2

경제적 타당성 검토

2.1 타당성조사의 방법론

- 남원시 운봉읍 국악의성지에 ALT1(전시관·묘역 리뉴얼) 및 ALT2(국악연구소) 건립의 경우 공익성 중심의 시설로서 전문 국악기능 강화와 함께 관광지로도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설
- 본 연구에서는 공익적 측면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
- 경제성 분석기법은 어떠한 사업의 능률성 혹은 효율성(efficiency)을 평가하는 데 적용되는 방법
 -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된 여러 대안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대안을 택하기 위한 사전 분석방법
 - 어떠한 사업의 타당성을 수행하는 방법은 사업의 규모, 성격 및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비용편익분석이 많이 활용

1) 비용·편익비(B/C Ratio : Benefit Cost Ratio)

- 비용·편익비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
- 비용·편익비는 현재가치로 환산된 비용·편익비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할인율이 필요
- 일정의 할인율(자본의 기회비용)에서 할인하여, 사업기간 중 편익의 현재가치총액과 비용의 현재가치총액의 비율을 계산하는 지표로써, 다음의 식으로 산출되며, B/C Ratio가 1보다 클수록, 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

$$B/C Ratio = \sum_{t=0}^T \frac{B_t}{(1+r)^t} / \sum_{t=0}^T \frac{C_t}{(1+r)^t}$$

2) 순현재가치법(NPV : Net Present Value)

- 순현재가치법은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가늠하는 척도의 하나로서 현재가치로 환산된 장래의 연도별 편익의 합계에서 현재가치로 환산된 장래의 연도별 비용의 합계를 뺀 값
- 순현재가치는 대안선택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산이 용이하여 공공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

- 한편 일정의 할인율(자본의 기회비용)로 할인하여 사업 기간 중에 편익의 현재가치 총계와 비용의 현재가치총계의 차이를 계산한 지표로 다음의 식으로 산출
- 일반적으로 인프라정비사업은 초기에 고액의 자본비용이 투자되어, 여기에 계속해서 소액의 유지 운영비가 발생되며, 편익은 사업 완료년도에 발생하여 일정 또는 매년 증가
-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수록, NPV는 감소

$$NPV = \sum_{t=0}^T \frac{B_t}{(1+r)^t} - \sum_{t=0}^T \frac{C_t}{(1+r)^t} \quad (r : \text{할인율})$$

3) 내부수익률(IRR : Internal Rate of Retu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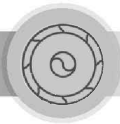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내부수익률은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는 할인율을 의미
- 어떤 공공사업의 순현재가치(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비용(건설비, 유지운영비 등)을 사업내용기간 내에 회수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비용의 가득력을 의미
- 따라서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의 합이 같아지는 할인율이 사회적 기회비용 보다 높으면 사업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

4) 사업의 평가

- 사업 채택여부에 대한 NPV, B/C Ratio, IRR의 3가지 지표의 관계는 NPV가 0보다 크고, B/C Ratio가 1보다 크고, IRR이 할인율보다 큰 경우, 해당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

[표 40] NPV, B/C, IRR의 관계와 평가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	평가
NPV > 0	B/C Ratio > 1	IRR > r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
NPV < 0	B/C Ratio < 1	IRR < r	사업을 채택하지 않음
NPV = 0	B/C Ratio = 1	IRR = r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 혹은 기각이라고는 할 수 없음



2.2 편익 추정

1) 경제적 편익

- 경제적 편익은 금전적 직접혜택 및 비금전적 간접혜택을 모두 포함한 편익으로써 현금유입은 금전적 직접혜택으로 보며, 관람교육 및 관광휴양은 비금전적 간접혜택으로 보아서 산출하며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음
 - 경제적 편익 = 직접적 혜택 + 간접적 혜택
 - = 금전적 혜택 + 비금전적 혜택

- 이용 수입금 : 982,000,000원 (①+②+③)
 - 방문객 수요를 추정하는 방식은 주변유사한 기능부문의 시설의 연간 방문객수를 벤치마킹 지수차 원으로 설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이유는 관광객은 특정 시설만 관람하기 보다는 인근지역까지 찾아온 김에 색다른 다양한 관광지를 둘러보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임

 -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남원시 운봉읍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의 연간 방문객 60,000명을 벤치마킹 관광인원으로 기준설정하여 예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

 - 방문객 수요 : 연간 65,000명 예상
 - 단기간 : 국악의성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예상시 연간 32,000명
 - 중장기 : 운봉읍 지역 학생방문 시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연간 60,000명
 - 목 표 : 5년후 가정, 중장기 + 국악 관련 전문인 및 전국학생 = 연간 65,000명

 - ① 일반체험요금(직접혜택) : 195,000,000원
 - = 15,000원 × 1개 프로그램 × 65,000명 × 20% 체험율
 - ② 국악체험요금(직접혜택) : 7,200,000원
 - = 600,000원 × 1개 프로그램 × (1개 단체×12개월)
 - ③ 관람간접혜택(간접혜택) : 780,000,000
 - = 15,000원 가치 × 1회 관람가치 × 65,000명 × (1-20%)

2.3 비용 추정

1) 사업비

- 앞에서 분석한 공사비, 토목비 및 용역비를 모두 합산한 **사업비 8,460,000,000원**
 - ALT1(전시관·묘역 리뉴얼) + ALT2(국악연구소) 공사비 + 토목공사 + 용역비

2) 운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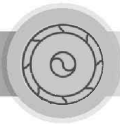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인건비 : 262,080,000원**
 - 운영관리직 6명(관장, 기획홍보, 해설사, 학예사, 연구원 등)

$$10,000\text{원} \times 400\% \text{ 상여금} \times 8\text{시간/일} \times 30\text{일/월} \times 12\text{개월} \times 6\text{명} = 224,640,000\text{원}$$
 - 시설관리직 1명(시설유지)

$$10,000\text{원} \times 400\% \text{ 상여금} \times 8\text{시간/일} \times 30\text{일/월} \times 12\text{개월} = 37,440,000\text{원}$$
- **운영경비 : 185,000,000원**
 - 인건비 이외 경비항목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2022년 기업경영분석」 중에서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제조원가명세서 자료를 분석하여 원가법으로 배분 및 산정

[표 41] 운영경비 산출

구분	구성비	산정가격(원/년)	비고
당기총제조비용	100.00%		
재료비	4.35%		
노무비	56.09%	262,080,000	위 인건비 참조
경비	39.56%	184,843,730	만원단위 절사
복리후생비	4.57%	21,353,282	
전력비	0.19%	887,773	
가스수도비	0.20%	934,498	
감가상각비	1.92%	8,971,182	
세금과공과	0.90%	4,205,242	
임차료	1.54%	7,195,636	
보험료	1.10%	5,139,740	
수선비	0.35%	1,635,372	
외주가공비	9.02%	42,145,866	
운반하역보관 등	0.86%	4,018,342	
경상개발비	0.03%	140,175	
기타경비	18.87%	88,169,898	



2.4 할인율

-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사회적 할인율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의 제50조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

2.5 분석 기간

- 분석 기간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활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국악의성지 내 신규 건축물 조성 이후 30년을 기준으로 설정

2.6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 경제적 타당성 있음 : B/C ratio 1.04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비(B/C ratio)가 1보다 큰 1.003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 내부수익률 IRR 은 0.1%로 현재 은행이자율 보다는 매우 낮지만 투자금 회수는 가능한 수준
 - 순현재가치(편익-수익)는 46,390천원으로 순편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

[표 42]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비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비용편익(B/C)
8,460,000천원	46,390천원	0.1%	1.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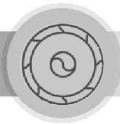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표 43] 연차별 현금흐름표

(단위 : 천원, %)

연도	편익	비용	할인율 (4.5%)	편익 현재가 (A)	비용 현재가 (B)	순현재가치 (A-B)
2024	-	-	1.000	-	-	-
2025	-	-	0.955	-	-	-
2026	-	8,460,000	0.912	-	7,715,732	-7,715,732
2027	982,000	447,080	0.871	855,306	389,399	465,907
2028	982,000	447,080	0.832	816,817	371,876	444,941
2029	982,000	447,080	0.794	780,061	355,142	424,919

(단위 : 천원, %)

연도	편익	비용	할인율 (4.5%)	편익 현재가 (A)	비용 현재가 (B)	순현재가치 (A-B)
2030	982,000	447,080	0.759	744,958	339,161	405,797
2031	982,000	447,080	0.724	711,435	323,898	387,536
2032	982,000	447,080	0.692	679,420	309,323	370,097
2033	982,000	447,080	0.661	648,846	295,403	353,443
2034	982,000	447,080	0.631	619,648	282,110	337,538
2035	982,000	447,080	0.603	591,764	269,415	322,349
2036	982,000	447,080	0.575	565,135	257,292	307,843
2037	982,000	447,080	0.550	539,704	245,714	293,990
2038	982,000	447,080	0.525	515,417	234,656	280,761
2039	982,000	447,080	0.501	492,223	224,097	268,126
2040	982,000	447,080	0.479	470,073	214,013	256,061
2041	982,000	447,080	0.457	448,920	204,382	244,538
2042	982,000	447,080	0.437	428,718	195,185	233,534
2043	982,000	447,080	0.417	409,426	186,401	223,025
2044	982,000	447,080	0.398	391,002	178,013	212,989
2045	982,000	447,080	0.380	373,407	170,003	203,404
2046	982,000	447,080	0.363	356,604	162,353	194,251
2047	982,000	447,080	0.347	340,556	155,047	185,510
2048	982,000	447,080	0.331	325,231	148,070	177,162
2049	982,000	447,080	0.316	310,596	141,407	169,189
2050	982,000	447,080	0.302	296,619	135,043	161,576
2051	982,000	447,080	0.288	283,271	128,966	154,305
2052	982,000	447,080	0.275	270,524	123,163	147,361
2053	982,000	447,080	0.263	258,350	117,620	140,730
2054	982,000	447,080	0.251	246,725	112,328	134,397
2055	982,000	447,080	0.240	235,622	107,273	128,349
2056	982,000	447,080	0.229	234,941	102,446	132,495
계	29,503,300	21,872,400	-	14,241,320	14,194,931	46,390



제4절 파급효과 분석

1.1 산업연관분석 의의

- 산업연관분석은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 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경제구조 분석, 생산 활동의 각종 파급효과 분석, 경제예측 및 계획수립, 산업부문별 성장요인 분석 등에 있어 유용한 분석도구임
- 산업연관분석은 한 나라의 산업전체를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일반균형 접근방법으로써 생산, 소득, 고용, 취업, 부가가치, 정부 조세수입 및 수입(import)에 대한 직·간접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도구라 할 수 있음
- 산업연관표를 통한 산업의 경제효과 측정, 관련산업과 타산업과의 경제효과에 대한 비교평가, 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은 의사결정의 유용한 기초 자료
 -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은 산업과 산업간의 연관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
 - 산업연관분석에 필요한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한 경제 내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가 어느 부문에서 생성되고, 생성된 것이 어느 부문으로 사용되는가를 나타내는 행렬 형태의 통계

1.2 분석범위 및 전제

- 국악의성지 국악연구소 조성 및 기존시설 리뉴얼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는 크게 건설투자 단계와 산업활동 운영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건설투자 단계에서의 파급효과만을 분석
- 실제 조성에 따른 공사가 착수될 시점부터 건축이 완료되는 예상 완료시점까지의 건설부문 투자액을 최종수요로 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예측
- 건설부문 투자액은 크게 건축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중에서 2013년의 투입유발계수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을 분석

1.3 산업연관 효과분석

1) 용어 정의

○ 생산유발계수

- 생산유발계수는 어떤 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해당산업에서 최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생산한 1단위와 이 1단위 생산을 위하여 해당 산업 및 타 산업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효과의 크기를 합산

○ 부가가치유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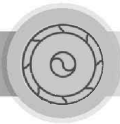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어떤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최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산업이 직접 생산한 1단위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에 1단위 생산을 위해 해당 산업 및 타 산업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된 부가가치효과의 크기를 합산

○ 수입유발계수

- 수입유발계수는 어떤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해당 제품의 최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해당 제품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수입중간재(수입 의존도)에다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해 투입된 국산품(즉, 중간재로 이용된 국산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사용된 수입중간재를 합산

○ 취업유발계수

- 특정 국산품 1단위(10억원)에 의해 해당 산업 생산을 위한 취업자 수(직접효과)와 생산파급효과에 의해 다른 산업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간접효과)를 합한 직·간접 유발인원을 의미 (경상가격 기준은 생산기술구조 변화에 의한 효과뿐만 아니라 가격변화에 의한 효과도 반영되므로 시계열 비교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



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투자비 중 건설단계에 투자되는 초기투자비는 총 8,46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산출
-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산·부가가치·수입·취업유발승수를 적용

[표 44] 지역별 최종수요에 의한 유발계수

최종수요지역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전북특별자치도 자기지역	0.909	0.444	0.105	0.0101
타지역	0.962	0.639	0.130	0.0083

- 국악의성지 국악연구소 및 기존시설리뉴얼 등 사업건립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파급효과는 7,690백만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3,756백만원, 수입 파급효과 888백만원, 취업 파급효과 85명으로 추정

[표 45] 경제적 파급효과

구분	생산 파급효과	부가가치 파급효과	수입 파급효과	취업 파급효과
총 공사비	8,460백만원			
전북특별자치도 자기지역	7,690백만원	3,756백만원	888백만원	85명
타지역	8,139백만원	5,406백만원	1,100백만원	70명



관리운영방안

I. 운영기본방향

II. 운영주체 및 조직구성안

제7장

관리운영방안

제1절 운영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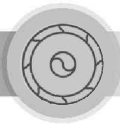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1 국악의성지 운영 기본방향

□ 환경과의 조화 추구한 조성 및 운영

- 청정하고 수려한 남원시 운봉읍 일대의 자연환경, 역사문화자원, 친환경적인 생활입지 등 고려하여 주변환경 및 마을과 공생관계 및 생태적 연계 추구
 - 운봉읍 지리산 자락, 동편제마을(비전마을, 전촌마을) 인접한 위치에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상호보완적이고 상생적 연계 고려한 발전계획 필요
 -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공존 및 발전하는 생태적 연계 추구
 - 이를 위해서는 국악의성지 고유기능을 발현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조성 및 운영해야 하며, 인접지역 체류 관광객의 자연스러운 방문유도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마케팅 수단 협업 필요
 - 또한, 비록 자연경관은 빼어나지만 바람의 거센 영향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야외공연장을 이용성을 높인 효율적 기능공간(국악연구소 등)으로 변경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응용력 필요
 - 그리고, 국악의성지 명성이 체감될 수 있도록 명창의 음향과 시설 간에 융복합된 소리공원, 소리조형물 등 반영 요구

□ 공공성 및 선도성 추구

- 국악 공연, 국악 소리공부, 체험학습 등 우리음악 부흥발전을 도모하는 만큼, 국악의성지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입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국악부흥을 펼치는 선도성 추구
 - 전국의 전문 국악인에게 새로운 창작 실험을 장려하여 다채로운 창극 장르를 상품화 개발
 - 명창의 소리를 디지털 악보화 하고, 일생일대를 조명 하는 등 후대에 영속하는 역사자원의 산지가 되고 이러한 선구자적 노력을 통해 후학의 명창인물 지속 발굴 역할 추구



제2절 운영주체 및 조직구성안

2.1 운영주체의 설정

- 현재 국악의성지 설립 주체는 남원시, 하지만 전국의 국악인이 모여드는 랜드마크 국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남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및 외부 조직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로 구분 할 수 있음
 - 이때 운영 주체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인사의 자율성, 재정·회계의 독립성 및 안정성, 사업추진의 전문성, 사업내용의 공공성 확보 등이 있음
 - 국악의성지 특징과 기능에 적합한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결정해야 함

2.2 관리운영 방식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서비스의 제공방식은 다양하지만,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방식은 직영운영, 간접관리운영(위탁관리), 민간투자, 민영화 방식 등으로 구분됨
- 시설의 특징 및 운영 효율성에 따라서 적절한 운영방식 결정해야 함

[표 46] 공공서비스 제공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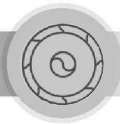
구분		내용	비고
직접관리	행정부서 관리형	- 일반 행정기관이 직접 관련하여 서비스 공급 - 자원 부담 : 공공기관 - 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	전문성 확보 및 서비스 본질을 살릴 수 있는 운영체계로의 개선 필요
	사업소형		
간접관리	시설관리공단	- 문화·체육·복지시설 통합관장 - 자원 부담 : 공공기관 - 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	운영 지속성을 위한 자원 다각화 필요 시설의 전문운영을 위한 성과모니터링 필요
	재단법인	-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받아 자율운영 - 자원 부담 : 공공기관 - 서비스 제공 : 민간	
	민간위탁	- 지자체가 서비스제공자인 민간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자는 세금 등 통해 비용 간접 부담 - 자원 부담 : 공공기관+민간 - 서비스 제공 : 민간	
	책임운영 기관형 (직·간접 관리)	- 경영전반에 운영 자율성 부여 - 자원 부담 : 공공기관 - 서비스 제공 : 민간	
민간투자		- 공공영역과 파트너십 통해 민간영역의 운영 참여 - 자원 부담 : 공공기관+민간 공동(대부분 민간 부담) - 서비스 제공 : 민간	민간 창의적 운영체계 도입
민영화		- 서비스 공급 및 제공을 모두 민간에 이전 - 자원 부담 : 민간 - 서비스 제공 : 민간	민간 아웃소싱으로 전문운영체계 도입

□ 공공서비스 공공재로서, 국가 주도의 공공운영 고려

- 일반적으로 공연장, 체험관, 전시관 등은 민간기업의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하지만, 국악의성지는 지역문화예술 증진의 목표를 위해서 2004년 남원시 지자체 예산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는 시설
- 향후 국가적 수준으로 그 위상을 높일 경우, 지역민 및 우리음악 관계자를 위한 공공서비스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재라고 볼 수 있음

[표 47] 관리운영방식에 따른 사업 분류

구분	장점	단점
공공 운영	• 책임경영 구현과 공공기능 유지 • 재정확보 안정성 및 공익성 확보 •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 제품 신뢰성, 안정성 확보 • 서비스 품질 관리노력 우수 • 다각적인 홍보마케팅 수단 강구 가능 •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수급 용이 • 일자리 증가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대 • 국가 및 지자체의 발전계획 신속 추진 • 글로벌 해외주재 기관 등 네트워크 협력 가능 • 역사문화 보존 및 전통계승 공익목적 추구 적합	• 전문인력 및 운영노하우 확보 어려움 • 관리운영 효율성 및 유연성 낮음 •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 어려움 •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력 부족
민간 운영	• 서비스 수준 및 운영활성화 유리 • 관리운영 전문성 및 전문가 확보 용이 • 운영 노하우로 효율적 운영관리 가능 • 의사결정 및 예산투입의 신속 • 관리감독 용이 •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 다양한 마케팅활동과 고객관리 가능	• 이윤 추구로 공공 신뢰성 저하 우려 • 도산 및 파업 등 서비스 중단 우려 •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낮음 • 책임경영 소홀
민간 위탁	• 전문지식, 기술, 경험 없이 관리운영 가능 • 행정력 및 예산 절감 • 민간 및 지자체 간 직영 조화 • 위험부담의 분산 가능	• 소유자의 시설물에 대한 경영상 통제력 낮음 • 경영수익은 계약된 위탁수수료만큼 감소 • 경영자와 소유자가 의사불일치 문제 발생 우려



2.3 운영조직안

- 향후 도입 기능에 따른 역할 분장과 필요인원은 다음과 같으며, 1관장, 5개팀으로 조직할 수 있음

[표 48] 향후 국악의성지 운영조직안

구분	담당업무	기본 인력(명) ①	추가 인력(명) ②	최소인원(명) ①+②
관장	• 발전계획 및 운영 총괄	1	-	1 ※ 지자체 중앙기관 소속 겸직
기획·홍보	• 지역 연계사업 프로그램 기획 • 국제교류 및 홍보마케팅 추진 • 공연장 관리 및 지원 • 총무회계 담당	1	1	2
전시관	• 해설사	1	-	1
체험관	• 국악관련 전문 강사	외부 강사	-	외부 강사
국악연구소	• 학예사 • 연구원	2	-	2
시설관리	• 청소 및 방호	외부 용역	-	외부용역
	• 조경 및 외부시설 관리			
합 계		5	1	6

- 향후 국악의성지 기능확장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핵심역할만을 수행하기 위한 인원조직 산출한 결과 최소 6명이 적정한 인원으로 산정
 - 체험관 전문 강사, 시설관리 인력은 외부 아웃소싱
- 관장은 국악의성지 발전계획 및 운영 총괄하며, 전체적인 전략기획 및 정책 수립
 - 필요시 지자체 또는 중앙기관 소속 겸직 가능
- 국제교류 홍보마케팅, 홈페이지관리, 지역사회 연계사업 기획, 공연장 관리지원 등 담당하는 기획전략파트 인원, 그리고 총무회계 담당하는 인력 필요시 충원
- 국악연구소 운영을 위해서는 학예사 필요하며, 연구원과 함께 기능수행을 할 수 있게 하고, 향후 국가적 위상 역할을 위한 조직체계 확장은 추후 마련



남원시

발 행 일 : 2024년 6월
발 행 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발 행 인 : 남원시장
편집·참여 : 남원시 문화예술과 국악진흥팀
<http://www.namwon.go.kr>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620-6166 / 팩스 (063)620-6707
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지방정책연구원
[5508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1길 6-3, 3층(효자동2가)
전화 (063)228-3006 / 팩스 (0504)080-0495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남원시에 있습니다.